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제 133호
2011. 02. 28.

논 단 /자 료

□ 국가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역할 증대 및 발전 방향 ····· 황말례 / 1

□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신축 과제 및 추진방안 ··· 최미순 / 23

□ WPRIM에서 사서의 역할 : The Role of Librarians in the WPRIM····· 권광희 / 51

□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고 보존환경을 중심으로 -····· 권재철 / 64

해 외 연 수

□ "New Challenges, New Opportunities" - The 8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2010. 4. 23. ~ 4. 27.) ····· 나혜란, 김소미 / 82

□ 규슈대학 부속도서관 출장보고 ····· 송지형 / 93

□ IFLA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출장보고 ····· 김기태 / 108

현 황

□ 시 설 ····· 115

□ 직 원 ····· 117

□ 자 료 ····· 118

□ 예 산 ····· 125

□ 데이터베이스 구축 ····· 126

□ 이 용 ····· 127

주 요 소 식

□ 중앙도서관 ····· 129

□ 분 관 ····· 139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147

직 원 동 정

□ 국외출장 ····· 149

□ 인사발령 · 포상 ····· 150

□ 직원일람표 ····· 153

도서관방문 ····· 157

논 단 / 자 료

국가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역할증대 및 발전방향

황 말 례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목 차 >

1. 서 론

2. 해외운영사례
2.1. 독일 사례
2.2. 일본 사례
2.3. 프랑스 사례

3. 국내 설립배경 및 경과

4. 서울대학교 운영사례
-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4.2. 서비스 체계 구축개요
4.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

5. 결 론

초 록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연구자들에게 해외학술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구매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6년 경북대학교에 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개 대학에 7개 지원분야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센터로 지정받은 각 대학도서관들은 국가지원예산과 학교자체 대응투자 예산으로 해당 주제별 학술지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복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학술정보 서비스를 산·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서비스 함으로써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가 연구자들의 학문연구에 중심이 되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1. 서 론

학술정보의 확보와 원활한 유통은 연구 환경의 기반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연구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전문학술지는 학술연구의 기록물로, 연구자의 업적평가의 수단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매체 및 통신의 발달로 전자저널과 전자DB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학술지 출판사들은 대부분의 판권을 확보하고 인쇄형태보다 전자형태의 학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온라인 구독을 유도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도서관들 또한 보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쇄학술지 구독보다는 전자학술지 구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형태의 학술지는 접근・이용은 편리하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원문복사 서비스가 어렵고, 구독중단 시 콘텐츠의 보존 및 활용이 어렵다. 특히 패키지 형태의 공급으로 인한 도서관의 구매력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원문복사 서비스가 가능한 인쇄학술지를 확보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5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내외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시범적으로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 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6년 8월 21일 경북대학교가 전자・정보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관련주제 학술지를 구입하여 전국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0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대 사업계획을 수립한 교육과학기술부[1]가 7개의 대학도서관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정함으로써 각 센터 대학들은 해당주제별 학술지를 수집하여 대학 내의 교수, 학생 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연구자 모두에게 무료원문복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각 대학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들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과 역량 강화, 정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선행되었던 주요 선진국의 학술지 수집 정책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술지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해외운영사례

2.1. 독일 사례[2]

독일연구재단(DFG: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German Research Foundation)은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 중앙 학술단체이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됨.
2) 심원식, 박홍식. “해외인쇄학술지의 확보와 유통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2004), pp. 141-159.

역할 중 학술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학술 문서관리 지원제도(Scientific Library Services and Information Systems)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체계적 학술정보의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초지역적 또는 구조적인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술문서관리 지원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위원회(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분담수서를 통하여 학술정보 확충에 지원하고 있으며, 60여개의 도서관이 120개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국 상호대차 제도를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DFG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독일 내 모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SG(Subject Special Collection, Sondersammelgebiete)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해당 분야의 주요 정보를 망라하는 학술정보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지원 센타는 외국학술지와 함께 주요 단행본,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합적인 외국학술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주요 국내외 웹 자원을 정리하여 구입한 자료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분야의 진정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지원에 있어 국내 학술정보의 구입경비는 개별 대학에서 모두 부담하되, 외국 학술정보 구입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1.1. SSG 지원 및 운영방법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위원회(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에서 지원 센터로 선정되면, SSG에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예산으로 학술자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SSG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가. 본(Bonn) 대학 사례

Bonn대학 중앙도서관은 Roman분야의 학술정보 지원센터로 지정 되었으며 약 22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약 100여개의 분관들이 각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설치되어있다.

SSG 담당자는 관련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사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본 대학에서 Roman분야 전문사서로 일하고 있는 Dr. Wolfgang Hillen은 Roman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사서이다.

SSG 운영현황을 보면 대학과 DFG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SSG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 자료 구입비용의 75%(2006년 기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SSG의 목표는 해당 분야 자료를 망라 수집하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SSG를 합하면 최고의 국립 전공 도서관이 될 것이다. 각 분야별로 자료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DFG가 우선 조정하고, SSG사이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관끼리 협의 조정을 하나,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수도 있다.

SSG의 자료구입 지침은 우선 학문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1차적으로 구입하고, 상징성과 의미 있는 작품을 2차적으로, 그리고 작품에 대한 비평서를 3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2.2. 일본 사례[3)]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외국학술지의 가격상승과 전자저널의 대두 등 도서 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학술지 수집을 분야별로 분담하여 망라 수집하고, 전국 공사립 대학의 연구자에게 문헌 복사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화 52년(1977년)부터 9개 대학의 국립대학을 외국학술지 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센터의 지정은 학문분야별로 구분되었는데 의학・생물 분야, 이공 분야, 농학 분야,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4개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분야별로 2, 3개의 센터를 선정하여 주 센터와 서브 센터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학문분야별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학/생물 분야에 오사카 대학, 도호쿠 대학, 큐슈 대학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이공 분야에는 도쿄공업대학과 쿄토 대학이, 농학 분야에는 동경대학과 가고시마 대학이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는 히토츠바시 대학과 고베대학이 센 터로 지정되어 매년 20억 엔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일본 학술지 지원센터에서의 학술지 수집범위에는 보고서 등 회의 자료도 포함시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술지가 2/3, 보고서 등 회의 자료가 1/3 비율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잡지센터는 자국 내 희귀 학술정보 유통망인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를 통해 목록정보가 공유되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과 평가는 9개 도서관의 협의체인 NCOP(The National Center for Overseas Periodical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대학도서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2.2.1. 도쿄공업대학 도서관 사례

이공 분야의 주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쿄공업대학 도서관은 연간 운영비 2억 엔과 2명의 직원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지원받고 있다. 2005년 구독학술지가 1,612종이고, 신규 구독 잡지의 수가 112종으로 외부에 제공된 원문 복사가 약 27,000건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전담 인력은 정규 직원 2명과 보조 인력 3인으로 구성되었다.

도쿄공업대학 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센터는 학술지 이외에도 기술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며 센터자료만 따로 배열하지 않고, 관련 주제 소장 자료와 함께 혼합 배열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공 분야 서브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쿄토대학 부속도서관의 경우 서로 구독목록을 교환하여 중복 구독을 방지하고 있으나, 두 개 센터간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없다.

3) 차미경, “도서관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2.3. 프랑스 사례[4)]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은 1970년대 장서 규모, 예산, 시설, 이용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80년대 전후한 시점으로, 1982년 발표된 Vandevoorde에서 국가 및 대학당국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문화·특성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지원·육성 방안이 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초반 교육연구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의 수집, 배포 및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CADIST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프랑스에서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도서관 간 학술정보의 수집 및 공동 이용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의 역사와 전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학에 주요 학문 분야에 관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CADIST는 연구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특정 주제 분야에서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명실상부한 대규모 학술정보 공동 이용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CADIST는 학술자료의 확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장서개발 정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 자료를 위주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CD-ROM, 비디오,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구입한다. 필요한 자료의 상호대차 신청은 반드시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료 대출, 복사 등의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표1> CADIST의 임무, 성격, 역할 및 운영 방안

구분	내 용
임무	대학도서관 학술자료의 대대적 확충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자료의 확보 관련영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자료의 확충(1992년 보완)
성격	국가적 성격을 갖는 학술정보제공 기관
역할	지정된 학문분야와 관련된 자원의 완벽한 수집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출 및 재생산 시스템 운영 학술연구의 과정에 적극적 개입(1992년 보완)
운영	도서관 지원금 외에 CADIST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금 지급 성과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 상이하게 지급(1992년 보완)

4) 김선애,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2.3.1. CADIST 운영사례

학술정보센터인 CADIST는 현재 24여 개의 주제 분야를 37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CADIST 정책 시행에 있어 교육연구부는 대학의 역사, 전통, 학문적 특성, 지역 특성, 수도권 및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거의 5:5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순수・응용과학 분야의 CADIST 주제는 지질학/해양학, 수학, 의학/치의학, 물리학, 천문/천체물리학, 식물학/동물학/동식물/생물학, 화학/생물/약학 등의 7개 주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제 분야는 고대문명, 예술/고고학, 지리학/도시학, 경영/경제학, 역사: 중세사, 역사:현대사, 언어/문학/문명(영국), 언어/문학/문명(게르만), 언어/문학/문명(미국), 이베리아, 언어/문학/문명(이탈리아), 선사학, 국제관계/세계정세, 교육학, 법학, 정치학, 종교학 등 17주제 27개 기관이 센터로 지정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의 주제를 한 개 기관 혹은 몇 개 기관이 분담하여 지정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르본 대학도서관의 경우처럼 두 개의 주제 (지리학/도시학, 역사: 중세사)에 대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CADIST 정책의 도입 효과는 도서관 간 자료의 상호대차 부분에서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CADIST로 지정된 대학도서관 간에 행해지고 있는 상호대차 활동이 50%이상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 및 의학 분야 도서관의 경우는 전체 상호대차 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ADIST가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는데, CADIST 정책 도입 후 자료 수집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10배를 능가하는 괄목한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특정 대학도서관의 특정 주제에 의한 전문화, 세분화는 대학 내에서 관련 주제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대학의 특성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국내 설립배경 및 경과

3.1. 추진배경

- 학술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학술정보의 확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우리나라 지식정보 인프라는 미국의 1/17, 일본의 1/7, 독일의 1/4정도에 불과하여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 정보의 확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또한 각종 DB외 전자학술지가 다양화, 세분화되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유통에 한계가 있어 전국 학술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
-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게 되

었다.

3.2. 추진경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후, 1개의 대학도서관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학술지원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수 차례의 확충 및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2010년에는 10개 분야 지원센터(안)을 수립되었으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분야 지원 센터가 선정되어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 10개 지원 센터 계획(안)

예술/인문/어문	사회과학/법학	경제/경영	자연과학	기술과학
전기/전자/통신공학	농축산/해양	기초과학	임상의학	생명공학

- 2006년 8월 경북대학교가 전기・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2008년 11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여 15개 지원 센터로 확충(안)이 제시되었다.

<표 3> 15개 학술지지원센터 확충(안)

<table>
<tr><td>인문과학</td><td colspan="5">① 철학/종교/동양사/서양사</td></tr>
<tr><td>예체능</td><td colspan="5">② 음악/미술/연극.영화/체육.무용</td></tr>
<tr><td>어 문 학</td><td colspan="5">③동양어.문학/ 서양어.문학</td></tr>
<tr><td>의 학</td><td colspan="3">④ 의학/치의학/한의학</td><td colspan="2" rowspan="2">⑥ 약학, 생물.화학</td></tr>
<tr><td>순수과학</td><td colspan="3">⑤ 수학.수리학/물리학/지구과학.천문학</td></tr>
<tr><td>기술과학</td><td>⑦ 전기. 전자.통신</td><td>⑧컴퓨터 공학</td><td>⑨건축.토목/기계/ 조선.우주공학</td><td>⑩환경/에너지. 원자력/자원공학</td><td>⑪화학공학 /재료공학</td></tr>
<tr><td>사회과학</td><td colspan="2">⑫정치.외교/법률.행정학</td><td>⑬경제.경영학</td><td colspan="2">⑭신문.방송학/교육.사회</td></tr>
<tr><td>농.축산</td><td colspan="5">⑮농학/축산학/수산.해양학</td></tr>
</table>

- 2009년 5월 대학도서관 외국학술지 구독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4년제 대학의 평균 외국학술지 구독 금액이 3억원으로 자료구입비 11.8억원의 25.1%를 차지하고 있어 학술지 공동 활

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009년 10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대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원센터 사업을 계획하였다.
- 2009년 12월 2일 7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표 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현황

대 학 명	분 야	지원금액	주요학문분야
강원대학교	생명과학	3.5억원	약학, 생물학
경북대학교	정보통신	2.4억원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2억원	철학, 종교, 동/서양사, 동/서양어문학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3.5억원	건축, 토목공학, 기계・재료공학, 조선/우주항공공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3.5억원	수학, 물리・천문, 화학, 지구과학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3.1억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북대학교	농수축산	2.4억원	농・축산학, 수산・해양학
계		20.4억원	

※ 센터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운영비: 1.1 억원 (사업기관: KERIS)

3.3. 추진내용

<표 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업무

교육과학 기술부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 -사업비 확보, 평가, 지도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기관, 대학간 협력체제 운영
사업기관 (KERIS)	-외국학술지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운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업무관리 -사업 분석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평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대응투자비, 시설, 인적자원 확보 -해당분야 학술지 선정, 구독 및 원문서비스 실비 제공 -7개 협의체를 통한 분담수서 추진 -관련 교수, 연구자 등에 대한 학술지 정보 제공
대학도서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학술지 선정 시 참여 -교수, 연구원 등 학내 이용자에게 홍보 및 이용안내 -대학보유 학술지도 무료원문서비스 제공

- 학술지 총 구독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참여대학은 정부가 지원한 예산금액을 상회하는 대응투자비를 부담한다.

- 구독하는 외국학술지는 열람 및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통하여 모든 대학도서관이 공동이용한다
- 각 센터는 각 대학이 보유한 자료 중 해당주제 분야 자료를 센터자료에 포함하여 대학 외 연구소 등의 기관 및 일반인에게도 확대 서비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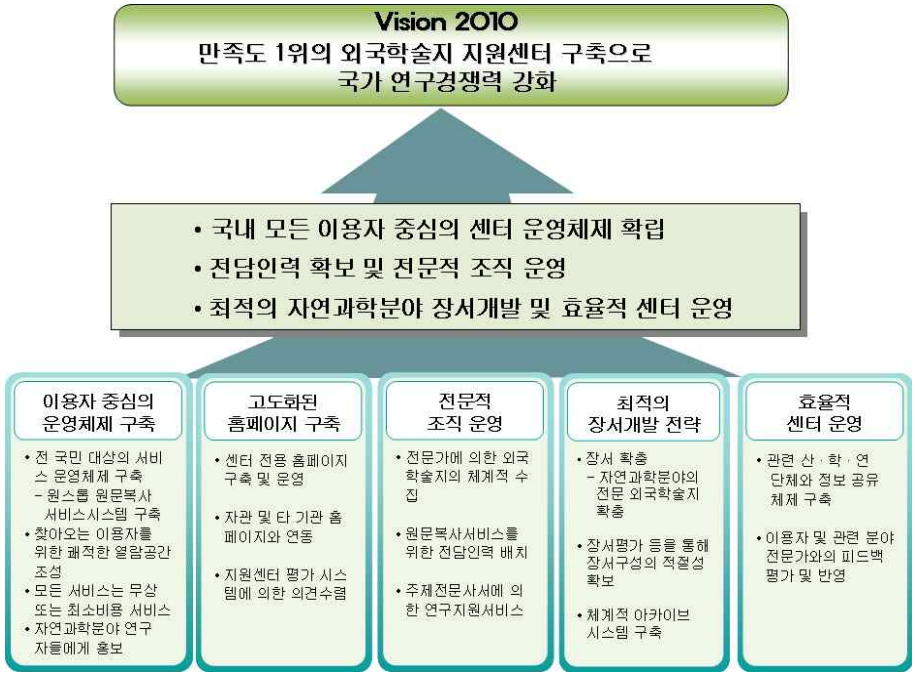
4. 서울대학교 운영사례 :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분야의 외국학술지를 폭넓게 수집·비치하여, 모든 자연과학분야의 학술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비 전 :

<표 5>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비전



서울대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종수는 Harvard 대학의 32%, 동경대학의 23%에 불과하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JCR 수록 학술지는 57% 정도밖에 구독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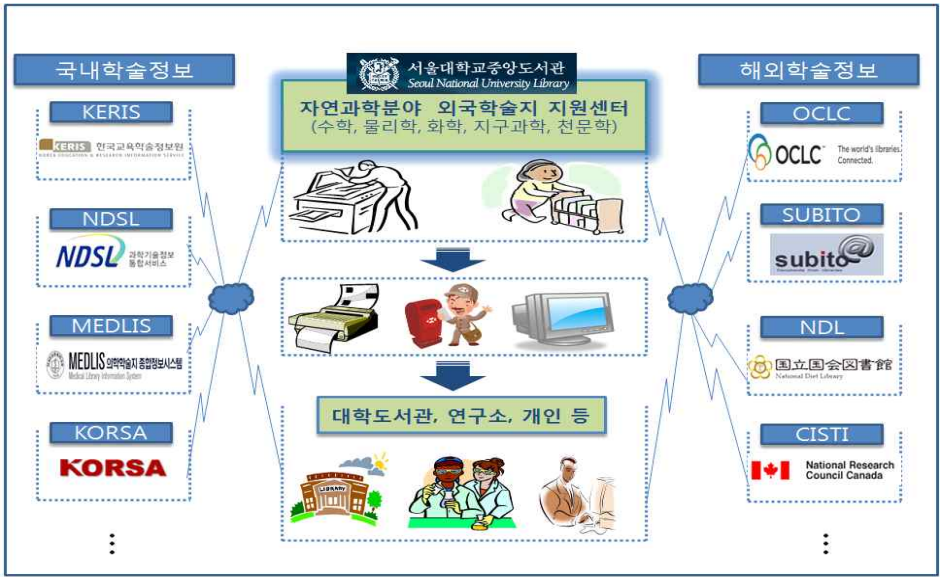
않다.

우리나라의 기술과학, 응용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수학, 물리학/천문, 화학, 지구과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토대를 이루고, 국내 열악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주제 연구자들에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4.2. 서비스 체계 구축 개요

4.2.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구성도

<그림 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구성도



- 자연과학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에 관련된 외국학술지를 선정, 구독하여, 기관 자체 구독 학술지와 혼합 배열하여 이용 편이성을 높이며, 소장된 모든 관련주제 학술지는 국내외 모든 도서관 및 연구소 연구자들과 공동 활용한다.

-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내외 및 일반 이용자에게 열람 및 무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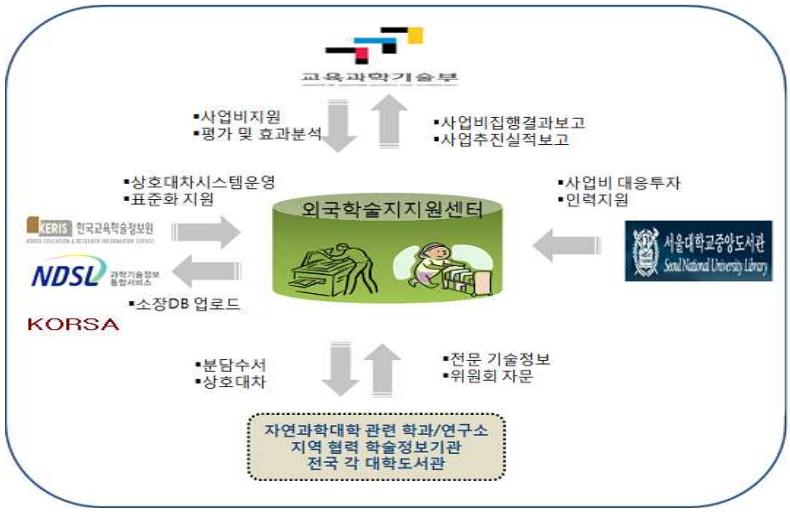
- 타 대학도서관, 연구소, 개인 연구자들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문복사를 신청할 경우, 저작권법 허용 범위 내에서 팩스, 우편,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배달 및 복사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센터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학술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정보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로 제공한다.

- 자연과학 분야 관련 학과 및 연구소, 분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복사서비스를 제공해준다.

4.2.2.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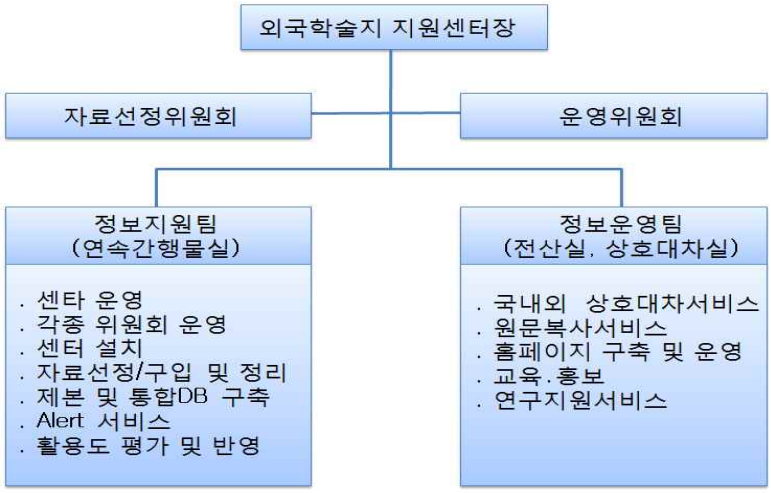
<그림 2>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성도



4.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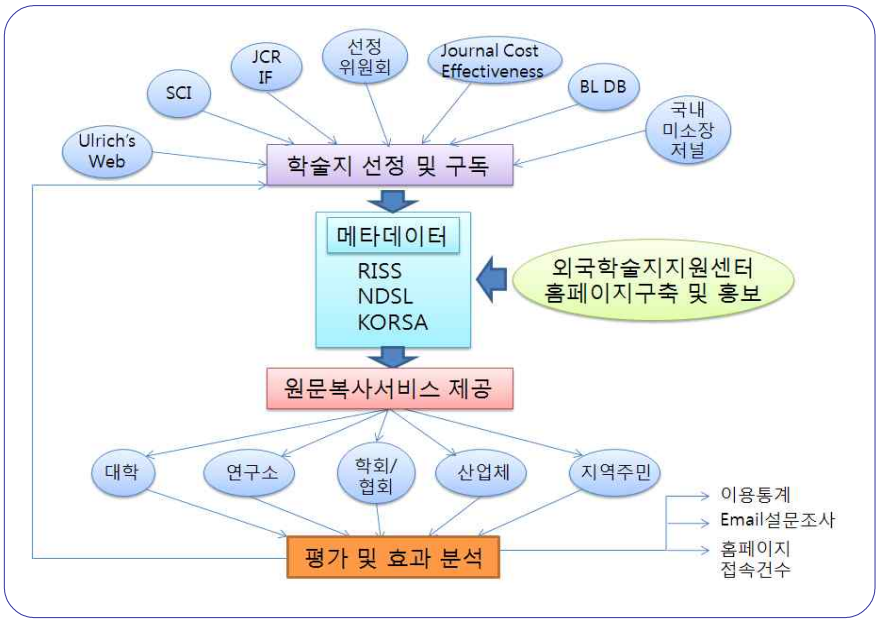
4.3.1. 지원센터 운영조직

<표 6>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조직



4.3.2. 지원센터 서비스 구성도 및 내용

<그림 2> 지원센터 자료구입 및 정보서비스 구성도



① 자료 선정기준

- 주제분야: 수학, 물리/천문, 화학, 지구과학 분야 핵심저널을 선정한다.
- JCR의 IF(Impact Factor), EF(Eigen Factor)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 SCI(E) Core Journal을 선정한다
- Journal Cost Effectiveness 참조하여 구독대비 효용성을 검토한다.
-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추천목록을 의뢰하여 참조한다.
- 내용, 출판사항등의 명확성, 가격의 적정성, 주제 분야 특성 등 센터 분야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구독자료 중 원문복사신청이 비율이 높은 비 소장 자료의 back issues 들을 구매한다.

② 선정된 학술지의 국내 미 보유 현황 조사

- RISS 종합목록, Wisecat, KORSA의 목록정보를 통하여 외국학술지의 국내소장여부를 조사하고, 소장도서관을 확인한다.
- 전국 대학에 관련분야 학술지 구입 신청을 받아 선정목록에 추가한다.

③ 구독확정 및 주문

- 구독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목록을 확정한다.

④ 학술지 입수 및 체크인 작업

- 학술지 입수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용자에게 최신 입수정보를 제공해주고 결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대행업체에게 독촉한다.

⑤ 학술지 제본 및 통합 DB구축

- 당해연도 간행물은 입수 후 6월 이후 제본하고, KERIS, KISTI 공동목록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 장서와 함께 관리한다.

⑥ 외국학술지 공동보존 계획

- 60만권 이상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서고 설치로 관련저널 망라 수집하여 보존이 가능하며, 대학 협력 대학과의 학술정보자원 공동 보존을 통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⑦ 이용자 서비스

-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지원센터의 역할과 무료 원문서비스에 관한 홍보를 한다.

- 센터공간을 설치하되 센터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함께 혼합 배열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센터서가에 센터서비스 자료라는 표식과 함께 가이드를 부착하여 무료복사서비스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 준다.

- 자연대학 관련학과 및 연구소 도서실과 연계하여 학과도서실에서 자 체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학내외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 복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 학술지의 alert service로 학계 및 관련주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 주제관련 학회 소식, 최신뉴스 등 주제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RISS, NDSL, MEDLIS 등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하여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의 이용신청을 받아 온라인, E-mail, FAX 등을 통하여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원센터 상호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7개 센터의 개별 시스템, KERIS의 RISS, KISTI의 NDSL, KMLA의 MEDLIS 시스템과 연동되는 외국학술지 통합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 센터 구입 학술지는 해당 온라인 저널과 연결하여 발간정보와 목차 정보 등을 제공한다.(해당 학술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⑧ 활용도 평가 및 반영

- 1년 단위로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 및 활용도를 분석·평가하여 학술지 소장의 지속성을 위해 5년 정도 평가 후, 최신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여 학술지 구독여부 검토 시 참고한다.

4.3.3. 지원센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

① 구입 학술지의 활용도 평가 방법

- 상호대차를 통한 이용자의 원문복사 신청 건수로 학술지 선호도를 산출한다.

-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학술지로의 접근횟수를 산출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를

산출한다.

- e-mail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를 측정한다.

-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사서비스를 신청한 자료의 건수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 측정 시 합산한다.

② 합리적인 고객만족도 평가 방안

- RISS, NDSL, MEDLIS 등 전체 상호대차 신청건수 및 제공 건수로 이용자의 원문복사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상호대차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평가 분석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 학술지의 최신성(최신 정보 업데이트 정도),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도), 전문성(전문적인 정보제공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지표로 사용한다.

③ 지역시회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비스

- 도서관 회원제 운영으로 자료 대출,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도서관 출입 등 시설을 개방하고 학술자료들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 2010년 8월말 현재 912명이 회원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7년 2월 지역 주민에의 개방 이후 점차적으로 회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지역도서관과 연계 홍보 및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개방으로, 찾아 가는 도서관 서비스 이미지를 홍보한다.

④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및 운영 현황

- 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

- 지원 분야 유관 기관(대학, 연구소, 학·협회, 산업체 등) 웹사이트 배너를 공유한다.

- 각 대학도서관 및 관련 협의회 웹 사이트 배너를 공유한다.

-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에 등록한다.

-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학술지 이용 활성화

- KERIS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1.1억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센터별 학술지 목록, 상호대차 신청의뢰, 커뮤니티 운영, 회원제 기능, 통계기능 등의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독 학술지 정보 필요로 하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의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신속한 학술지 이용을 가능케 하며, 커뮤니티 운영 등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사이버공간(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원센터 활성화를 기한다.

- KERIS의 RISS, KISTI의 NDSL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분관 홈페이지, 관련 연구소 도서실 등에 센터 배너를 연결하여 센터이용을 활성화 한다.

⑥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

-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중 50%는 정부에서,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대응투자를 해주어, 센터활성화에 기여한다.

- 중앙도서관 및 분관, 학과 및 연구소와의 공동 수서를 통하여 학술지 구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학내외 기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학술 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학내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여 Open Access로 학내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총 10,000여 연구저작물 중 자연과학 저작물이 80여종임.)

4.3.4. 지원센터 운영현황

① 학술지 선정 및 구독

- JCR 수록 학술지 중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구과학 분야 등 자연 과학 분야 목록을 IF 순으로 추출하였다.

- 자연과학대학에 구독 추천목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전국 대학도서관에 자연과학 분야 저널목록 추천 공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목록 중 소장 중 중복, 신청 중 중복, 컨소시엄관련 여부를 조사 하여 선정 예정 목록을 작성하였다.

- 자연과학대학에 학술지 선정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선정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목록을 작성하였다.

- 최종 선정된 목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 하였다.

② 지원센터 공간 조성

- 센터자료와 기존 관련분야 학술지를 혼합배열 함으로써 서가이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서가이동에 따른 가이드 교체작업을 하였다.

- 센터자료 이용을 공간 위치 표식을 위하여 해당 서가위에 천정걸이형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③ KERIS, KISTI, KORSA 등 전국상호대차 기관에 데이터 Upload

- 다른 기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대차 기관에 회원 가입 후 구입 자료 및 관련 주제자료를 각 기관 상호대차 시스템에 업로드 하였다.

<표 7> 상호대차 기관에로의 데이터 업로드 현황

일 시	내 용	Upload 수	총종수	대상기관
6월 22일	1차 자료 upload	428종	428종	KERIS, NDSL
7월 12일	2차 자료 upload	301종	729종	KERIS, NDSL
7월 29일	3차 자료 upload	1,257종	1,986종	KERIS, NDSL KORSA

<표 8> 7개 센터의 데이터 업로드 현황

(2010.08.23일 현재)

지 원 센 터 명	지 원 분 야	학술지(종수)
강 원 대 학 교	생명공학	327
경 북 대 학 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1,025
고 려 대 학 교	인문학	1,428
부 산 대 학 교	기술과학	468
서 울 대 학 교	자연과학	1,986
연 세 대 학교	임상의학	364
전 북 대 학 교	농축산학	364
합 계		5,962

④ 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공문 및 홍보 메일 발송

- 전국의 각 대학도서관 상호대차 담당자에게 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정보를 전자 메일로 발송했다.(233개 기관)

- 전국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자연과학대학장 앞으로 센터자료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61개 기관)

- 학내에 있는 자연과학분야 관련학과 및 연구소 소속원들에게 센터 자료 이용서비스를 홍보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9,107명)

- 교내소식 및 연구뉴스를 다루는 "e-뉴스레터"에 센터 관련 기사를 기고하였다.

⑤ 센터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자료 제작

<그림3> 지원센터 대표 로고

<그림 4> 도서관 안내 PDP를 통한 지원센터 홍보

<그림 5> 센터 서가의 천정걸이형 안내표지와 서비스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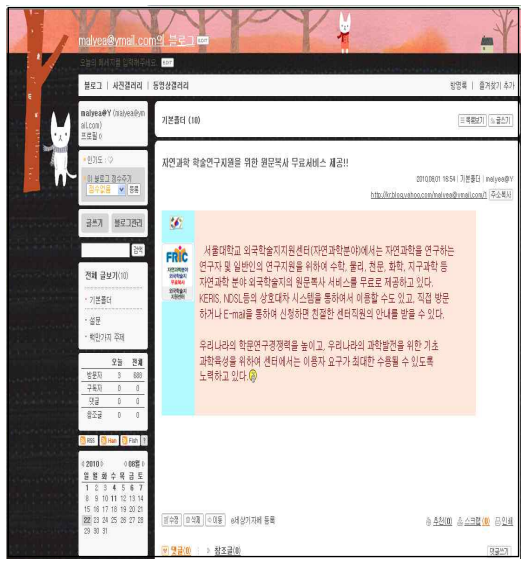
<그림 6> 중앙도서관 및 RISS 홈페이지의 지원센터 홍보 배너

<그림 7> 지원 센터 홍보용 리플렛 제작

<그림 8> 지원센터 홍보를 위한 블로그 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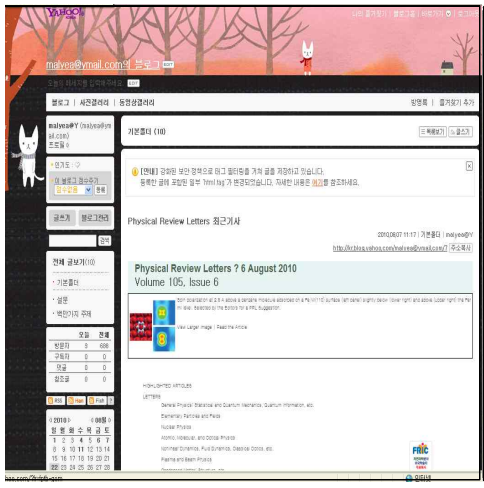
서울대 도서관 블로그에 포스팅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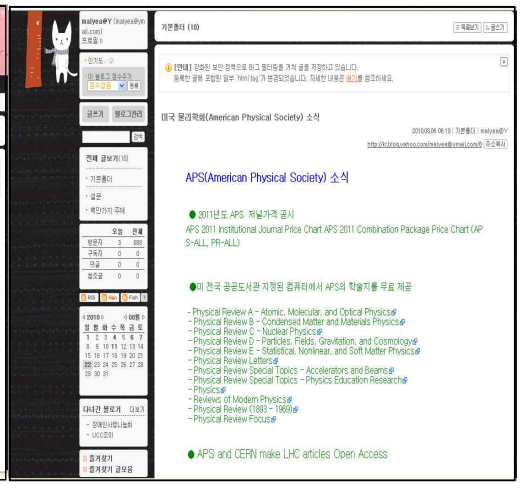


<그림 9> 목차정보 및 최근 학회소식 포스팅

물리학 저널의 목차정보 포스팅



최근 물리학회 동향 포스팅



5. 결 론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해외에서 발행되는 국내 미 보유 인쇄학술지 가운데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은 학술지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유통시키고, 대학별 중복 구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문 분야별로 특성화한 학술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예산 및 보존 공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자 한다.

프랑스, 일본,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구자들의 해외학술정보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학술자료를 구매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우리 정부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경북대학교를 전기・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7개의 센터를 지정하면서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분야별 지원센터의 기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각 센터들은 그들이 제안한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주제 핵심 학술지를 선정하고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직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도서관은 지원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적극적인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대학도서관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해가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과 학술정보 확충으로 국가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어야 하고, 어떠한 활성화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센터 또는 대학도서관간 분담수서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도서관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학술지 종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상호대차 활성화를 유도한다. 분담수서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상호대차서비스의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며, 상호대차에 대한 서비스 질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 및 상호대차 담당자는 가능한 빨리(1일 이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여주고 복사품질도 높이도록 한다.

셋째, 대학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선정된 주제 분야에 관련된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대학간 공동이용을 통한 학술자료의 효율적 유통은 개별 대학도서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와 대학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과 협조가 함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하며 소외를 피해야한다. 센터 주제 선정 시 소외되는 학문분야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학술지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센터별 주제영역을 재설정하거나, 정부의 센터확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학술정보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져야 한다. 지원센터가 단순한

외국학술지의 수집과 제공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분야의 주요 정보를 망라하여 학술정보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간 협력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지원센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센터 담당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속간행물인 학술지의 특성상 단기간의 사업투자는 사업비의 낭비일 뿐 아니라 대학 본부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예산낭비만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은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덟째, 학술자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학술정보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쇄학술지의 확보에 국한된 지원센터의 사업영역에서 보고서, 회의자료, 단행본, 비도서,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수집 범위의 확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홉째, 주제 전문서비스를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센터 주제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주제 전문사서의 육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열 째,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인들의 전문학술정보 이용을 지원한다. 미국 물리학회는 미국 전역 공공도서관에 물리학회 출판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문학술 정보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센터도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이용자들에게 학술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선행사례와 설립개요, 현황 등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막 출범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은 센터를 통해 학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연구기관과 일반 학술연구자들에게 널리 그 서비스를 알리어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본래의설립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추진 계획(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 교육과학기술부. (200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2009-201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3. 심원식, 박홍석. (2006). “인쇄학술지의 확보와 유통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89-303
4. 김선애. (200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 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5(2): 141-159
5. 차미경. (2006). 『도서관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신승철. (2006). “학술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모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대학도서관 실무자세미나(상호대차/수서분과)』.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 2006. 12. 1
7. 이재원. (200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국립대학도서관보』 27: 195-208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신축 과제 및 추진 방안

최 미 순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목 차 >

Ⅰ. 서론

Ⅱ.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2. 시사점

Ⅲ.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Ⅳ. 서울대 중앙도서관 신축 방안
1. 신축 추진방향
2. 도서관 신축(안)
3. 건축 설계 방향
4. 도서관 공간 구성 방향
5. 도서관 U서비스 설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학문 연구와 면학의 중심지로서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위한 학술정보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며, 자료 이용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이용에 이르는 일련의 자료 관리를 체계화하는 조직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75년 신축 이후 250만 권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고, 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서관의 연구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은 개관 후 2010년 현재 35년 경과하여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물의 노후성은 심각한 수준이며, 신축 당시 150만 책 소장 가능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150만 책을 넘어서면서 장서 수장 능력은 상실하였다. 해마다 10만 책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전체 서고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와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앙도서관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1990년대 국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화 이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주요 대학도서관들은 도서관 건립계획과 함께 새로운 도서관에 걸 맞는 정보서비스와 공간구성에 대한 고민들을 빠르게 구체화 하였다. 미래의 대학도서관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도서관은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서관 공간 모색을 위해 중앙도서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 신축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신축할 도서관의 과제는 무엇인지, 신축도서관 추진 시 토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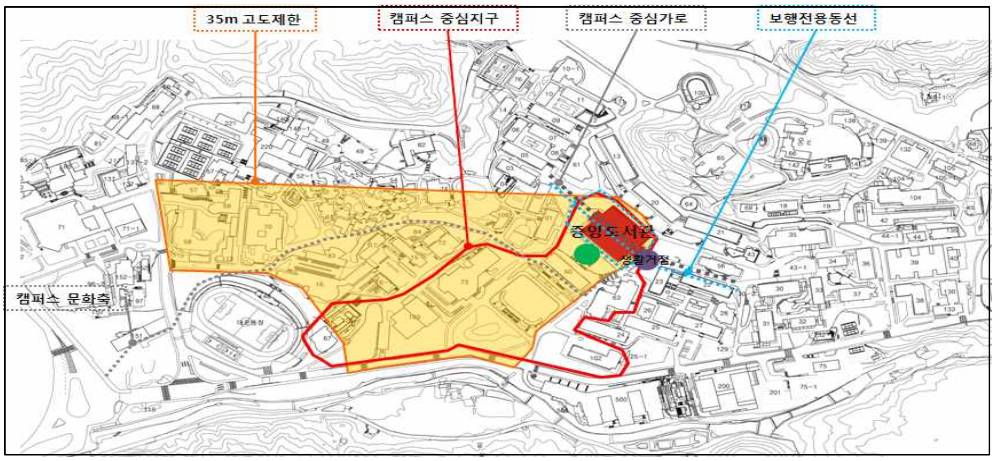
Ⅱ.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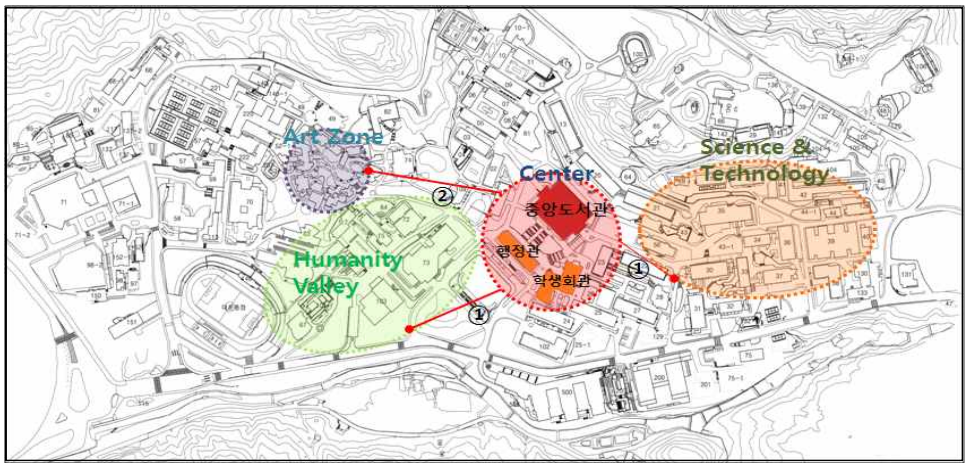
가. 건축적 측면

1) 캠퍼스적 특징

중앙도서관은 본교 종합화 계획의 실현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4년 캠퍼스 중심에 배치되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문계, 자연계, 사회계, 공학계를 배치하였고, 음악, 미술 등의 특수교육시설은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주요 교육시설들은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보 400m 이내에 배치되어 있어 물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캠퍼스 특징(II)



<그림 2> 캠퍼스 특징(I)

2) 건물 구조 및 공간 구성

중앙도서관은 건축면적 6,768㎡, 6개 층 연면적 30,505㎡의 건물로 구조는 1, 2층은 후면 지하, 전면 지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열람실로 운영하고 있다. 3층은 남북을 통하는 터널형태의 통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기계공조시설, 자료복원실, 자료반납대, 매점 등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엔 일반열람실이 있다. 4층은 3층에서 연결되는 중심의 경사로를 거쳐 올라가게 되어 있고, 로비 및 여러 기능의 자료실과 행정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5~6층은 4층과 똑같은 구조로 서고와 열람실, 사무실로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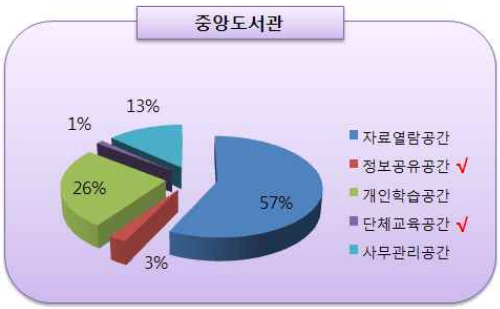
<표 1> 층별 주요 공간 현황

층	실명	전용면적	기능에 따른 분류
1층	제1열람실	1,545.32	개인학습공간
	기증/교환자료서고	240.00	사무관리공간
	검색실	14.11	자료열람공간
2층	제2열람실	907.38	개인학습공간
3층	제3열람실	1,619.65	개인학습공간
	도서관 행정실/창고	473.06	사무관리공간
	학위논문보존서고	354.25	자료열람공간
4층	사무실 및 창고	900.06	사무관리공간
	공동학습실	198.18	자료열람공간
	대회의실	112.50	단체교육공간
	연속간행물서고(소)	2,652.10	자료열람공간
	정보검색실	404.35	정보공유공간
	로비(중앙홀) 및 공용시설	663.26	공용공간
5층	단행본자료실	7,013.61	자료열람공간
	공익요원휴게실	49.50	공용공간
	사무실	100.00	사무관리공간
6층	수서정리과사무실	1,637.73	사무관리공간
	강의실	103.31	공용공간
	학위논문보존서고	3,540.35	자료열람공간
	제6열람실	760.16	개인학습공간
	세미나실	88.14	단체교육공간

아래의 <그림 3>은 현 서울대 중앙도서관 기능별 공간구성으로 <그림 4>의 최근 신축한 디지털도서관 기능별 공간구성과 비교해보면 중앙도서관은 정보공유공간과 단체교육공간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유공간은 PC 검색, 노트북 사용, 멀티미디어 제작 및 감상,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공간이며, 단체교육공간은 세미나실, 공동학습실, 국제회의실 및 대 회의실, 미디어감상실 등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유공간과 단체교육공간은 최근 이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생활 및 학습패턴 변화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은 정보공유공간 및 단체교육공간이 크게 부족함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보공유공간 및 단체교육공간이 부족한 반면 자료열람공간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자료열람공간은 자료열람실, 보존서고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도서관의 수장공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현재 중앙도서관의 수장공간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중앙도서관의 주요 공간 현황을 토대로 기능별 공간 구성을 분석해 보면 정보공유공간과 단체교육공간의 면적 비율이 낮고 자료열람공간의 면적 비율이 높아 전통적인 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용자 학습패턴의 변화에 부합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단순 자료수장 공간의 비율이 높으므로 트랜드에 맞는 공간구성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 중앙도서관 기능별 공간구성 비율

<그림 4> 최근 신축 디지털도서관 공간구성 비율

3) 건물의 노후성

중앙도서관 건물의 노후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0. 7. 16.)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은 법적 내구연한의 2/3인 20년 이상 경과시 노후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1974년 개관 후 2010년 현재 35년 경과되어 노후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 현황 및 위험요소 유무 파악은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5> 중앙도서관 외관 모습

특히 도서관은 옥상 노후화로 누수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장서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옥상 방수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술과에 옥상방수공사사업(8억원원 소요) 요구를 해 왔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옥상과 가까운 고문헌서고, 귀중본서고, 전산장비실이 침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서관 서비스가 중단될 것은 물론이고 귀중자료 소실 및 고가장비 훼손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대 캠퍼스의 신규 건물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도서관 옥상이 아래의 그림처럼 미관상 좋지 않아 캠퍼스 전경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6> 중앙도서관 옥상 전경

중앙도서관 건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설비의 노후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인 설비(배관, 전기, 장비 등)의 내구연한은 15~20년으로 이는 물리적 내구연한을 뜻하며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비의 사용수명은 구조체에 비해 짧아 주기적인 관리 및 교체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열람실의 난방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도서관은 6개의 일반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워플랜트에서 제공되는 중앙난방(등유난방)을 사용하고 있다. 1열람실은 천정이 높고 출입문이 넓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워 에어커튼 설치 등 보조난방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3A열람실은 24시간 개방하며 중앙난방 공급 중단 이후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등유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 및 유해가스 배출 위험이 있어 전기난방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이처럼 1열람실 및 3A열람실 보조난방 도입을 통한 열람실 난방시스템 개선으로 겨울철 열람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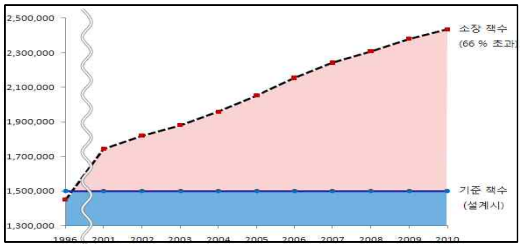
현재 중앙도서관의 건축과 설비는 법적 내구연한을 넘어선 사용기간을 가져 노후성의 문제가 있으며, 인체유해물질 발생의 우려가 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 등을 미루어볼 때 구조체에 대한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신축 및 리모델링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었었다. 30년 이상이 경과하면 먼지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건축재료 별 석면 함유량은 1980년대 이전 준공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연구가 있다 (노영만, 2006). 최근 2000년대 초까지 건축마감재 등에 석면 함유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도상을 통한 석면 시공 범위 확인 및 별도 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조사와 철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 운영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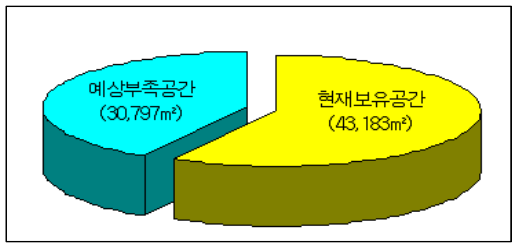
1) 장서 수장 능력 상실

1975년 2월 신축 당시 중앙도서관은 150만 책 소장 가능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약 250만 책을 소장하고 있어 이는 100만 책(66%) 과포화 상태이다. 1996년을 기점으로 중앙도서관

장서는 150만 책을 넘어섰고, 해마다 약 10만 책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장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중앙도서관에서는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2003년에는 3층 기계실 내 유휴지를 연속간행물 보존서고로 조성하였고, 같은 해에 6층 6열람실을 축소하여 임시 농학자료실로 활용하였으며 그 후 농학자료가 신축 분관으로 이전하면서 신문자료실 서고로 전환하였다. 2006년에는 재무과 창고로 사용 중인 지하 창고를 보존서고로 조성하여 고질적인 서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그 후에도 서고 공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현재 수원캠퍼스 구 농학도서관을 보존도서관으로 설치하여 이용률이 낮은 자료 약 65만 책을 이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존도서관 설치 및 자료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포화 상태의 장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임시방편적인 방안에 불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은 도서관 신축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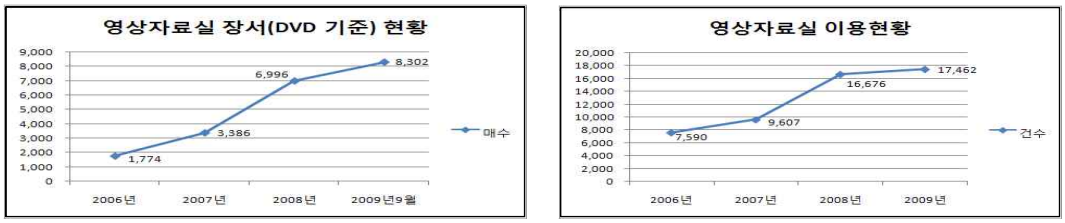
<그림 7> 장서 증가 추이 및 수장 능력



<그림 8> 예상 부족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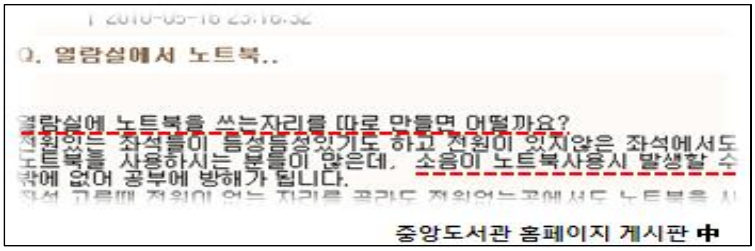
2) 기능 공간의 부족

중앙도서관은 1975년 당시 자료 소장 및 열람 목적으로 신축함에 따라 35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에 맞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동영상 강의, 과제 수행을 위한 PC 사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이나 휴식 및 단체 교육 공간 등은 더욱이 부족한 현실이다. 영상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 영화 DVD 정도의 열람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DVD 수용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이라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료 지원 외에도 학생들에게 멀티미디어 시설과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자율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주며, UCC 시대의 사회문화 흐름에 맞추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디지털 스튜디오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태이다. 중앙전산원 등이 멀티미디어와 정보검색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보면,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립디지털도서관 등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제작 및 이용 가능 전문시설을 구축하였다.



<그림 9> 영상자료실 현황

또한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으로 강의실이나 카페에서 학습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휴식과 만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화장실이 열람 테이블과 근접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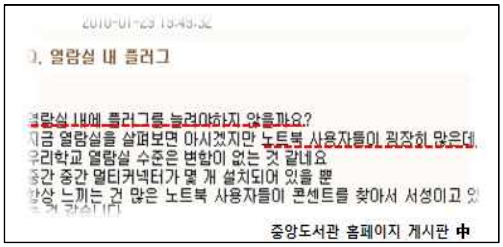
<그림 10> 기능 공간의 부족 의견 사례

앞으로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학습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공간을 확대해야 하고, 협업이 증가되는 그룹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 및 세미나룸 등의 공동학습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도서관 신축 시 이용자의 동선 및 공간의 목적을 고려한 공간 재설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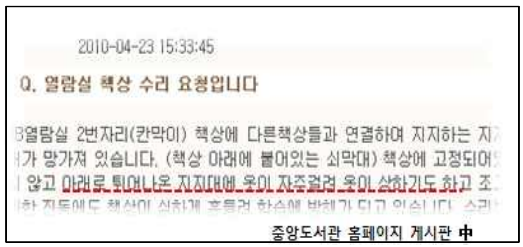
3) 시설 부재 및 노후

중앙도서관의 전원이나 인터넷 등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나 노후한 가구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열람테이블이나 의자, 도서관 가구 등의 경우 구입 연도 및 구입업체 등이 상이함에 따라 조화가 맞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인프라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으로 전원 시설의 부족, 전원 위치의 불편함, 그리고 불안정한 무선 인터넷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림 11> 시설 부재 의견 사례



<그림 12> 시설 노후 의견 사례

아울러 열람테이블 및 의자의 노후와 전원·랜 지원 열람테이블, PC 검색 전용 테이블 등 기능성 가구의 부족 등에 대한 의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선 랜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전기기기 및 이용자 편의 시설 개선,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성 가구 배치,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 도서관의 위상과 아이덴티티(identity)에 맞는 가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2. 시사점

위의 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분석분야	주 요 이 슈	시 사 점
트랜드	도서관 내·외적 환경 변화	여러 요인에 의한 도서관 트랜드 변화
	이용자의 학습패턴 변화	
	최근 도서관의 융합·문화 공간화 및 디자인(감성) 강조	
건축현황	건축물의 노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의 환경개선 필요
	학생들의 Needs를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 구성	공간의 재구성 및 추가 공간 확보 필요
운영현황	시설의 부재와 노후	인프라 증설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시설과 공간 필요
	기능공간의 부족	

앞으로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통한 도서관의 재건축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공간 재구성 및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시설 인프라 증설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

1. 국내 대학도서관 사례

국내 대학도서관은 2005년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을 시작으로 대학마다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와 공간을 통합관점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확산되었다. 2005년 이후 건립된 주요 도서관의 신축 사례를 정리하면 <표 20>와 같다.

<표 2> 국내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2005년 이후)

대학명	도서관명	개관일	면 적	총소요액	특징
고 려 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학술정보관)	2005.5	총23,340㎡ (도서관13,223㎡) 지하1~지상5층	650억 (전액삼성)	디지털 자료 중심의 Bookless 디지털도서관
연 세 대학교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008.5	33,369㎡ 지하3~지상6층	620억 (삼성300억)	최초 U서비스 제공(U-라운지 도입과 문화복합 IT 공간구성)
성균관 대학교	삼성 학술정보관	2009.3	23,742㎡ 지하2~지상7층	550억 (전액삼성)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건축 디자인에 중점을 둠
명 지 대학교	방목 학술정보관	2010.3.	27,799㎡ 지하3~지상4층	460억 (전액대학)	모바일 활용 U-서비스 미디어아트 도입
성 결 대학교	학술정보관	2010.9.	13,167.89㎡ 지하1~지상6층	200억 (전액대학)	국내 최초 자동서고 도입

이전에도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포항공대 등에서 이미 IT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을 신축한 사례가 있다.

가.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2005)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은 기존 중앙도서관과 별도로 신축 건립된 CDL(Centennial Digital Library)은 초기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콘셉트(Concept)로 책이 없는 전자정보 중심의 도서관(Bookless Library)으로 구축하였다. 신축 시 통합관점에서 IT 시스템과 공간 디자인, 시설 등을 매니지먼트한 사례로 타 대학도서관과 콘셉트, 기능 및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도모했다. 또한 전자정보서비스 공간 및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을 도서관 내에 도입하여 서비스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기존 중앙도서관과 기능을 분리하였다.

○ 디지털화, 통합화

- 정보 검색실 : Web 정보검색, 문서편집,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자저널, Web/원문DB 등)
- 국제 원격 회의실 :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 원격회의 가능
- Global Networking Lounge (6개 국제언어 전용 PC)
- 통합관리시스템 : Web을 통한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 예약, 조회

○ 『멀티미디어 Life』 지원

- Multimedia Production Lab : 멀티미디어 제작/시연장비 구축
- 멀티미디어 열람실 : TV, CD, DVD, VTR, Audio Tape 열람공간
- Theater : 고화질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구축

○ 『그룹모임 Life』 지원

- 이용자 교육실 :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 및 학술정보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
- Group Presentation Room, Group Study Room 제공

<그림 13>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그림 14> 정보검색실

<그림 15> 국제원격회의실

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2008)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은 기존의 중앙도서관과 연결하여 대규모 연세·삼성 학술정보관동을 신축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을 콘셉트로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목표로 하여 기본설계부터 도서관 IT 컨설팅을 받고 시작한 사례이다. 4개월간의 IT 컨설팅을 통해 각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도서관 IT 정보화 계획, 그리고 가구/집기 및 새로운 이용자서비스 방향에 대해 새로운 미래모형을 만들어 연세대만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디지털화, 통합화, 이용자 Life 트랜드 지원
- Information commons : 정보검색, 학술정보검색, 협업작업코너, 과제수행코너
- 멀티미디어 센터 : 멀티미디어자료실, 미디어감상실, 멀티미디어교육실, 미디어 개발, 촬영 스튜디오
- 그룹룸 : 그룹 스터디룸, 협업룸, 프리젠테이션룸
- 통합관리시스템 : Web을 통한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 예약, 조회, 이용자통합관리와 출입/키오스크/PC/멀티미디어자료 관리 시스템

○ Convergence (융합)
- 건축/인테리어/공간구성/하우징/서비스/시스템이 융합되고 어우러져 있는 도서관
- 'Ubiquitous' 개념에 기반한 공간, 하우징, 디지털 서비스의 융합
- 'Design'을 강조한 공간, 하우징(서가, 열람집기, 검색집기, 디지털 하우징 등), U서비스 구축

○ 개인화, 지능화
- U라운지의 U서비스 : 도서관종합안내, 디지털 대자보, 디지털 메모보드, 전자신문 등
- RFID 학생증을 통한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그림 16>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그림 17> Blue-ray / DVD / V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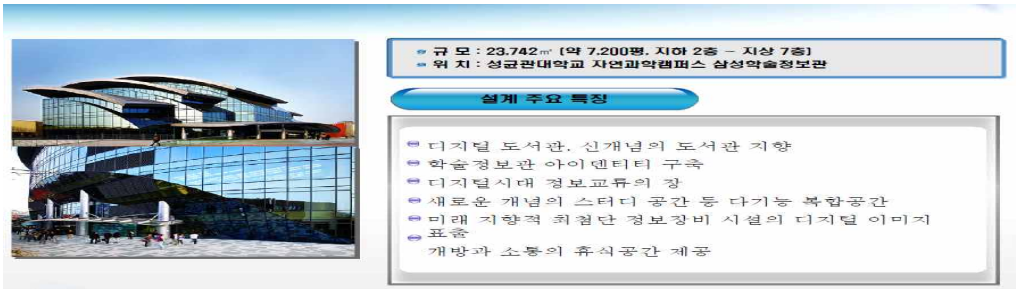
<그림 18> 미디어 제작실

다.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2009)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은 정보교류의 허리 역할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기존의 도서관을 허물고 캠퍼스 중심부에 설계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스터디 공간, 컨벤션 기능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개방과 소통의 휴식공간 등을 도서관 곳곳에 마련한 사례이다.

○ 특징적인 건축물과 다기능 복합 공간
- 책이 펼쳐지는 이미지의 건축물
- 자유롭고 오픈된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다기능 복합 공간 구현
- 파격적인 포인트 칼라 인테리어와 가구집기

○ 디지털화, 통합화, 이용자 Life 트랜드 지원
- 지하1층 오디토리움 :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위해 동시통역실 구현
- 지하1층 검색브라우징실 : 디지털 형태의 정보 자원 검색이 가능한 공간
- 지상2층 멀티미디어실, 미디어자료실, 매체편집실, 스튜디오
- 지상5층 프로커뮤니티존 : 휴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
- 통합관리시스템 : Web을 통한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 예약, 조회, 이용자통합관리와 출입/키오스크/PC/멀티미디어자료 관리 시스템



<그림 19>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그림 20> Cinema Room

<그림 21> Audi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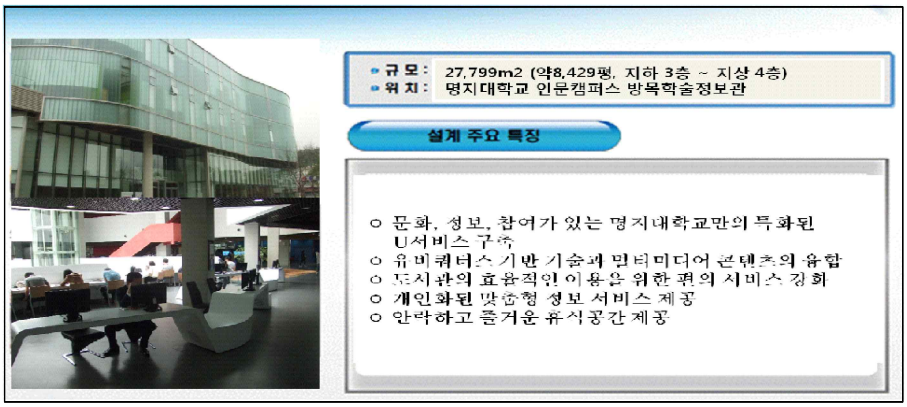
라.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2010)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은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전시공간을 보유한 종합 학술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되었으며, 다양한 매체와 소통하는 교감의 공간으로, 오픈 기반의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방목학술정보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다.

○ 모바일 캠퍼스 실현
- 모바일을 통한 학사, 행정 서비스 뿐 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활용 가능
- 도서관 좌석 현황 확인/예약/연장/반납/취소
- 도서관 자료 검색/ 대출 현황 확인
- 디지털 메모보드의 모바일 메모 지원
- 대형안내시스템에 모바일로 이미지 전송하여 모바이크 전시 기능
- 모바일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개인 콘텐츠 공유 가능한 U-Touch Table

○ 문화복합공간
- 문화를 즐기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문화복합공간 구현
- 1층 로비에서의 음악회, U서비스 체험
- LED 미디어아트가 융합된 좌석배정기, 명화 보기/듣기가 가능한 문화전시시스템

○ 디지털화, 통합화, 이용자 Life 트랜드 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멀티미디어 센터, 국제회의장, PC검색코너, UCC 스튜디오, 그룹 스터디룸 등 지원



<그림 22>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그림 23>U라인지-Campus Board

<그림 24> U-Aquarium

2. 국외 도서관 사례

<표 5>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강조한 해외 도서관 사례이다. 멀티미디어 편집 및 제작실은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표 5> 멀티미디어 시설을 강조한 해외 도서관

Tennessee University	Digital Media Center/Studio -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 미디어 센터의 Digital Resource 검색 및 대출 관리 - 교육용 Media Project Consulting - 대학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Outreach 프로그램 운영 - Group Study Room - Presentation Room - Media Lab : New Media 교육 - 디지털 장비 대여 및 관리 (대여장비 :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AV장비)
Univ. of Virginia	Robertson Media Center -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 Digital Media Lab Services :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편집/시연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디어 센터 소장 장서 : 비디오 자료,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오디오 장서
Rice University	Fondren Library DMC -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 오디오 레코딩 및 편집 부스 - 웹 제작, 택스트 및 이미지 스캐닝, 오디오 및 비디오 편집 지원 - XML Markup 기능을 갖는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 장비대여 서비스 :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NoteBook

<표 6>과 <표 7>은 건축과 디자인이 눈이 띄는 해외도서관 사례이다.

미국의 Seattle Public Library는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기능적인 유리를 사용하였고, 독일의 Berlin Free University 도서관은 두뇌 모양을 형상화하여 도서관을 건축하였다.

<표 6> 건축과 디자인을 강조한 해외 도서관(I)

Seattle Public Library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부분별 기능적인 유리사용 눈에띄는 칼라로 이용자 동선 표시
Berlin Free University - Philological Library - 독일 베를린	 두뇌의 모양을 형상화 무채색의 공간에 강한 포인트 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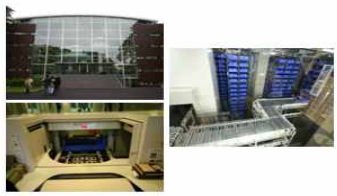
<표 7> 건축과 디자인을 강조한 해외 도서관(II)

SEIKEI UNIVERSITY Library - 일본 키치죠지	 건축의 컨셉을 적용한 버섯모양의 그룹룸
Technical University of Cottbus -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edia Center - 독일 브란덴부르크	 진입 위치에 따라 느껴지는 모습이 다른 비대칭곡선 구조 계단식 오픈공간에 칼라를 통한 포인트를 적용

일본의 Seikei University Library는 그룹 스터디룸을 버섯모양으로 콘셉트하였고, 독일의 Technical University of Cottbus는 진입 위치에 따라 느껴지는 모습이 다른 비대칭곡선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계단식 오픈공간에 칼라를 통한 포인트 적용이 눈에 띈다.

<표 8>은 자동화한 해외 도서관 사례로, 특히 책을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자동분류 및 재배치와 자동서고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배달되는 모습이 눈이 띈다.

<표 8> 자동화 해외 도서관

Seattle	SEIKEI UNIVERSITY	Bibliotheque Francois Mitterrand
Public Library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Library - 일본 키치죠지	Public Library - 프랑스 파리
		
책 선택-Self Check 통과 책 반납-컨베이어에 의한 운반-RFID 인식을 통한 자동분류-재배치	자동서고시스템 - 보존서고의 도서를 검색하면 자동시스템에 의하여 지하에 보관된 도서가 전달	도서관 지하의 자료통제실에서 8km에 달하는 레일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자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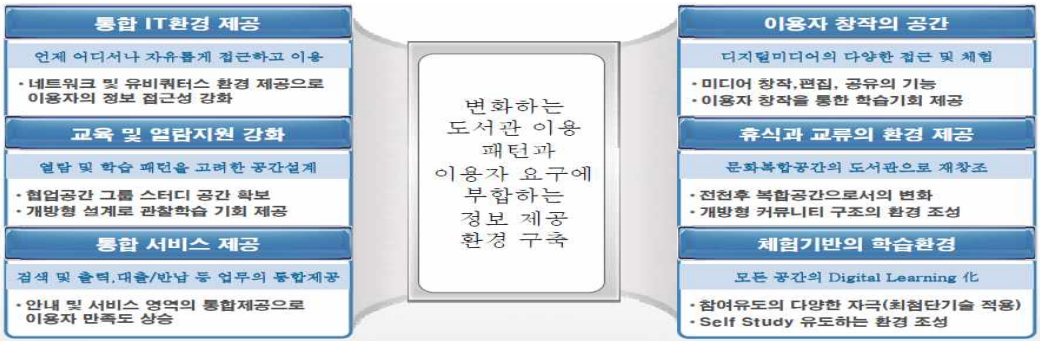
Ⅳ.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방안

1. 신축 추진방향

도서관은 도서관 패러다임 변화, 이용자 편리성 추구와 이용패턴의 변화 등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부터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선진기술을 활용한 기능을 고도화하여 쾌적하고 가변성과 확장성이 있는 공간 조성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서관은 변화하는 도서관 이용패턴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 동선설계, 편의시설 확보, 관리 용이성 확보,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교육지

원시설 확보가 제시된 공간 및 서비스 설계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공간 확보 및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이용자의 참여와 감성을 담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신축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랜드마크로, 대학도서관의 랜드마크로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림 2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방향

신축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 서울대학교의 Landmark, 대학도서관의 Landmark로 위상 정립

○ 멀티미디어 국제회의장, 전시・공연 등의 문화공간 창출을 통해 대학 내 상징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지향

○ 정보중심지(Centers for information)로서 도서관의 역할 확대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자동화 솔루션 도입

○ 소그룹 활동과 그룹 스터디 룸의 활성을 통해 토론형 학습탐구 지향

○ 서고 및 열람실의 획일적 구성에서 Information Commons, Digital Media Commons,

멀티미디어 열람실 등 다양한 공간구성

○ 체험기반의 학습 환경 구축 : Multimedia Production Lab 등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 창작 공간 제공 : 미디어 창작·편집·공유의 기능과 이용자 창작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 통합 IT환경 제공 : 유비쿼터스 환경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관 신축 추진 시 토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신축(안)

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도서관 신축은 신부지 신축과 현 도서관 철거 후 신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부지 신축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게 되면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 중앙도서관과 근거리의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공간은 현 중앙도서관의 아트리움 광장 부지가 가장 최상의 부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신축으로 그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트리움 광장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가 좁아 현 중앙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학술정보관의 의미보다는 현 중앙도서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표 9> 신부지 신축 vs 철거 후 신축

신부지 신축	
현 중앙도서관의 아트리움 광장 부지를 이용한 신축	
장점	현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가능
단점	부지가 좁아 신학술정보관의 의미보다는 현 중도의 보조적인 역할
결론	기존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or 신축과 함께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 발휘, 중앙도서관 공사시 임시 수장영역으로 활용 가능

철거 후 신축	
현 중앙도서관 건물의 철거 후 신축	
장점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 랜드마크 도서관 구축 가능(건축+공간+서비스 융합의 시너지효과 기대 가능)
단점	중앙도서관의 공백기간이 발생 높은 공사비와 긴 시공기간 필요
결론	비용과 임시 수장영역이 확보 된다면 구축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을것으로 예상

결론적으로 기존 중앙도서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함께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현 중앙도서관 공사시 임시 수장영역으로 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 중앙도서관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 랜드마크 도서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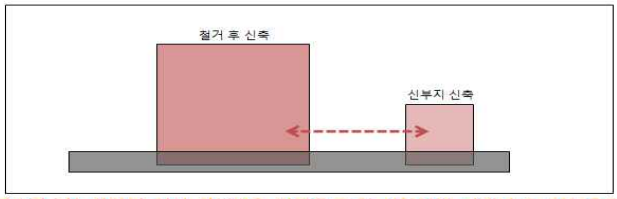
하지만 현 중앙도서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며 높은 공사비와 긴 시공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과 임시 수장영역이 확보 된다면 이 방향이 구축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본다.

중앙도서관 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비교와 함께 공간부족 해결을 위한 신부지의 신축을 1안(신부지 신축+철거 후 신축) 과 2안(신부지 신축+리모델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아래의 1안, 2안의 도서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도서관 없는 학생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도서관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선행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축이든 리모델링든 최소 3~5년이라는 건축 및 시공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제 1안 : 신부지 신축 + 철거 후 신축

현 중앙도서관 건물의 철거 후 신축과 신부지의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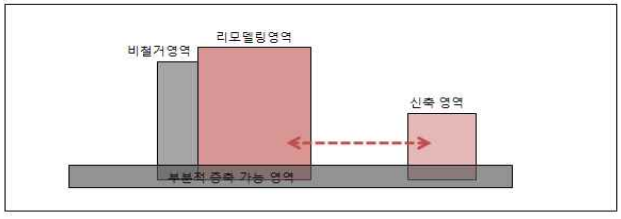


비용 확보가 가능하다면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두적인 신개념 도서관 구축 가능

장점	단점
•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두적인 도서관 구축 가능 • 건축, 공간 디자인의 제약이 없어 설계단계에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정립 가능 • 초기단계 컨설팅과 설계단계에서 건축, 공간, IT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높은 공사비와 긴 시공기간 필요

○ 제 2안 : 신부지 신축 + 리모델링

기존 학술정보관의 증축과 함께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부지의 신축 건물 구축



공간 효율성 확보와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나, 건물 외부의 노후 문제가 존재

장점	단점
• 기존 도서관의 상징적 의미 보존 가능 • 부족한 공간의 확충 가능 • 비철거영역을 임시수장영역으로 전환 가능	• 공간의 기능적인 보완은 해결되지만,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신개념의 최신 학술정보관 이미지 감소 • 리모델링의 복잡하고 난해한 공사로 시공 효율 저하

나.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의 경우 부분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분 리모델링은 증축이나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분의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적은 비용과 짧은 공사 기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공간의 비효율성, 공간 부족 현상 문제 해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을 포함하여, 일부의 비철거영역을 두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외벽의 상징적 의미를 보존하면서 기능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부족한 공간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공간 효율성 증가는 가능하지만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부분 리모델링 vs 전체 리모델링

부분 리모델링	
증축이나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분의 공간을 리모델링	
장점	적은 비용과 짧은 공사 기간
단점	현재 공간의 비효율성, 부족 현상 문제 해결에 제한적
결론	공간 효율성 증가/확보에 대한 해결이 제한적일 수 있음

전체 리모델링	
증축을 포함하여, 일부의 비철거영역을 두고 전체를 리모델링	
장점	외부 상징적 의미를 보존하면서 기능상 단점 보완
단점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부족한 공간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함
결론	공간 효율성 증가 가능,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 존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공간 리모델링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을 포함한다. 도서관 증축은 일반열람실 증축과 옥상 공원화와 연계한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으로 그 방향을 잡고자 한다. 일반열람실 증축과 옥상 공원화는 이용자의 학습 지원을 극대화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건축면적 6,756㎡, 6개 층 연면적 30,505㎡의 건물로 6층 기준 한 층의 면적이 6,756㎡에 달하며 옥상의 경우 공조기계실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4,500㎡에 이른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62동)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대한구조안전진단보고서, 1999. 9.)'에 따르면 종합결론 부분에서 "고정식서가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증축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바 있어 증축은 곤란하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 건물로써 서고사용을 전제로 현 건물구조와 같은 용도의 증축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하중의 무리가 덜한 일반열람실 증축과 옥상 공원화와 연계한 휴게공간 조성은 건물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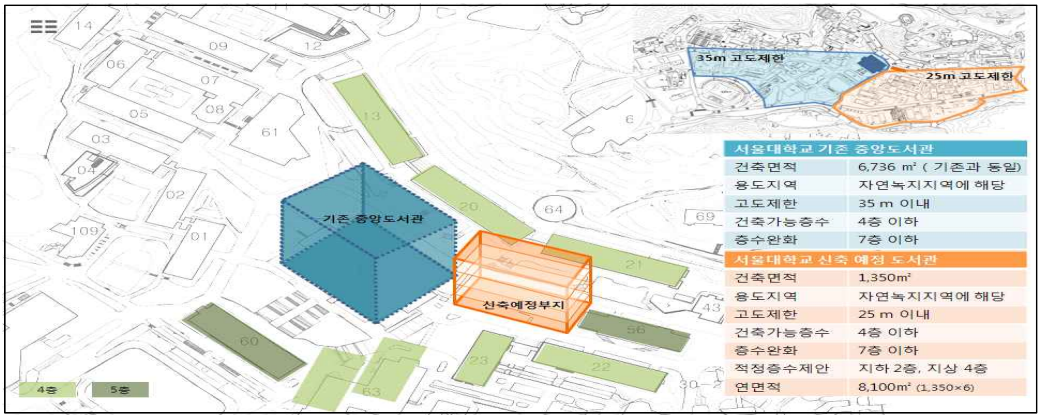
일반열람실 증축의 경우 옥상 가용공간의 절반인 약 2,500㎡ 면적의 2개의 열람실을 조성하

게 되면 열람석 1,000석 및 그룹 토의실 등 쾌적한 열람 환경을 구축하게 되며, 현재 5, 6 일반열람실은 자료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옥상 공원화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시급히 필요한 옥상 방수 공사(8억원 예상)와 연계함으로써 공원형 야외 열람석, 카페테리아 등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카페테리아 운영을 통해 도서관 수익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table>
<tr><th colspan="2">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 증축 및 옥상 공원화(안)</th></tr>
<tr><td colspan="2">• 사용 가능 면적 : 약 4,500㎡ (공조기계실 부분 제외)
• 옥상 방수 공사(8억원 예상)와 연계해서 일반열람실 증축 및 옥상 공원화 추진</td></tr>
<tr><th>7층 일반열람실 증축</th><th>옥상 공원화</th></tr>
<tr><td>• 사용 가능 면적의 약 2,500㎡
• 2개 열람실 조성
• 열람석 1,000석 및 그룹 스터디 룸 설치
• 5, 6 일반열람실을 자료실 공간으로 전용
• 쾌적한 열람실 환경 개선 효과</td><td>• 일반열람실 증축 부분(2,500㎡)을 제외한 공간
• 소공원형 야외 열람석 조성
• 카페테리아 조성
•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 카페테리아 운영을 통한 도서관 수익사업 가능</td></tr>
</table>

3. 건축 설계 방향

현 중앙도서관은 그 위치가 캠퍼스의 중앙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가 최적의 랜드마크 위치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신부지 신축시 해당 부지에서의 최대 건축 가능 층수는 현 중앙도서관과의 층고 (4.5m)를 고려할 때 5층까지 가능하며, 경사지 배면의 녹지에 대한 경관 보전 및 중앙도서관과의 위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4층 규모의 건물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4. 도서관 공간 구성 방향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도서관은 복합기능공간(Digital Space Convergence) 구성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도서관이 복합기능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체를 정숙공간으로 획일화하기 보다는 정숙공간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공간을 차별화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체험기반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합 IT환경을 구축하며, 협업 공간인 그룹 스터디룸 등의 확보로 이용자들의 교육 및 열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협업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참여유도의 다양한 자극(최첨단 기술 적용)과 Self Study를 유도하는 학습 환경이 또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Web 2.0시대에 맞는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창작하고 편집하며 공유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구성해야 하며, 전천후 복합공간으로서 휴식과 교류의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표 11> 도서관 공간 구성(안)

공간	구성 내용
도입시설	-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공간에 적용할 새로운 서비스 시설 적극적으로 수용 - 개인과 그룹 이용의 적극적 지원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의 융통적 대응 - 학내 커뮤니티 시설의 핵심적 역할 - 인쇄, 디지털 자료의 통합서비스

서비스동선	- 각 스페이스, 각 층별 서비스의 집약적 흐름이 중요시됨 - 관리자 전용의 수직(층 연결) 통로가 필요함
물리적 공간 특성	- 정보 및 기능 변화에의 융통적 대응이 요구됨 - 이용자의 정보에의 접근이 일방적, 수동적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짐
자료공간	- 서가 zone과 PC zone이 통합된 공간 - 저밀도의 쾌적한 이용환경
열람공간	- 개인공간(프라이버시)과 그룹이용(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충족시키는 열람 공간의 분배 - 이용자의 요구와 행위에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서관가구(Identity)
문화,휴식의 공간	- 레스토랑, 북카페, 간이 쉼터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그린(green) 요소를 도입하여 오픈스페이스 내 각 영역을 연결시키는 매개 공간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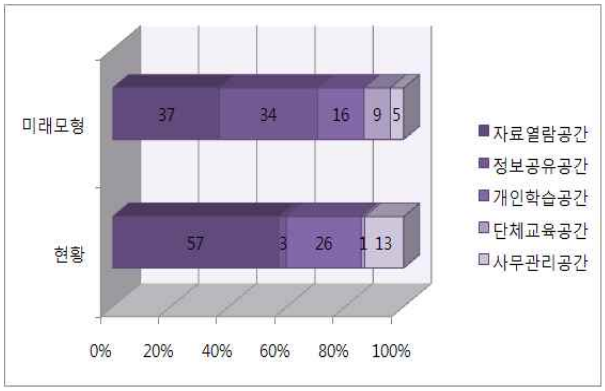
이에 따른 주요 공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멀티미디어룸 : 교육방법에 있어 VOD, CD, DVD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필요성, 특히 도서관내 멀티미디어 강의실 및 교육 매체 제작실 확충

○ 그룹 스터디룸 : 열람실의 개인학습 또는 교육자의 일방향 교육보다는 그룹 스터디룸을 통한 토론형 학습문화의 중요성

○ 국제회의장 : 대학 내 상징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 필요

○ 문화복합편의시설 : 자유롭고 활기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리 위주의 도서관 운영 보다는 식음료, 소파를 포함한 다양한 휴게 공간 제공



구분	현황	미래모형
자료열람공간	57 %	**37 %**
정보공유공간	3 %	**34 %**
개인학습공간	26 %	**16 %**
단체교육공간	1 %	**9 %**
사무관리공간	13 %	**5 %**

<그림 25> 중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의 공간 구성과 면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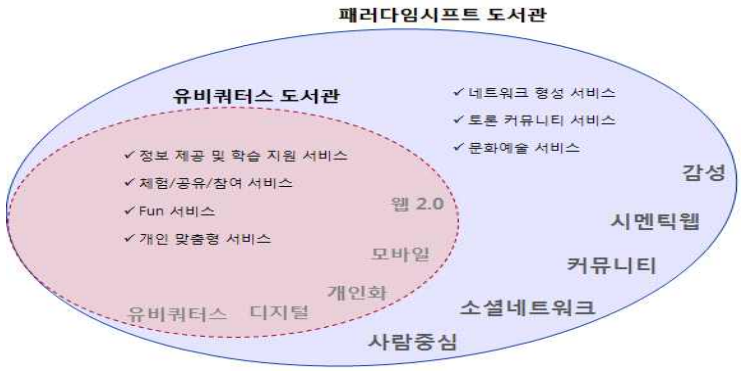
<그림 26>는 현재의 도서관 공간 구성과 비율에 대해 미래에 구성해야 할 공간 면적비를 나타낸 것이다. 현 중앙도서관은 장서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열람공간의 면적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그 수장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동서고 및 모빌랙 등 현대적 수장방식과 자동화장비 도입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변화하는 생활・학습 패턴에 맞는 정보공유공간과 단체교육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12> 도서관 공간 설계방향

구분	현재	미래모형	설계방향 및 기대효과
자료열람공간	자료열람실 멀티미디어 자료실 보존서고	자료열람실	서적 형태에 특화된 서가를 통한 효율적인 자료보관 기능
		멀티미디어실	늘어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보존서고	자동서고 및 모빌랙 등 현대적 수장방식과 자동화 장비 도입
정보공유공간	정보검색실	정보검색실	사용자의 변화하는 생활/학습패턴에 맞는 PC학습 공간 정보검색/과제수행 등 다양한 활용에 맞는 코너 구획
		노트북열람실	순수열람실과의 분리를 통해 소음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해소 멀티포트 시건장치를 내장한 테이블로 노트북 사용에 최적화
		멀티미디어 편집/제작실	멀티미디어 생성/편집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높임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
		U서비스 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체험/공유하고 소통함 전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형성
단체교육공간	대회의실 세미나실 공동학습실	대회의실	첨단 전자 교탁 시스템, 영상/음향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세미나실	그룹모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세분화된 기능 지원
		공동학습실 (그룹스터디룸)	과제수행, 취업준비 등을 위한 그룹모임 증가에 대응하는 스터디룸을 충분히 지원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PC 등 주요 시설 지원
		국제회의장	전문화된 교육과 동시에 학교의 주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의 랜드마크화에 기여
		소극장	멀티미디어 자료의 감상/교육을 지원하는 공간
개인학습공간	일반열람실	순수열람실	효율적인 테이블 배치로 열람좌석을 최대로 확보하고 개인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변화된 이용자의 체형을 고려한 열람가구 지원
사무관리공간	사무실, 전산실	사무실	행정 및 각종 업무 수행과 신규장서 정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

5. 도서관 U서비스 설계 방향

도서관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 정보, 참여가 있는 UX(User eXperience)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U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융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림 26> 도서관 U서비스 설계 방향

도서관에서는 U서비스 설계를 통해 다음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3> U서비스를 통한 기대효과

분류	내용	기대효과
체험/공유/참여 서비스	디지털대자보, 디지털메모보드 웹・모바일을 통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서비스	트랜드에 뒤지지 않고 앞서나가는 서울대인 타인과 공유하고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높임
정보 제공 및 학습지원 서비스	안내 및 공지사항 확인 전자신문, 디지털도서의 열람 취업정보, 유학정보 확인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
개인 맞춤형 서비스	학생증 인증을 통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알림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효율성을 높임
Fun 서비스	동영상, 이미지 감상, 게임과 토론, 개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만남의 장소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참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지원
토론 커뮤니티 서비스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게시할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 마련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머무는 공간 실현으로 성숙한 토론문화 형성
문화예술 서비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정립	문화복합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 문화를 즐기고 감성이 통하는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동문, 선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동문/선배와의 네트워크

Ⅴ. 결론

도서관은 기존의 기본적인 장서 소장과 관리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인 열람 중심의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문화, 휴식, 학습, 검색,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환경 및 이용자의 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변화와 그 변화와 더불어 중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신축한 도서관 사례 분석을 통해 신축도서관 추진 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신축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학내 연구 및 학습의 중심지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 학문 간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 내 핵심시설 및 대학의 상징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지향해야 한다. 책 보관소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유·무형의 학술정보가 제공되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정보의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과 연구자의 편의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또한, 책으로 가득한 정숙공간에서 정보의 생산 및 소비의 활기찬 중심지로 전환하여 정보중심지(Centers for information)로서의 도서관을 추구해야 한다. 학습개념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적 교육(Interactive Learning)을 수용하고, 책(Text) 위주에서 탈피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감성체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해야 한다. 소그룹 활동과 그룹 스터디룸의 활성을 통해 토론형 학습탐구의 기본적 모델을 지향하고, 서고 및 열람실의 획일적 구성에서 정보열람실, 멀티미디어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학습자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서울대학의 랜드마크(Landmark)로, 대학도서관의 랜드마크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인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멀티미디어 국제회의장, 전시, 공연 등의 문화 공간 창출을 통해 대학 내 상징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대학 문화 및 상징성을 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도서관의 비전과 미래의 이용자 패턴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건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TFT를 구성하여 타 도서관 사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콘센트의 핵심을 파악하여 우리 학교만의 도서관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석, 2002. 대학이미지에 부합하는 백주년 기념관 계획안: 고려대학교 디지털도서관 및 박물관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고수영, 2010.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 및 과제”, 국회도서관보, 2010년 10월호

국립중앙도서관, 2007.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

김용, 2009.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기능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97-114

남영준, 2010. “새로운 정보서비스 자원: 공간, 기기 및 사서”, 국회도서관보, 2010년 7월호

노영만, 2006. “작업환경 허용기준 도입을 위한 유해물질 선정 및 허용기준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삼성SDS,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설계 방안, 2010.11.1.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2005.2.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2000-2010

서울대학교 도서관소식, 1996-1999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62동)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주)대한구조안전진단, 1999

이상호, 2010. “도서관,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전망”, 국회도서관보, 2010년 10월호

이용민, 2008. “미래형 유비쿼터스도서관: 연세대학교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도서관계, 164(7):6-13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계획, 2006.12.

고려대학교 CDL 홈페이지. http://cdl.korea.ac.kr

명지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mj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rary.sungkyul.ac.kr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skku.edu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library.yonsei.ac.kr

Berlin Free University Library homepage. http://www.ub.fu-berlin.de/en/

Rice University Library homepage. http://library.rice.edu/

Seattle Public Library homepage. http://www.spl.org/

Seikei University Library homepage. http://www.seikei.ac.jp/university/library/

Technical University of Cottbus Library homepage. http://www.mimoa.eu/

Tennessee University Library homepage. http://www.lib.utk.edu/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homepage. http://www.lib.virginia.edu/

WPRIM에서 사서의 역할
The Role of Librarians in the WPRIM

권 광 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 목 차 >

I. 서론

II.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사업
1. WPRIM의 의미
2. WHO의 6개 지역 중 WPRIM 외 다른 지역별 Index Medicus
3. WPRIM의 배경
4. WPRIM의 추진 경과
5. WPRIM의 현황

III. WPRIM에서 사서 역할
1. 정보환경의 변화
2. WPRIM에서의 사서 역할

IV. 결론

I. 서론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도서관 자료유형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E-Journal이나 Web DB 등 전자매체 사용의 활성화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연구지원 서비스, 주제전문 사서, 정보이용 교육의 전문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주고 또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연구지원 서비스는 이용 및 연구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향상시켜 대학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수준뿐 만 아니라 SCI, PubMed 등 국외 유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사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분야에서 사서 역할 전환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학술지의 색인작업 등은 학술자원을 망라하여 수집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색인과정을 거친 데이터베이스 및 자원은 결국 도서관에서 사서가 이용자에게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므로 사서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의학과 그 관련분야의 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련의 사업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학·건강 정보 지식체계가 한국의학학술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를 기반으로 구축 되어졌고, 이를 위해 서태평양지역 주요국가들은 “아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를 결성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인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기하기로 했으며, 2000년 이후에 WHO를 중심으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보건의학 학술지 색인정보 통합사업인 WHO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의학·건강 연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면서 WPRIM의 구축 및 운영방안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었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었다. 여러 계층의 경제개발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에서 한국이 의학·건강 학술 부문의 주축이 되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인류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가 공동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궁극적으로는 의학 및 건강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을 도모하는 정보지식 관리자로서 사서의 역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의 학술지 이외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적 학술지를 수집하고, 신뢰성이 높은 서지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도 사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보건위학 학술지 색인정보 통합사업인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서 WPRIM에서 사서의 역할을 점검해 봄으로써 앞으로 사서의 역할 전환 및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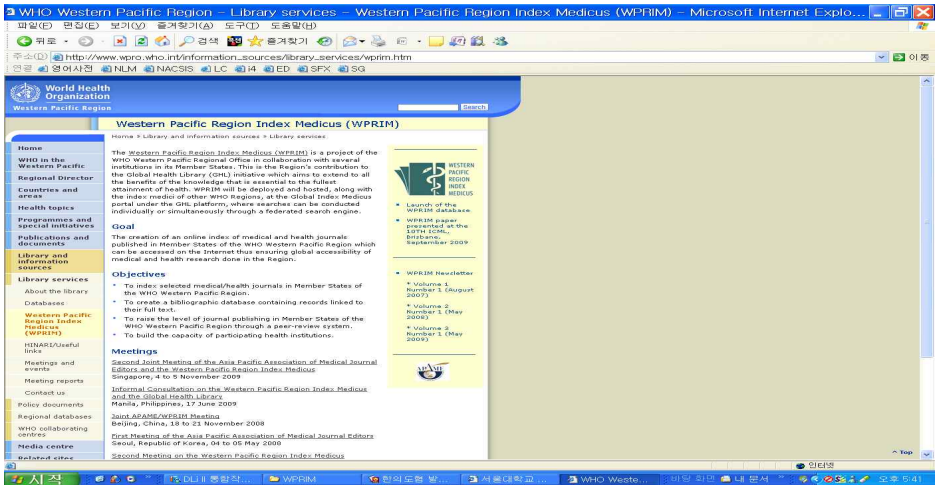
II.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사업

1. WPRIM의 의미

WPRIM은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의 두문자이며, 서태평양지역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들의 통합 온라인 색인 프로젝트이다.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WPRIM)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의학 학술지를 성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의학, 보건 및 건강 관련 학술지들을 인덱스 하는 것, 둘째는 Full-text에 링크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록들을 생산해 내는 것, 셋째는 상호심사(Peer-review)시스템을 통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출판된 학술지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넷째는 참여하고 있는 건강 관련 기관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WPRIM는 2006년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의학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KoreaMed의 방식으로 채택하여 WPRIM의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 및 인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2. WHO의 6개 지역 중 WPRIM 외 다른 지역별 Index Medicus

Global Health Library (GHL)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개념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GHL의 3대 목표는 첫째 일반인,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 등 각 정보 소비자 계층에게 차별화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의료기관, 사회, 국가, 회사 등 다양한 정보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정보 환경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출판 방식으로 보급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GHL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Global Index Medicus(GIM) 사업이다. 세계 6개 지역에 따른 특성 있는 Index Medicus를 만드는 것이다. Medline이 선진국 중심의 문헌 정보검색시스템이라면 GIM은 개발도상국의 문헌을 색인하여 정보의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IM은 WHO의 6개 지역별로 구축하여 통합 검색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학술지뿐 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학술지 등의 간행물 색인을 통하여 국가별 특성이 수용된 자료가 검색 되도록 하고 있다. WHO의 6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이미 지역별 Index Meicu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 아프리카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와 함께 주요 저자가 아프리카 지역인 Medline등재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http://indexmedicus.sfro.who.int/)

2) 미주 지역에서는 Medline 자료에 지역 학술지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http://www.bireme.br/bvs/I/ihome.htm)

3) 동부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지역 학술편집인협의회를 활성화하면서 학술지 색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emro.who.int/his/vhsl)

4)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나라의 색인 사업을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해 정보를 얻지 못해서 오는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http://library.searo.who.int)

3. WPRIM의 배경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김나원, 박지홍(2009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PubMed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둘째, 연구와 관련된 정보 요구에 있어서는 PubMed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논문을 선호하였으며 셋째, 정보 검색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근거와 권위이었다. 즉 검증된 학술 DB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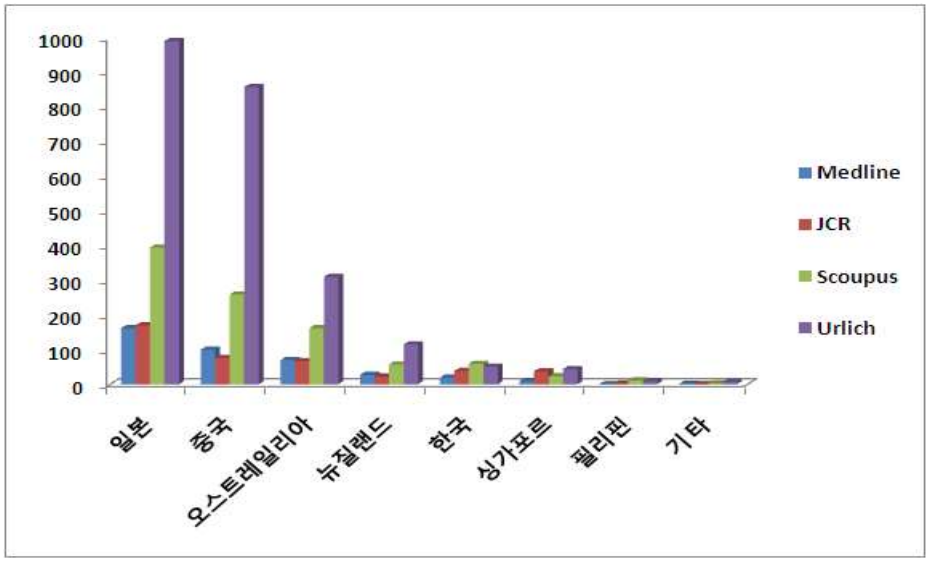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로서 의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학술정보원 연구 및 이용 행태를 보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인덱스인 PubMed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가 믿을 만하고 심사를 거쳐 검증된 학술 정보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National Library of Mediccine) 산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Database로 Biomedical 관련 즉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등 최신 의학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의학 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논문 작성 및 서지 관리 프로그램인 EndNote가 의학도서관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지원서비스임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PubMed는 생명과 직결된 의학・건강에 대한 정보가 선진국 유명 잡지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PubMed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등 그 지역별로 맞는 의학・건강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역이나 습성, 기후, 풍토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처방되어지는 의료 방법까지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미 공개된 의학・건강에 대한 학술정보를 널리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그에 맞는 의학・건강에 관련된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면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용 목적에 맞는 특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무리 좋은 건강・보건의학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된 질병에 맞는 건강・보건의학 정보가 생산되고 노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건강・보건의학 학술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발표된 학술지가 색인이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총 37개국의 건강・보건의학 학술연구논문을 통합 색인하여 미국 중심의 PubMed에서 찾을 수 없는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학술연구 논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자국 발행 주요 학술지가 이미 Medline에 등재되어 있어 WPRIM에 추가할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정보가 일부 등재되어 있어도 아직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 몽골리아 등은 그 나라 정보를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강·의학 학술정보를 등재할 수 있는 WPRIM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함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세계 유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현황이다. 이 현황 또한 의학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결정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WHO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보건의학 학술지 등재 현황



4. WPRIM의 추진 경과

GHL National Focal Point Librarians의 Regional Workshop, Kuala Lumpur, Malayaia (2005, 5월 23-25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학·건강 학술지들의 Regional Union List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Regional Medical Index를 위한 Scope 혹은 Coverage, 인덱스 학술지들의 선정을 협의하였으며, 2005년 10월에서 2006년 4월 "Assessment of the Capabilities of Member Countries to Join WPRIM"에서는 필리핀의 국가 색인 Medicus를 구축 하였다. 또한 필리핀 전문사서들을 Regional Index Medicus에 동참하도록 하여 회원국들의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 기술 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로 협의하였다.

2006년 1월-2월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Visit of a Volunteer Professional from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한국의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위원, 필리핀의 의학저널 편집자들, 정보전문가들 및 의학사서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Regional Index Medicus가 용이하게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과 더불어 KoreaMed의 Platform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WPRIM의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WPRIM의 발전을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회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WPRIM, Manila, Philippines, (2006년 3월 30-31일)에서는 WPRIM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참가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WPRIM에 포함될 저널들의 선정을 위한 표준 및 기준들의 초안 작성, 2006-2007년에 WPRIM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Western Pacific Region Pee Review Advisory Group을 설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었는데 저널의 선정 표준 및 기준들을 공식화 하였으며, 2006년 12월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Global Health Library With China Collaboration, Beijing, Peoples's Republic of China에서는 GHL의 활동과 서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인 WPRIM에 포함되는 저널 선정을 위한 기준, 지위와 참여하는 국가들의 WPRIM에 대한 공헌의 정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서태평양지역의 의학·건강 학술지 통합 색인 시스템인 WPRIM에 대하여 서태평양지역의 주요국인 중국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그 설립과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2007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Second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Tokyo, Japan(2007년 5월 17-18일)을 비롯하여, Second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eoul, Republic of Korea(2007년 11월 21-23일), First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 Seoul, Republic of Korea (2008년 5월 4-5일),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WPRIM),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년 11월 18-21일),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WPRIM)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GHL), Manila, Philippines (2009년 6월 17일), Second Joint Meeting of APAME and WPRIM, Singapore (2009년 11월 4-5일) 등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5월에 마침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가동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WPRIM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서태평양 지역의 WPRIM 효과를 확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 WPRIM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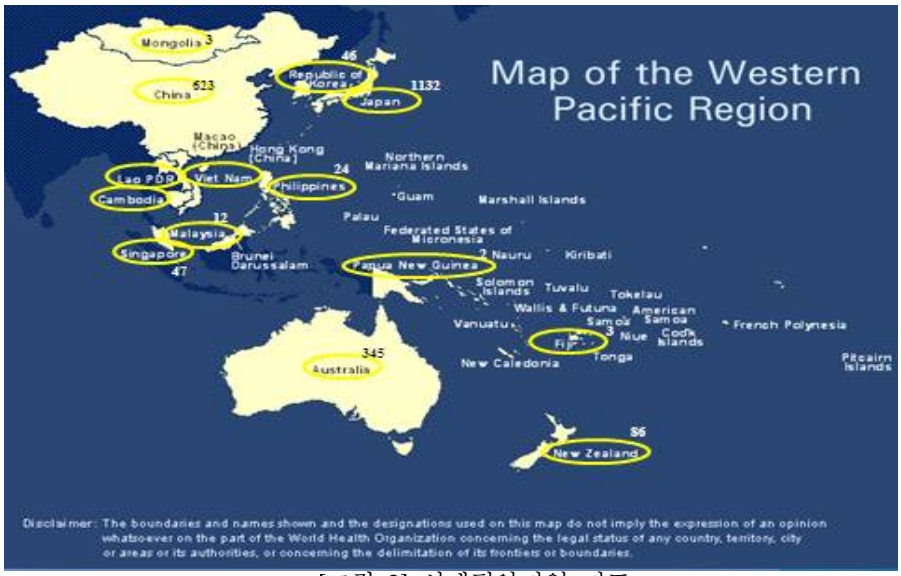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들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 WPRIM에 사용 되는 플랫폼은 KoreaMed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채택, 운영하기로 하고 진행되고 있다. 미국 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를 표본으로 만든 KoreaMed는 1997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국내의 우수 의학·건강 학술지 115종 11만7000 여건의 학술지들을 검색할 수 있다. KoreaMed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orea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KAMJE)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의학회 회원학회와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학술지들을 비롯하여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영양학, 및 의학물리학 관련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다.

KoreaMed는 국내 모든 보건의학 학술지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가장 넓은 범위의 보건의학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하루 500여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영문 컨텐츠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 등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KoreaMed를 통해 국내 학술지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KoreaMed 존재가 높이 평가되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KoreaMed를 기반으로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 WPRIM의 구축 및 운영방안이 제기되어 WHO 서태평양 지역이 주관하고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가 주체하는 지역국가 회의인 Second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eoul, Republic of Korea(2007년 11월 21-23일)에서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의학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KoreaMed 방식에 따라 하기로 추진하여 2010년 5월에 런칭하여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국가

서태평양지역 37개국 중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파푸아뉴 기니아, 필리핀, 코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현재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서태평양지역 지도

2) WPRIM의 수록되어 있는 의학·건강 저널 종수 및 WPRIM의 Platform operation

구 분	JOURNAL	Articles Upload	PubMed Journal	Crawling	Manual Upload
China	201	37,683	66	CNKI(135)	
Korea	158	142,625	35	KoreaMed(118)	
Japan	4	844	1	J-stage(3)	
Malaysia	12	4,504	4		8
Singapore	4	10,577	3		1
Mongolia	7	0	0		7
Philippines	16	1,537	6		10
Papua New Guinea	1	1,332	1		
Viet Nam	12	0	0		12
합 계	415	199,102	116	256	38

III. WPRIM에서 사서 역할

1. 정보환경의 변화

도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쇄기록 매체에서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된 출판의 변화와 획기적인 컴퓨터 기술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매체 및 정보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정보의 소장과 관리에 중점을 두던 전통적인 도서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인쇄매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넓게 되었으며, 컴퓨터 기술과 관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 발전시켰고, 새로운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축되었다.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 정보 환경의 변화뿐 만 아니라 정보관리자인 사서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관리 위주였던 도서관 업무는 이용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사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에서도 그 역할 및 분담 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도 사서 역할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WPRIM에서 사서의 역할

WHO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 분야의 통합 인덱스인 WPRIM이 런칭 되기까지는 생성 배경 및 추진경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의학 학술지편집인들, 건강정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 사서들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의학 학술지편집인, 건강정보전문가, IT전문가, 사서들의 협조로 오늘날 WPRIM/Global Health Library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필리핀은 학술 논문 색인 Index Medicus를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PCHRD(Philippine Council for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도 담당하며, 중국과 일본은 초록정보와 원문정보도 함께 도서관을 통해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의학 학술지 색인은 1985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시작하였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결성 이후는 Peer review 결과 선정된 학술지에 한하여 초록 색인 KoreaMed를 운영하고 있으며 KoreaMed 등재 의학 학술지들은 WPRIM이라는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지향하면서 사서의 명칭 또한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가 소장보다는 접근(Access)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서는 이용자의 현재적 요구는 물론 잠재적 이용 가능성까지도 조사 분석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수집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 분석 및 가공하여 정보의 효용가치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서로써 그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Lancaster, 1997년). WPRIM에서의 사서의 역할 또한 정보교환 및 검색에 대한 매개자로서 역할 수행에 있다. WPRIM에서의 사서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첫째, 활용가치가 높은 장서의 수집관리를 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Global Health Library에 관련된 Technical Reports, Papers 등을 그리고 WPRIM Country Nat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에 추천할 수 있는 관련 지역건강 및 생물의학 학술지들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사서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PRIM에서 색인되고 있는 소장자료에 대한 규칙적인 점검을 하여 각국에서 출판되는 학술지들의 Holding에 최선을 다하고 Technical Reports, Papers, 또는 지역 학술지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서지정보를 유지하고, 목록하는 작업 또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에 대한 공유와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WPRIM/Global Health Library에 포함하는 사서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료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출판전이라도 확정된 논문의 초록을 포함한 서지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등 정확성과 신속성이 핵심 색인을 하기위해서 사용되는 표준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의하여 경험과 기술, 지시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셋째, 도서관에서의 개최하는 컨퍼런스나 회의, 세미나,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의 프로그램, 전시 혹은 오리엔테이션에서 WPRIM에 대한 활약을 홍보하여 각 의학도서관 간 정보 공유를 넘어 국가간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한 WPRIM의 Hub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WPRIM/GHL의 목적 및 역할을 알릴 수 있는 정보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세미나 혹은 워크샵, 프로그램, 전시 등도 계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WPRIM/GH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과 배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어야 한다. Articles의 서지정보들을 스캔하고, 서지정보 기록에 스캔된 자료들을 링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IT요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rticles의 서지정보데이터를 넣어 PubMed/MedLine에 색인된 지역학술지들의 인용을 WPRIM에 복사를 하고, WPRIM 데이터베이스에 Articles의 서지정보를 Upload하여 서지정보 테이터들에 대한 점검하여 국내외적인 문헌들의 배포를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PRIM/GHL 중심 사서들에게 Technical Reports, Papers 혹은 지역 학술지들의 홍보물 배포에 협조하는 것 또한 WPRIM에서 사서의 역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 본 WPRIM의 수록되어 있는 의학·건강 저널 종수 및 WPRIM의 Platform operation 현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재 Journal 종수가 416종, Articles upload 건수가 199,086, PubMed 등재 Journal 종수가 115종이나 되며 Crawling 건수도 중국의 CNKI 135건, 한국의 KoreaMed 118건, 일본의 J-stage 3건으로 총 256건에 이르러 서태평양 지역 의학·건강의 높은 학문적 성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선진국 유명 학술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PubMed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습성, 기후, 풍토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처방되는 약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WPRIM의 발전을 위해 활약하신 서정욱 관장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중심이 아닌 지역별 의학·건강 정보와 이를 묶은 글로벌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어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대한의학회(Korea Academy of Medical Science)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KoreaMed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WPRIM은 앞으로도 더 한층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WPRIM에서의 사서의 역할 또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하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WPRIM에서 사서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사서는 학술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게 하고, 학술정보지식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정보

요구를 확인하고, 의학도서관인 경우에는 의학 및 생명과학 등 특정분야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정보지식 관리자로서 전문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술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사서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학술지 통합 시스템인 WPRIM이 더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정보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 상호학술 교류를 통해 WPRIM의 Hub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서의 역할 전환 및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7권, 2001, PP.1-21.

김성혁, “정보화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 지식공학과 지식공학자의 역할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제10권 제2호, 1993, PP.69-85.

김휘출, “지식경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1999, PP. 36-66, 199-231.

박인웅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0, PP.23-39.

서은경,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240호, 1995, PP.5-16.

엄영애, “사서직의 전문적 요건과 수행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4, PP.159-175.

이경민,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PP.157-174.

이은철, 김갑선,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 2002, PP.25-47.

이지호, 박옥화, “전문도서관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t서의 역할 및 업무영역 다변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 2008, PP.189-205.

정현욱, 강혜영, “도서관 사서의 역할 지향에 관한 Q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7, PP.13-30.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39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년

Institute of Medical Information & Library,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Pelinh Union Medical College, "Guide for Information Retrieval and Data Management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HO Western Pacific Region , "WPRIM News", vol.2, issue no.1, 2008

[인터넷 웹사이트]
http://imicams,ac.cn
http://www.koreamed.org
http://www.wpro.who.int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고 보존환경을 중심으로 -

권 재 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목 차 >

1. 서언

2. 보존관리 현황
2.1 보존환경
2.1.1 온·습도 관리
2.1.2 공기질 관리
2.1.3 보존용구
2.1.4 충해 및 서해관리
2.1.4.1 유해생물 모니터링
2.1.4.2 훈증소독
2.1.4.3 서해관리
2.1.5 조명관리
2.2 재난대비
2.2.1 건축설계
2.2.2 소화설비시스템
2.2.3 방범관리

3. 보존환경 개선 방안
3.1 공간부족 해소
3.2 항시소독시스템 도입
3.3 수리복원 및 탈산처리
3.4 중성지 보존처리
3.5 모사본과 복제본 제작
3.6 재난대비시스템 관리
3.7 전문성 강화

4. 결언

1. 서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문헌의 보존환경을 고려한 특수공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서고 내부의 보존환경 유지를 위하여 각종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규장각의 역사와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문헌 보존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규장각의 역사는 1776년 정조(正祖)가 즉위한 직후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창설된 규장각(奎章閣)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수집·관리하여 오던 고문헌을 이어받아, 과학적인 보존환경을 구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학술정보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학 연구, 국제교류, 출판, 교육, 학술교류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소장 자료는 역대 왕의 저술, 친필, 주요 관서 일기등과 함께 지방사고와 각사(各司)에서 관리하던 도서, 교서관의 책판 등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국유도서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최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수집한 자료는 왕실자료와 함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 학문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역사, 문학, 철학, 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도서들도 10만여 책을 보존하고 있는데, 주로 정조대 이후 고종대까지 학술연구를 위하여 구입한 도서들이다. 중국본도서는 현재 중국에도 없는 유일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중국사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는 도서류, 문서류, 책판 등 총 25만 여점이다. 소장 자료 중에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儀軌」 등 3종 7,459점의 세계기록유산과 국보지정문화재 7종 7,125점, 보물지정문화재 26종 166점이 포함되어 있다. 소장 고문헌은 대부분의 자료가 유일본이거나 몇 부밖에 남지 않은 희귀본들이다.

고문헌의 보존관리 업무는 한국학 연구와 함께 규장각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규장각자료의 보존관리 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더 나은 보존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보존관리 현황

2.1 보존환경

2.1.1 온·습도 관리

고문헌을 안전하게 오래도록 보존하려면 수장고 보존환경을 고문헌 보존에 적합하게 유지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고 내 적정 온·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습도의 편차가 50~60%로, 적정습도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유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소장 자료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도편차 내에서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이는 특성상 항상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반대로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여 종이의 함수율을 6~8%로 유지하려고 한다. 수분의 흡수와 방출의 경계는 60%전후로 대개 55%정도면 종이 본래의 적정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다.

<표 1> 습도에 따른 종이의 함수율 비교

습도	종이의 함수율
40%	5.8~6.6%
55%	6.8~7.4%
65%	7.5~8.3%
75%	8.1~9.0%
85%	9.6~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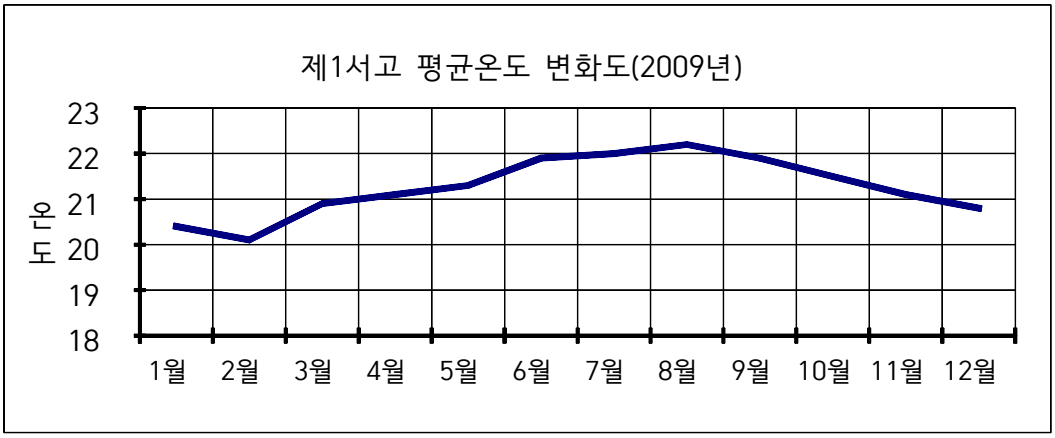
규장각은 적정 온·습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습도기로 병행 기록하여 정확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온·습도를 체크한 기록지는 영구 보존하여 후에 시기별 또는 평균 온·습도 산출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온·습도 관리에 있어 상대습도가 65% 이상으로 지속되면 충·균해가 발생되어 자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항시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고 온·습도 관리 기준
- 온도 : 18~22℃ (표준온도 20℃)
- 상대습도 : 50~60% (표준습도 55%)

<표 2>와 <표 3>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1서고의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로,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1년간의 온·습도 편차는 2.1℃, 4.6%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2~5서고의 온·습도 측정결과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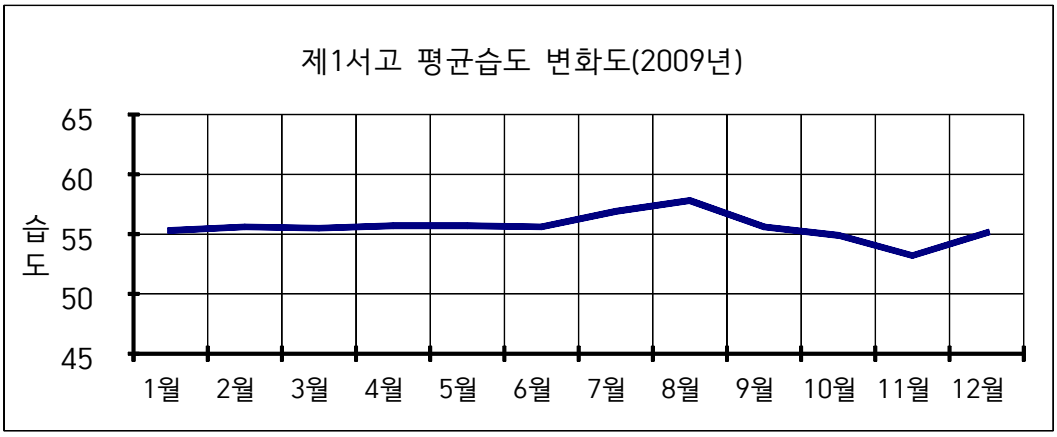
<표 2> 제1서고 온도 측정표(2009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온도	20.4	20.1	20.9	21.1	21.3	21.9	22.0	22.2	21.9	21.5	21.1	20.8



<표 3> 제1서고 습도 측정표(2009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습도	55.3	55.6	55.5	55.7	55.7	55.6	56.9	57.8	55.6	54.9	53.2	55.1



2.1.2 공기질 관리

고문헌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환경요소가 바로 서고 내 공기를 항시 청결하게 유

지하는 것이다. 서고의 공기가 탁해지면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어 귀중한 고문헌의 손상은 물론이고 근무자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에서는 주기적인 서고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서고 내부의 공기환경은 산성에도 알칼리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성이 좋다. 또한 티끌이나 먼지도 산성도가 강한 것일수록 종이에 악영향을 준다. 종이의 화학적 손상은 공기 중 산소가 종이 내 수분 및 구성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시킨다. 화학적 원인에는 일반적으로 산, 펄프의 질, 공기오염인자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셀룰로오즈나 헤미셀룰로오즈, 리그닌이 변화 및 분해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특히 종이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곰팡이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거나, 먼지에 포함되어 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기 순환과 함께 고문헌의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부드러운 모필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털어내는 등,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규장각은 서고의 공기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24시간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청정한 날은 50% 정도의 외기공조를 실시하여 서고의 탁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미세먼지까지 99.9%여과시키는 헤파필터 공조시스템으로 정화된 공기를 서고로 들여보낸다. 그리고 흐린 날에는 서고내부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내기공조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서고의 온·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공조시스템을 가동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조기 가동으로 서고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적정 온·습도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계절변화에 따른 시스템 작동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규장각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로 서고 보존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 분석결과 서고 내부의 보존환경은 측정항목 모두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측정되어 쾌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온습도 및 공조시스템 관리 모니터

<그림 4> 서고 미세유출가스 검사

◆ 서고 환경 검사 기준

▷ 온·습도

- 지류유물 적정 온습도 기준 : 온도 20±2℃, 습도 55±5%

▷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CO_2 1,000ppm이하, CO 10ppm이하

▷ 일산화질소 및 이산화질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NO 0.05ppm이하

▷ 포름알데히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HCHO 0.094ppm이하

▷ 총탄화수소

- Total HC 기준치는 없으며, 3.0ppm이하로 유지

▷ 이산화황

- 대기환경기준 SO_2 0.15ppm이하

▷ 기류

- 기준은 없으나 0.10m/s이하의 잔잔한 흐름으로 공조 시 바람이 유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미세분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0.15mg/㎥이하

2.1.3 보존용구

규장각 소장 자료는 형태별로 고도서, 고문서, 책판, 족자, 병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소장 자료의 상당수는 왕실관련 자료로, 최고 품질의 한지를 사용하여 만들어 졌다. 이들 자료는 일반 고도서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보관용 서가 또한 무게를 감안하여 매우 튼튼하게 제작하였다. 기록문화재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대상 문화재를 형태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존에 가장 효과적인 보존용구와 보조용구를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보존용구로는 온·습도 조절능력이 탁월한 오동나무 서장과 원목서가가 있으며, 보존에 효과적인 중성지 파일, 중성지 봉투, 중성지 상자 등을 고문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출납 중 훼손우려가 높은 화학지 및 대나무 종이로 간행된 고도서는 보호용 포갑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 오동나무 서장

오동나무는 온·습도 조절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목제 자체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서장의 뼈대는 적송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적송을 미려하게 연마하여 뼈대로

삼고 오동나무를 끼워 맞추어 기온변화 등으로 인한 수축작용에도 목재가 갈라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사이즈가 크거나 무거운 자료는 서장 한 단에 한 두 책정도 배열할 수 있도록 서가 단을 설치하여 책의 하중으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장 제작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목재에서 나오는 진이나 니스의 가소제가 종이에 부착되면 변색이나 열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분 함수량을 15%이하로 충분히 건조시키고,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서가 표면에 화학제가 아닌 천연염료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

<그림 5> 귀중본서고 오동나무 서장

오동나무서장은 고전적 보존에 가장 중요한 온·습도의 조절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만, 여닫이 문이 달린 서장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서장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규장각에서는 공조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환기가 되도록 관리에 힘쓰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급격한 환경변화는 자료보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장 내부의 환경은 청정한 날 10% 정도의 외기 공조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문서, 족자, 병풍 자료는 형태별 특성을 감안하여 오동나무 보존함을 특별 제작하였으며, 공기순환, 뒤틀림 방지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보조용구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보관자료 : 귀중본고도서, 고문서, 족자, 병풍, 고지도

◆ 원목서가

고도서는 형태상 눕혀서 서가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서가 단을 8단으로 좁게 제작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쌓아서 눌리지 않게 배열하였으며, 서가 폭 또한 일반서가보다 크게 제작하여 고도서를 눕혀서 배열하였을 때, 서가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책판은 손잡이 부분을 세워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서가단 가운데 부분은 공기가 순환될 수 있

게 비워두었다. 그동안 책판서가는 일반 고도서보존용 서가와 동일하게 서가 간격을 고정식으로 배치하였으나, 서고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식받침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기존의 책판보존용 원목서가를 이동식받침대에 태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고도서와 책판서가 모두 목제는 백나왕 통원목을 사용하였으며, 도장은 천연수지를 얇게 칠하여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보관자료 : 고도서, 책판

▷ 원목서가 제작의 주요 기준
- 수분 함수율 15% 이하의 최상품 원목사용
- 천연수지 무광택 도장
- 통원목을 미려하게 연마하여 짜 맞춤 방식으로 제작하고, 아교나 본드 등 일체의 화학물질은 사용금지
- 서가단 전, 후면의 높낮이를 정확히 맞추어 출납 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
- 제작이 완료된 서가는 훈증소독 실시 후 서고 입고

<그림 6> 일반서고 원목서가

2.1.4 충해 및 서해관리
고문헌을 유해한 세균과 곤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위하여 서고내부의 적정 온·습도 및 청정 공기질 유지와 함께,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고 내부의 청결유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출납 자료에 대한 미세먼지제거, 훈증소독, 서고 출입자 관리 등이 있다.
규장각에서는 보존환경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고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고관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람자의 서고 내부 출입에 따른 보존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규장각 고문헌 보존시설의 이해 증진 및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

고자 한다.

또한 온·습도 유지가 가능한 고문헌열람실을 설치하여, 이용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고 담당자의 출입을 위하여 서고 전실(前室) 출입문에 에어커튼과 분진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손 소독기와 장갑, 실내화 등을 비치하여 서고 보존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다.

<표 4> 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가해곤충의 종류

문화재 재질		가해곤충
식물성 재질	지류	딱정벌레목, 좀목, 나비목, 귀뚜라미목, 다듬이벌레목, 벌목, 흰개미목, 파리목
	목조 (건조물의 목부재)	흰개미목, 딱정벌레목, 벌목
	목재 (목조불상, 병풍 등)	딱정벌레목, 흰개미목, 벌목, 나비목
	섬유류	좀목, 바퀴벌레목, 딱정벌레목, 귀뚜라미목
	건조식물	딱정벌레목, 좀목
동물성 재질	피혁류	딱정벌레목, 나비목, 좀목, 다듬이벌레목
	모직류	나비목, 딱정벌레목, 좀목
	견류	바퀴벌레목, 좀목
	문화재의 오염	좀목, 파리목, 벌목

2.1.4.1 유해생물 모니터링

지류, 목재, 섬유 등과 같은 유기질 재질은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곤충에 의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 물론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관리는 되겠지만, 세균과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포쇄(曝曬)를 통해 관리하였으나, 현재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소독작업을 통해 해충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문화재 보존전문 기관에서는 미연에 생물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으로 종합적 유해생물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규장각에서는 미생물과 곤충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6-7월에 서고와 자료실, 연구실 등 건물 전체에 IPM 트랩을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트랩설치는 서고 바닥 및 서가 등 주요지점에 1-2m 간격으로 약 1,500여개를 3주간 설치하였으며, 서고에서 포획된 가해충을 분석한 결과 고문헌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해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먼지다듬이 종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먼지다듬이가 고문헌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응애의 침입 등 이차적인 해충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서고 모니터링 결과 먼지다듬이 개체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훈증소독은 모니터링 분석이 완료되는 7-8월 중 2-3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훈증소독 완료 후 해충 모니터링을 재

실시하였다. 소독 완료 후의 서고 모니터링 결과 유해생물이 거의 포획되지 않았다.
규장각에서는 앞으로도 종합적 해충방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제수단 방안을 구축할 것이며, 수장고 전체의 방제시기 및 방제방법의 판단근거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에 의한 자료의 축적으로 수장고 보존환경에 보다 적합하면서도 안전한 고문헌의 방제방법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해생물 모니터링 방법

환경진단	≫	▷ 모니터링 트랩 설치장소 선별 ▷ 트랩구역 섹터 구분 ▷ 트랩설치 도면작성
트랩제작	≫	▷ 모니터링 트랩 제작(1,500개)
트랩설치	≫	▷ 서고와 전시실을 중심으로 트랩 설치 ▷ 지하1층 ~ 지상4층까지 통로 및 연구실 트랩설치
트랩수거	≫	▷ 21일 경과 후 트랩 수거
트랩분석	≫	▷ 가해충 존재여부 확인 ▷ 트랩에 포획된 충의 개체 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수립	≫	▷ 모니터링 결과분석 보고 ▷ 해충의 발견 시 유입로 분석 ▷ 향후 보존대책 수립

2.1.4.2 훈증소독

규장각에서는 기록문화재를 유해한 충과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 방법은 외부와 완전히 밀폐시킨 상태에서 서고 전체를 훈증 소독하고 강제 배기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동안 소독약재로는 메틸브로마이드(MB)와 에틸렌옥사이드(EO)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메틸브로마이드의 경우 199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되면서 선진국은 2005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생산·사용이 유예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별도의 소독처리를 위하여 질소밀폐훈증소독실을 설치하여 출납 자료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훈증소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제129호에 “훈증소독의 효과와 과제”로 김종은 당시 규장각 정보자료관리부장이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1.4.3 서해관리

지류 자료는 서해(鼠害)에 의한 피해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쥐의 습성 상 자료를 직접 갉아먹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식력 또한 매우 강해 년간 1,0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인한 자료의 오염 및 미생물 발생에 따른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에서는 서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제전문 업체를 통해 쥐의 유입예상 경로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

2.1.5 조명관리

서고의 조도는 보관 자료를 조명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무를 위한 최소한의 밝기인 200럭스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기록문화재의 퇴색요인은 공기접촉에 의한 변색과 빛에 의한 변색 등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데, 퇴색이 된다는 것은 산성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고 조명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실내조명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형광등의 경우 퇴색 요인이 되는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서고 조명으로는 자외선 방지막이 채용되어 퇴색방지에 효과적인 퇴색방지용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도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이성분을 광분해하기 쉽다.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종이의 색이 황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자외선이 있는 광원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규장각의 모든 서고에는 1990년부터 퇴색방지용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퇴색방지용 형광등이 명칭만큼 완벽하게 퇴색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외에는 꺼두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정구역별 센서를 설치하여 근무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퇴색방지용 형광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외선 방출이 0%인 LED(Light Emitting Diode)조명을 제1,2,4서고에 설치하여 기록문화재의 퇴색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LED조명은 기록물을 변색시키는 자외선 방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10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조명 교체를 위한 서고 출입이 줄어들어 서고 내 보존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형광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에너지 절감형 조명이기 때문에, 초기의 높은 설치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장점이 많은 조명기구라 할 수 있다.

2.2 재난대비

2.2.1 건축설계

현재의 건물은 1989년 경회루를 본떠 설계되어 신축하였으나 서고 및 연구 공간 부족으로 2004년에 다시 증축하였으며, 연면적은 총 9,567㎡이다.

양식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고문헌 보존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서고부분은 습기방지를 목적으로 2중 벽체 및 이중 바닥으로 건축되었다. 외벽과 천장부분의 콘크리트 두께는 무척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는 지진과 공습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서고 부분에는 일체의 물과 관련된 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가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고문헌 보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물로 인한 훼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방치되거나, 배관 누수로 오염된 물이 고문헌을 부식시키게 되면 귀중한 기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보존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훼손되기 전의 원형으로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 하수도 배관, 소방배관 등이 서고 천장으로 설치되면 언젠가는 배관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규장각 서고는 설계단계부터 일체의 물과 관련된 배관설치를 배제하였다.

2.2.2 소화설비시스템

규장각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소장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난의 종류 중 피해규모와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서고의 내용물은 모두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종이, 목판, 목제서가 등 유기물질이므로,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함께 예방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고의 소방 시설로는 이너젠(INERGEN)가스 및 하론(HALON)가스에 의한 자동소화설비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연기 자동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30초간 경고음이 발령되고 방호구역별 이너젠 또는 하론가스가 방출된다. 일단 가스가 방출되면 순식간에 서고내부의 산소농도를 15%이하로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경고음이 발령되는 30초 동안 큰 불로 번질 우려는 없지만, 만약 큰 불이 나더라도 서고 내부의 산소량은 불이 붙지 않는 농도로 바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에서는 소방계획도를 작성하여두고 비상 상황 시 소방관 등에 의한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계획도에는 건물구조 뿐만 아니라 물사용 금지구역, 소화설비 관련 시설의 위치, 비상 대피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3 방범관리

방범으로는 외부 침입 및 도난 대비를 위한 동작감지기를 설치하여, 경비 시 침입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함께 라이트가 연동되게 되어 있다. 또한 방범 및 자료 관리를 위한 CCTV가 중요지점에 설치되어 동작 시 자동녹화 되도록 하였으며, 서고 등 주요지역은 무인방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방독면, 손전등, 비상용 열쇠 및 카드 등을 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에 사용가능 하도록 비치하여 두고 있다.

3. 보존환경 개선 방안

3.1 공간부족 해소

고문서와 장토문적류, 외교문서의 보존개선을 위하여 중성지 파일, 중성지 상자, 중성지 봉투 처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공간부족 문제이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존에 적합하지 않는 산성봉투와 접힌 상태로 원본을 계속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문서 등 기록문화재를 보존에 효과적인 중성지로 보존처리하고, 서가에 과적되어 보관되고 있는 고문헌을 효율적으로 분산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환경을 완비하고, 한국학 장서확충을 통한 학술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 확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소장 자료에 대한 최적의 보존환경 구축과 학술정보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충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건물증축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최적의 보존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증축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 개선안 : 세계기록유산 보존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문헌 보관 서고, 소독실, 한국학 자료실, 기록문화재 홍보관, 국제한국학센터 등으로 활용할 건물 5,700㎡증축

3.2 항시소독시스템 도입

고문헌의 손상요인은 수 없이 많을 수 있으나 크게 구분해 보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은 다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 문화재의 손상요인은 단일 작용보다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재질이 유기질인 지류, 섬유류, 목재류는 곤충 및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으로, 보존관리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재질에 비하여 생물학적 손상과 그에 따른 보존대책에 비중을 두어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기질 문화재에 충·균해와 같은 생물 피해가 시작되면 자체 재질이 곤충에 의해 잠식되어 손실되고, 결국에는 소멸되어 두 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 고문헌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생물피해의 방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규장각에서는 서고 내부를 유해한 세균과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서고 전체를 밀폐하여 실시하는 훈증소독을 채택하여 왔었다. 그러나 훈증소독의 단점은 2-3주 정도의 휴관이 불가피하고, 잔류가스가 남게 되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것이다.

보존 선진국인 일본이나 국내 일부 보존전문 기관에서는 소독처리실을 별도로 두고 상시 소독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소독처리기 이용의 장점은 신규 입고 자료에 대한 소독이 용이하다는 것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소독이 가능하고, 소독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관이 필요 없다

는 것이다.
서고의 온·습도가 항시 적정하게 유지된다면 해충의 발생우려는 낮아진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결과로 나와 있지만 온·습도를 항시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여름 우기 시 일반 가정의 실내 습도가 70~80%에 달하고 있는데, 냉동기나 보일러를 이용한 강제적 온·습도 유지로 충해발생 우려가 낮은 환경인 온도 20℃와 상대습도 55%를 항시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 오작동 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장각에서는 서고 유해생물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고 소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서고 밀폐 훈증소독의 최대 단점은 사용 약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과 배기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기존의 서고 밀폐훈증 소독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질소밀폐훈증소독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독실이 설치되면 출고된 자료는 소독 실시 후 서고에 입고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서고 내부를 유해한 세균과 충으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독실을 설치하기 전에 서고 전체를 훈증 소독하여 소독처리가 안된 자료의 충이나 균이 옮겨올 가능성에 확실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개선안 : 질소밀폐훈증소독기 도입 및 소독실 설치

3.3 수리복원 및 탈산처리

오래되어 훼손된 고문헌은 수리복원을 통하여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성화 우려가 있는 근대화학지 및 중국본 자료는 탈산처리를 통하여 산상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습기로 인해 곰팡이 피해를 입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고문헌을 수리 복원하여 왔었다. 그러나 수리복원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대상자료 중 극히 일부의 자료만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1994년부터 보존처리 예산을 확보하여 훼손이 심각한 자료를 대상으로 수리복원이 시행되었으나, 역시 예산의 문제로 2000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서고의 보존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의 관리 부실로 훼손된 고문헌자료, 특히 곰팡이 피해 자료는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시급한 복원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헌 중 족자자료는 형태의 특성 상 꺾임, 박락, 찢어짐 현상이 자주 일어나므로 수리복원 시 유의하여야 하며, 보존처리 후에는 꺾임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료나 산성화 우려가 높은 자료는 탈산처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자료와 대나무종이로 간행된 중국본 자료는 산성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우려가 매우 높은 자료들로, 우선적으로 탈산 처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개선안 : 수리복원 기자재 구비, 훼손된 자료의 수리복원, 족자자료 굵게말이축 제작, 탈산 처리

3.4 중성지 보존처리

고문헌 자료가 공기와 빛으로부터 노출되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존선진국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중성지 보존처리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간행당시부터 포갑을 제작하여 보관하던 자료의 보존 상태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보존 상태를 비교해 보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포갑에 보존해오던 자료의 보존상태가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규장각에서는 2008년 보존처리 기본 장비를 갖춘 보존처리실을 마련하고 보존과학 전문가를 채용하여 중성지 처리 및 탈산처리, 훼손된 자료에 대한 수리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명의 전문가로는 방대한 소장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현재 장토문적류 등 일부 고문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중성지 보존처리를 귀중본 등 전체 소장 자료로 확대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5만 여 점에 달하는 고문헌의 중성지 보존처리를 위하여 중성지재단기를 도입하여 고문서 중성지 파일처리, 중성 상자 제작, 중성지 봉투제작 등 소장 자료의 중성지 보존처리 작업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 개선안 : 중성지 재단기 도입 및 소장 자료의 중성지 보존처리

3.5 모사본과 복제본 제작

안전하게 고문헌을 보존·관리하는 방법은 활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보존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조선의 지식인들의 지혜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문헌들이다. 이러한 문헌은 연구·활용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앞으로의 역사도 찬란히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고문헌 자료는 오래도록 보존하여야 할 문화재이며, 또한 활용되어야 할 기록물이다. 이용으로 인한 고문헌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모사본과 복제본을 제작하여 연구 및 촬영 요청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에서는 2010년부터 일부 고문헌에 한해 모사본과 복제본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 자료의 방대함과 이용자의 원본 이용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복제본 제작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개선안 : 소장자료 중 활용도 및 중요도, 보존상태, 훼손우려 등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모사본 및 복제본 제작

◆ 모사본 제작의 주요내용

모사본이란 대상 자료의 재질, 안료 등을 분석하여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사전문 화가가 원본을 옮겨낸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모사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보존상태와 동일하게 제작하는 현상모사와, 원본의 처음 간행당시와 동일하게 제작하는 원형모사가 있다. 모사본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원본에 사용된 안료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료분석 방법으로는 고문헌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비파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 안료분석 장비로는 X선형광분석기, 적외선분광분석기, 현미경 등, 유기·무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원본에 사용된 안료의 원소를 검출하여야 하며, 검출원소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원본에 사용된 염료와 동일한 염료를 만들거나 찾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자료의 재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분석기를 통한 종이 물성 분석이 필요하며, 물성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종이의 제작방법, 밀도, 두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본의 재질이 확인되면 동일한 재질의 종이를 제작하거나 구해서 사용하고, 모사가 완료되면 원본 장황방법과 동일하게 장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모사본이 원본을 대용하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원본의 훼손, 유실 시에 대비한 원본 대체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 복제본 제작의 주요내용

복제본 제작은 고문헌을 촬영하여 원본의 현상과 동일하게 인쇄하여 제작한다. 먼저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정하여 책판형 이미지로 제작한다. 또한 대상 자료의 종이의 물성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재질이거나 근접한 종이를 구하여 최대한 원본과 같이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지 재현 시 원본과 수시로 대조하여 원본의 색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력된 자료는 원본의 상태와 동일하게 판심부분을 정확히 접어 재단하고, 표지, 선장, 부속재료 등도 원본과 최대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6 재난대비시스템 관리

재난대비시스템 중 현실적으로 발생우려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재대비시스템은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상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화재에 대비한 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져 유지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 미비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고 내부의 화재경보기 작동 시 실화 또는 오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신속한 대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재 감시를 위한 전용 CCTV를 서고에 설치하여, 경보기 작동 시 경비실 모니터를 통해 신속한 오작동 확인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1989년 신축 시 설치된 규장각 구관 서고의 하론가스 시설은 환경오염물질로 생산이 규제되고 있어 청정가스 소화설

비 시설로 교체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화구역이 너무 커서는 안 되며, 현재 규장각 제1서고의 방화구역을 2~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철저한 사전관리로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 하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화재, 방범, 서고 보존환경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시 초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관리, 보일러 및 냉동기 등 기계장치 관리, 소화설비관리 등 시스템별로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체제와 병행하여 별도의 종합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확인으로 각 시스템을 제어하고, 담당자 및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개선안 : 서고 화재감시용 CCTV 설치, 하론가스 시설 교체, 서고 방화구역 분리, 재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7 전문성 강화

현재의 고문헌 보존관리 및 수리복원 전문 인력으로는 방대한 규장각도서를 관리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장각자료의 정밀상태조사에 의한 안전한 보존관리와 수리복원을 전담할 전문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난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방재요원의 충원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근무자와 함께 최소 3명의 방재요원을 새로 배치하여, 교대 근무로 24시간 상주하면서 자동소화 설비 등의 소방 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종합재난대비책 마련 및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재 및 기록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장각 종합방재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고문헌 보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과 기록문화재 보존 기술교류 등을 통한 보존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 개선안 : 전문인력 확충(보존관리 3명, 수리복원 4명 방재요원 3명), 종합방재대책위원회 구성, 선진 보존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

4. 결언

이상으로 규장각의 고문헌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소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그동안 학교와 정부의 지원, 규장각의 노력으로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된다. 특수공법에 의한 건물시공 및 보존환경 유지, 실시간 감시체계 및 안전시스템 구축, 과학적 보존을 위한 제반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규장각 고문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하여 선진 기술 습득 및 도입을 통한 보존 전문가 양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문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난 및 환경으로부터 규장각자료를 지킬 수 있는 시설개선과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현 상태(재질, 열화정도, 곰팡이 피해정도, 변색정도 등 전반적인 보존상태)를 정밀조사 하는 것이다. 현 상태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예방보존 또는 오랜 세월로 인하여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밀상태조사에 의해 고문헌의 현 상태를 제대로 알고, 손상을 초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 고문헌이 손상되지 않게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존환경의 부실 및 보존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수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규장각 도서는 우리 모두가 아껴야 할 기록문화재이기 때문이다.

해 외 연 수

"New Challenges, New Opportunities" The 8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 2010. 4. 23. ~ 4. 27.

나 혜 란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김 소 미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HKU Libraries & The Scholars Hub
1. 소장 자료
2. 서비스 및 이용현황
3. 도서관 주요 안건
4. The HKU Scholars Hub
Ⅲ. Cloud Computing
1. 정의
2. 분류 및 사례
3. OCLC WorldCat Local
Ⅳ. Case Study
Ⅴ.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Library Leadership Institute는 홍콩대학에서 주최하는 도서관 사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2003년 처음 시작한 이래 2010년 우리가 참가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New Challenges, New Opportunities 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주위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맞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여러 가지 강연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Institute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Lake View Hotel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환영 만찬 및 박물관과 중국의 National Science Library등의 방문을 통해 중국 사서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던 날씨 탓에 고생했지만, 선뜻 두꺼운 점퍼를 빌려주며 한국 드라마에 대해 관심이 많던 중국, 홍콩에서 온 사서들과의 대화는 추운 날씨를 잠시 잊게 해 줄만큼 재미있었다. 또한, 발표내용도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 있는 주제인 기관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및 cloud computing 과 그에 대한 적용 사례 등에 대한 것으로 실제 업무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응용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Paul B. Gandel 교수의 강의를 듣고 도서관 건립에 관해 조별 프로젝트로 진행한 case study는 이론을 토대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흥미로운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체험기회였다.

Ⅱ. HKU Libraries & The Scholars Hub

홍콩대학은 1887년 설립된 Hong Kong College of Medicine을 전신으로 하여 1912년에 건립되었다. 22,000여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타임즈 대학 평가 순위도 2009년 24위, 2007년에는 18위를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대학이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예술, 건축, 인문, 과학기술, 사회과학)과 6개의 분관(치과, 교육, 법학, 의학, 음악, 중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3명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23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 Hong Kong University Library 내부

1. 소장 자료

구분	전체 소장자료	E-Book	E-Journal	DB
건수	2,729,901	1,895,309	57,862	707

[표 1] 소장 자료 현황

소장 자료에서 전자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매년 예산배정에서 전자자원의 비율을 보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연도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예산비율	12%	21%	29%	42%	48%	50%	56%	59%	71%

[표 2] 예산배정 중 전자자원 비율

2. 서비스 및 이용현황

46,891명의 졸업생을 포함한 102,401명의 등록된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해 130만권의 책이 대출되고 있다. 2009년 도서관 사이트 방문은 1억 8천 건이었으며 전자자원의 이용횟수는 370만 건 정도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정보검색 강의는 14,0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으며 한해 참고정보 질의서비스는 70,000건이다.

3. 도서관 주요 안건

홍콩대학교 도서관의 주요 현안은 도서관 공간부족 문제로 매년 90,000권 이상의 장서가 보존서고로 이전되고 있다. 도서관 예산 부족은 매년 심해지고 있어 지난해의 over head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과 관련하여 프린트 중심의 도서관 환경에서 전자자원으로의 이동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훈련받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7년 전 44명의 전문 사서를 보유했던 것에 비해 2010년 32명으로 감소하여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 외에 RFID도입 및 지식 교환과 오픈액세스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이중 이번 Library Leadership Institute에서 발표 주제로 삼은 기관리포지터리 Scholars Hub는 홍콩대학의 오픈액세스와 관련한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4. The HKU Scholars Hub

Scholars Hub는 홍콩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리포지터리이다. 기존의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지식 이동(Knowledge Transfer)의 개념에서 지식의 교환(Knowledge Exchange)이라는 개념 하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지식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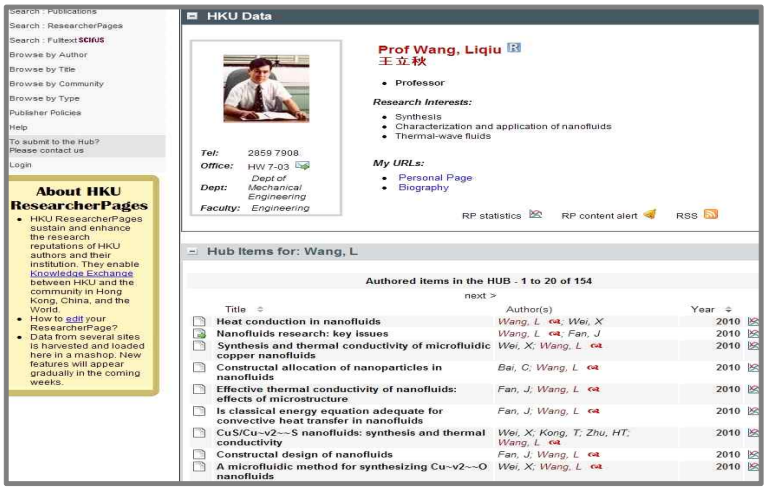
[그림 2] Hong King University 기관리포지터리 Scholars Hub

Scholars Hub는 학내 교수들의 연구 결과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다양한 매쉬업(mash up) 기능들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논문 정보 외에 학술 DB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리포지터리에서 한 번에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징적인 매쉬업(mash up) 기능으로는 Open API를 제공하는 외부 자원과의 연계이다. 기본 아이템 상세 정보에서 Scopus와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논문 인용정보를 연동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Database 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자신의 논문 목록 정보를 확인하면서 업데이트 되는 인용횟수 정보까지 One-stop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Google Scholar의 인용정보 리스트까지 다양한 외부자원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외부자원 연계

또한 ISI사에서 운영하는 Research ID에 있는 홍콩대학교 교수들의 정보를 연계하여 저자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Researcher Page

저자 페이지는 저자의 사진은 물론, 관심 분야와 연구실, 연락처 등의 정보와 함께 교수의 연구 논문 목록이 리스트화 되어 있다. 개별 교수들은 자신들의 논문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어 수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 웹페이지를 대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자 페이지는 교수 개인이 자신의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저자 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수의 사진을 직접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본 정보를 연동시켜 Scopus와 Research ID에서의 클릭 횟수 및 인용 횟수 등을 제공한다. 저자 페이지가 있는 저자의 경우 마크가 표시 되어 있으며, 저자 페이지만 따로 검색도 가능하다. Institute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인용횟수 연계 등의 매쉬업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 교수들의 개인 약력, 연구비 이력 등의 정보까지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Researcher ID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교수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홍콩대학교의 경우 도서관장이 포함된 오픈액세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교수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했으며,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집약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Springer 출판사와의 연계이다. Springer Open Choice라고 불리는 이 협력 시스템은 Springer의 Open Access Journal을 계약하여 홍콩대학교의 교수들의 논문이

출판게재 승인이 되고 peer-review가 끝나는 즉시 Scholars Hub 및 Springer Open Access Journal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어있다. Open Access Journal 모델의 경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학이나 정부기구 등으로부터 출판 비용을 충당해야만 한다. 홍콩대학교의 경우 대학과 출판사 차원의 계약에 의해 비용 충당이 되고 있어 교수들은 비용 부담 없이 자신들의 논문을 연구하고 출판하여 배포되는 사이클이 짧아져 인용횟수 증가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역시 교수들의 논문 홍보가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Ⅲ. Cloud Computing

IDC에서 2008년 발표한 세계 IT 투자 전망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Cloud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약 3배 증가하여 2012년까지 420억 달러에 이르고, Cloud Computing에 대한 지출이 2012년에는 IT 지출금액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Gartner는 2008년 제 27차 가트너 심포지움/IT 엑스포에서 2009년은 물론 향후 3년간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기술 Top 10을 발표하였는데 Cloud Computing을 1위로 선정했다. 이와 같이 Cloud Computing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의 원가절감에 의한 효율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 IT 운영비용절감을 위해서는 Cloud Computing과 같은 가상화 기술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5] Google Search Trends

1. 정의

Cloud Computing 개념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리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웹 서비스, 서버 및 스토리지의 가상화 기술과 공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존의 기반 기술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구름과 같은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기술로, 인터넷상의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각종 컴퓨팅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만큼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Cloud Computing은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아웃소싱 서비스'로 서버에 개별적으로 저장해 두었던 모든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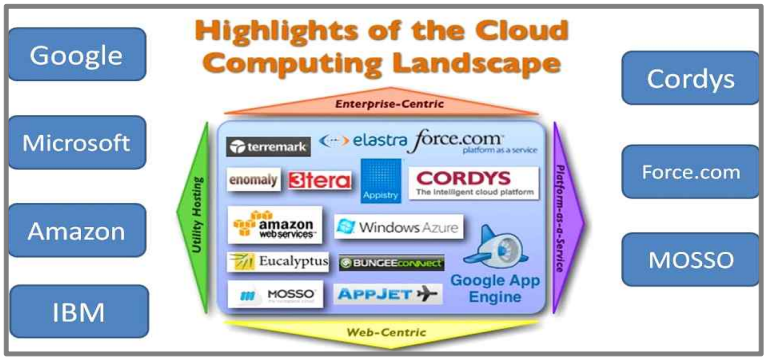
2. 분류 및 사례

Cloud Computing 서비스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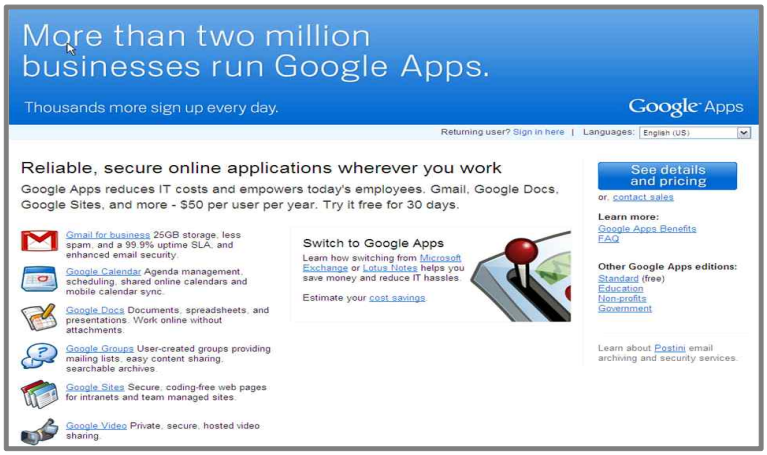
IaaS는 서버, 스토리지 같은 IT 인프라 자원을 Cloud 서비스로 빌려 쓰는 형태이다. 현재 아마존은 IaaS형의 Cloud Computing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가상의 서버를 웹 기반으로 사용자가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EC2(Elastic Compute Cloud)와 개발자들을 위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S3(Simple Storage Service)가 있다.

PaaS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는 것으로, 구글의 App Engine은 제3의 개발자들이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서버단의 광대한 자원 플랫폼 상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할 수 있는 PaaS 전략을 취하고 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Cloud 서비스를 통해 빌려쓰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이 최초로 상용화한 Cloud 서비스인 Google Apps는 SaaS 형태의 웹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그림 6] Cloud Computing 서비스 사업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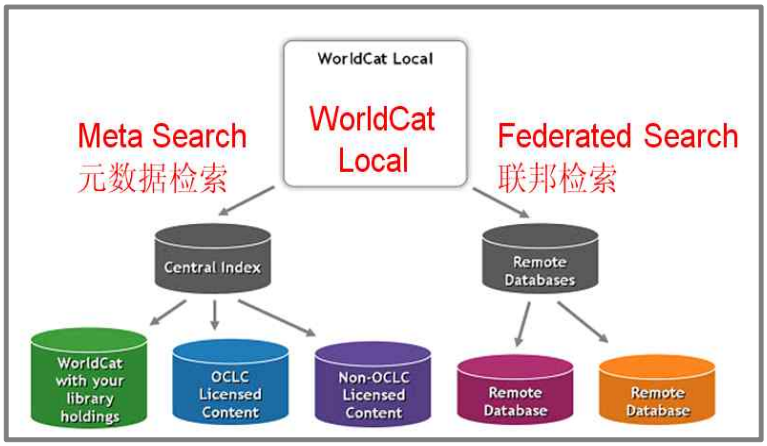
[그림 7] Google Apps

Cloud Computing을 사용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OhioLINK library consortium : Amazon's Web Services
-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 Amazon's EC2, Amazon's S3
- The Eastern Kentucky University Library : Google Docs, Google Calendar, Google Analytics
- Western State College in Gunnison, Colorado : Google AppEngine

3. OCLC WorldCat Local

정보검색의 첫 번째 정보원으로 도서관 OPAC을 찾는 사람은 단 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용자는 Google 등과 같은 쉽고 빠른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며 검색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도서관으로 유도하여 도서관이 연구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자원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통합검색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WorldCat Local도 그 중 하나이다. WorldCat Local은 자관 보유 콘텐츠와 구독중인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색인해서 이용자에게 보여주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 WorldCat Local 개념도

Cloud Computing 기법을 사용하는 WorldCat Local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 도서관은 유지를 위한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 Web-scale 서비스는 OCLC에 의해 제공된다.
- 모든 서비스는 웹을 통해 도서관에 제공된다.
- 도서관들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이거나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Ⅳ. Case Study

Case Study는 마지막 날 각 조별 발표로 진행되었다. 며칠 동안 진행된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Paul B. Gandel 교수의 강의는 Case Study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 강의로 도서관 경영 및 SWOT분석, Project Management, 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관련 이론과 함께 실습을 함께 진행했다. 올해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주제	Earthquake, Explosion, Fire, Destruction - Disaster or Change Opportunity?
배경	지진과 화재로 인해 베트남의 Anmai 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붕괴되었다. 다행히, 인쇄자료의 80%는 다른 건물에 있어서 파손되지 않았으나 도서관 안에 있었던 자료들은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교수학습·연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과제	- Mission Statement - SWOT Analysis - New & Old Services - New Staff Hires - Project Management Plan

[표 3] Case Study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정책 및 서비스를 결정해야 하므로 모두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소속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및 해보고 싶은 서비스 등을 나열하며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다. 각 도서관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현실에서 해보지 못했던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고, 현실에 아주 밀접하게 안을 짜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도서관 현황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가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열람증을 홍콩대학교 전산팀 팀장에게 자랑했었는데 그분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환호를 받았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The 8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홍콩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cholars Hub를 통해 상업출판사의 저작권 독점, 학술지 유통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한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 액세스를 근간으로 하는 기관리포지터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OCLC의 WorldCat Local은 Cloud Computing 기술을 응용한 솔루션으로 기존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틀을 벗어나 논문 단위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준다. 쉽고 빠른 검색엔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첫 번째 정보 접근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4박 5일은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림 9]The 8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가자 단체사진

참고문헌

이주영 (2010), “초점 :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및 사업자별 제공 서비스 현황”, 방송통신정책, 2010. 4. 1.

이종숙・박형우(2009), “특집 :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동향 및 전망”, 정보처리학회지, 2009. 3.

The HKU Scholars Hub. 2011. [cited 2011. 2. 11.] <http://hub.hku.hk>

Springer Open Choice @ University of Hong Kong. 2011. [cited 2011. 2. 16] <http://www.springer.com/open+access/authors+rights/hkuauthors?SGWID=0-1717813-0-0-0>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출장보고서

송 지 형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1. 출장개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김현준 외 2명(수서정리과 박정주, 정보관리과 조교 송지형; 이하 출장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규슈대학(九州大學)부속도서관을 둘러보았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후쿠오카(福岡) 시내의 하코자키(箱崎)캠퍼스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과 4개 분관 - 병원캠퍼스의 의학분관, 오하시(大橋)캠퍼스의 예술공학분관, 쓰쿠시(筑紫)캠퍼스의 쓰쿠시분관, 이토캠퍼스의 이토(伊都)도서관 - 및 부설기록자료관(하코자키캠퍼스에 위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롯폰마쓰(六本松)분관은 2009년 2월 폐관하였으며, 소장 자료는 모두 이토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출장팀은 출장기간 동안 규슈대학 내 여러 도서관 가운데 중앙도서관과 부설기록자료관, 이토캠퍼스의 이토도서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1. 규슈대학 캠퍼스

* 이토도서관은 특히 자동서고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이토도서관과 자동서고에 대해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 編, 『きゅうと Newsletter』, vol. 4, no. 3, 2009. 10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CuteNL_4_3.pdf) 을 참조.

2. 규슈대학부속도서관에 대하여

(1) 연혁

규슈대학의 역사는 1867년 당시 후쿠오카 지역을 통치하던 구로다번(黑田藩)의 번교(藩校)로 찬생관(贊生館)이라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학교를 덴진(天神) 지역에 설립한 데서 시작한다. 이후 얼마못가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부속병원만은 계속 유지되어 오다, 1900년에 병원(당시는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병원)을 모체로 하여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의 분과대학으로 후쿠오카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후쿠오카 의과대학은 1911년에 규슈제국대학으로 이관된다.) 한편 1900년 의회에서는 「규슈・도호쿠 제국대학 설치건의안(九州東北帝國大學設置建議案)」이 통과되었지만 이후 예산 문제로 계속 제국대학 설립이 지연되어 오다 1911년에야 비로소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이 설립되었다.* 이런 연유로 찬생관이 설립한 1867년은 규슈대학의 창립년이지만, 동시에 대학설치년은 규슈제국대학으로 독립한 1911년이다. 실제로 규슈대학은 2011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1922년 규슈제국대학부속도서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47년에 현재의 규슈대학부속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1947년에는 의학도서관, 1959년에는 롯폰마쓰도서관, 2000년에는 쓰쿠시도서관, 2003년에는 예술공업도서관(규슈대학과 규슈예술공과대학이 통합)을 설립하였다. 2005년에는 이토지구의 새 캠퍼스에 이계(理系)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이계도서관은 2009년에 다시 이토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2) 기본 통계 비교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주요 일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일반 현황

장서수 (2010. 3. 31 현재)	
소장책수	4,016,028책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	92,741종

* 이상은 http://ja.wikipedia.org/wiki/%E4%B9%9D%E5%B7%9E%E5%A4%A7%E5%AD%A6 을 참조.

** 이상은 http://www.lib.kyushu-u.ac.jp/overview/item_185.html을 참조.

*** 九州大學附屬図書館 編,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9/2010』, 2010. 5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9-2010.pdf), pp. 17~18을 참조.

전자저널 (2010. 5. 1 현재)	
열람가능 전자저널수	48,325종 (무료 저널 포함)
계약 타이틀 수	31,478종

2009년도 수입통계	
도서수입	52,635책
연속간행물(인쇄자료만)	15,991종

2009년도 자료구입비	1,252,630,000￥
단행본	492,688,000￥
연속간행물	205,405,000￥
전자저널	537,955,000￥
기타	16,582,000￥

직원수 (2010. 4. 1 현재)	127명
사무부장	1명
과장	3명
과장보좌	1명
도서관전문원	4명
계장/전문직원	23명
계원 등	95명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장서수는 대체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과 유사한 반면,* 연속간행물의 종수(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포함)는 서울대보다 나은 수준이다.** 연간 자료구입비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60억 정도이며,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2010년도 예산과 비슷하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구입비에서 실물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경우 2009년도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저널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

* 2010년 11월 30일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도서 책수 3,374,262책; 규장각과 학과 및 연구소를 포함하면 4,179,631책이다. http://lib.snu.ac.kr/PageView?LibraryStatistics1&LibraryStatistics를 참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인쇄자료의 종수는 6,946종(신문 포함), 전자저널은 28,312종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편, 『도서관보』, 제132호, 서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2010. 2, pp. 161~162.

중이 약 43%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전자저널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며 다만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분할 뿐이어서 단순 비교는 곤란하나, 2009년 자료구입비 가운데 연속간행물은 예산의 75.6%, 집행액의 73.4%에 해당하며,* 연속간행물 관련 예산의 상당액은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임대(lease)'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가정해 볼 때, 실물자료에 대한 지출이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전자자료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이긴 하나 휘발성 예산임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실물자료에 대한 지출에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해 보인다.

(3) 규슈대학 캠퍼스 이전과 신도서관 계획

규슈대학은 후쿠오카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캠퍼스를 이토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규슈대학부속도서관 또한 2003년 7월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을 위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이전계획』(일종의 마스터플랜에 해당)을 수립하고, 도서관 이전을 준비해오고 있다. 현재 이토지구에는 기존의 이계도서관과 롯폰마쓰 분관만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중앙도서관도 이토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이토캠퍼스 신도서관 계획의 개요와 경위, 신도서관 관련 각종 계획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학내 공개이긴 하나 회의록도 공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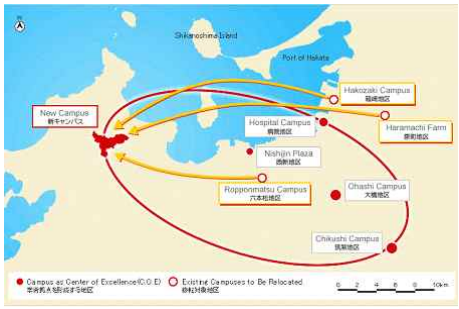


그림 2. 캠퍼스 이전 계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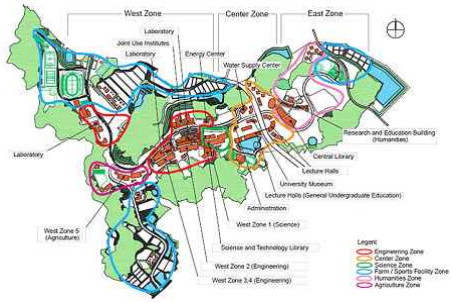


그림 3. 이토캠퍼스 배치 계획

(4) 연구개발실에 대하여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조직을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연구개발실의 존재이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은 주로 도서관의 현안이나 발전방향에 관한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편, 『도서관보』, 제132호, p. 165.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신도서관 계획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 향후 우리 도서관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 하다. http://www.lib.kyushu-u.ac.jp/newlib를 참조.

연구를 추진하는데, 연구개발실 소속의 교원이나 연구원, 혹은 겸임교수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별도의 고서를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의 보존이나 디지털 콘텐츠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교수나 연구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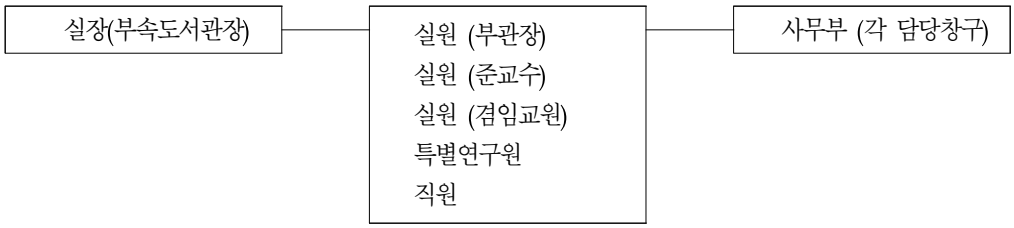
1) 설치목적

연구개발실은 대학 내 학술정보의 수집・가공・축적・제공 및 기타 도서관이 담당하는 교육연구지원 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운데 부속도서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고도의 도서관 서비스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부관장을 비롯한 교수와 연구원(이하 실원)이 연구개발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008년도에는 18명, 2009년도에는 19명의 실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실원만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경우, 실원 다수에 직원이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 실원 1~2명에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표 2> 연구개발실 조직도



3) 연구개발실 주요 연구개발 사항

연구개발실의 주요 연구개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009년도 연구개발실 주요 연구개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면 관계상 연구책임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연구는 연구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① 장래 계획 관련 분야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조직도는 http://www.lib.kyushu-u.ac.jp/overview/item_186.html을 참조.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에 대해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 編,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年報 2008/2009』, 福岡: 九州大學附屬図書館, 2009. 7을 참조.

** http://www.lib.kyushu-u.ac.jp/rd/rd_2009을 참조.

- 통합이전 후 신도서관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해외 대학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松原孝俊 한국연구센터 교수)
- 도서관직원 전문성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竹村則行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 학습・교육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吉田素文 부속도서관부관장・의학연구원교수)

② 전자도서관시스템 관련 분야
- 학술정보 리포지토리에 관한 연구개발
- 교원・학생의 커뮤니티와 콘텐츠 형성에 관한 연구
- RFID를 활용한 도서관 시스템에 관한 연구

③ 콘텐츠 형성・발신(發信) 관련 분야
-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黒澤節男 부속도서관연구개발실특별연구원)
- 귀중자료 이미지 및 서지 DB 작성에 관한 조사연구
- 자료보존에 관한 조사연구

(5)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소장 주요 컬렉션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분관에 귀중서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다. 컬렉션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개인문고'와 유사한 개념이나, 장서수가 중요한 설치 기준은 아니며 중요도에 따라서 일반 서가에 혼합 배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파라(ペラ)문고*, 쿤켈(クンケル)문고** 등이 있다. 현재 95개의 컬렉션이 등록되어 있다.***

---

* La Collection de Charles Perrat. 프랑스국립고문서학교 교수(중세사 전공) Charles Perrat(1899-1976)가 소장하던 장서이다. 1979년 문부성으로부터 공동이용외국학술도서구입비를 배분받아 암스테르담 Dekker & Nordemann BV에서 63,650,000엔을 주고 구입했다. 서양중세사의 역사보조학, 특히 고서체학과 서양법제사, 지방사 관련 자료들로 도서 2,611책, 제본잡지 132책, 미제본잡지 431책 등 모두 3,916책이다.

** 뮌헨대학 법학부에 재직했던 고(故) Wolfgang Kunkel 교수의 장서이다. 로마의 사법(私法)・공법, 로마사, 그리스사, 파피루스학 및 독일법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단행본 약 3,000책, 잡지・및 정기간행물 약 1,300책 등 4,800책이다. 고도프레도(Godfrey) 판 『로마법대전』(1688) 등이 유명하다.

*** http://www.lib.kyushu-u.ac.jp/collections을 참조. 구체적인 컬렉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컬렉션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는데, 주요 디지털컬렉션은 다음과 같다.

① 규슈대학귀중서화상 DB: 귀중자료 열람*
② 일본고전적화상 DB: 고전문학 연구**
③ 규슈대학소장컬렉션목록 DB: 문고, 문서 목록***
④ 규슈대학장서인 DB: 자료 내력 이해****
⑤ 탄광화상 DB: 탄광자료 조사*****
⑥ 규슈대학학위논문서지 DB: 박사논문 조사*
⑦ 누에성장기록 DB: 누에 유전계통 조사**

그림 4. 귀중서화상 DB

3. 기록자료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부설기록자료관(이하 기록자료관)은 규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RARE.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rare2.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MANULIB.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STAMP.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MLBES1.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GAKUISYOSI.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KAIKO.

료(고문서나 고기록 등)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는 (도서가 아닌) 기록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록자료관은 생소한 기관일 수 있다.* 우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관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로는 규장각에서 소장중인 고문서나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중인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 교수의 기증자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서철 정도를 손꼽아 볼 수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자료의 성격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정보자료관리부가 비교적 기록자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긴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근대 이전의 사료만을 담당하므로 전후(戰後) 자료의 수집에도 열심인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기록자료관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내에도 별도의 기록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기록관은 학교사나 학교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규슈대학 내에도 기록자료관과 별도의 학교사 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학본부 직속의 '대학문서관'이 존재한다. 현재 규슈대학의 대학문서관은 7개의 서고에 과거 제국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종 대학의 발간물이나 행정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2005년 4월 1일 설립한 기록자료관은 현재 '산업경제자료부문', '규슈문화사부문', '법제자료부문', '고문서・고기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자료관은 교내 각 기관에서 흩어져서 관리되어 오던 역사자료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예전 제국대학 시절 건물 2개 동을 서고로 활용하고 있다. 제국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수집해 온 자료의 양이 엄청나서, 현재 2개 동의 건물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기록물이 들어 있는 박스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1) 산업경제자료부문(産業経濟資料部門)

---

* 기록자료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나 매뉴스크립트(통칭하여 기록물)와 도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서는 일부 필사본을 제외한다면 유일본이 존재하기 어렵다. 서양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는 15세기에 발행된 구텐베르크의 42줄 성경(Gutenberg-Bibel)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50여 책이 남아 있다.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한 권만 발행하기란 매우 특수한 케이스이다. 출판물은 정부의 금서정책과 같은 인위적인 소각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유일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금껏 의도적인 수집 노력이 없었던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 전 세계에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쇄된 책이 존재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이에 반해 문서나 매뉴스크립트는 애초에 다량의 복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도서가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라면 문서는 무언가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므로 계약 등의 증빙을 위해 문건을 2~3부 작성해 서로 나눠가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원고나 일기와 같은 매뉴스크립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MARC로 대표되는 기존의 도서관리 방법론만으로는 관리가 곤란하며,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기록'(records, archives)이라 한다.

** 이하 기록자료관 각 부문에 대한 소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附設記錄資料館 編, 『記錄資料館ニューズレター』, vol. 1, 2007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記錄資料館NL1.pdf)을 참조.

1979년 산업노동연구소의 자료를 인계받아 석탄연구자료센터가 설립됐다. 석탄연구자료센터는 당시 연이은 탄광 폐산으로 일실될 위기에 처한 석탄기업과 노동조합의 자료를 수집하는 센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규슈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은 석탄 관련 자료가 많이 일실되었다고 한다. 2005년에 산업노동연구소와 석탄연구자료센터에서 수집한 석탄산업, 일본경제사, 노동관계 자료와 도서를 계승하여 기록자료관이 설립됐다.

1) 조직 구성: 전임교원(3명), 겸임교원(1명), 직원(2명; 사무직 1명, 사서 1명)

2) 업무내용

① 석탄연구자료센터에서 담당해 온 산업경제에 관한 교육・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디지털 아카이브즈 확충을 도모하고, 열람・공개를 통해 사회의 연구・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② 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부의 '산업자료정보강좌'를 개설 대학원 교육을 담당한다. 1차 자료를 취급하고 정보 해독능력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나 아키비스트 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연수회도 개최한다.

③ 연구기요인 『エネルギー史研究』와 자료집 『石炭研究資料叢書』를 간행한다.

3) 장서 구성

① 도서 약 4만 책, 자료 약 7만 점, 마이크로필름 약 1,500릴 등

② 주요 컬렉션

- 미쓰이(三池)노조기관지 「みいけ」 4795매: 전후 미쓰이・미이케(三池)노동조합의 기관지.
-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사진: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에 게재된 77점의 탄광 사진
- 탄광찰(炭鉱札): 탄광경영자가 발행했던 사찰(私札)
- 탄광 관계 그림엽서: 2차대전 전후 탄광 풍경을 묘사한 그림엽서
- 해리슨(ハリソン)문고 242책: 영국 노동사가 로이드 해리슨 교수의 컬렉션
- 미쓰비시(三菱)・하시마(端島)자료 5,083책: 미쓰비시・하시마광업소 기증자료
- 미이케탄광노동조합자료 5,923책: 미이케탄광노동조합 기탁자료
- 아소가(麻生家)문서 15,967책: 근세후기부터 전후 폐산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의 자료로 지쿠호(筑豊) 고산케(御三家) 중 하나인 아소가의 기업활동 분석 및 지쿠호 지역사나 석탄산업 발달사를 연구에 필수자료이다. 장부류(1897~1942년)와 서간 등이 대표적이며, 약 100평 정도의 공간을 차지한다. 아소가는 문제발언으로 유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의

집안으로 규슈 지역 대표적인 석탄재벌이었다. 이 자료들은 현역 정치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일부는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할 정도로 비공개로 관리해오고 있다. 아소가에서 경영하던 탄광에는 한국인 노동자도 상당수가 강제 징용됐기 때문에 공개시 어느 정도의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③ 소장 자료는 대부분 『九州石炭鑛業史資料目錄』(전 12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④ 탄광화상 DB를 관리한다.*

(2) 규슈문화사자료부문(九州文化史資料部門)

규슈문화사자료부문은 1934년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설치된 규슈문화사연구소를 시작으로, 문학부부설 규슈문화사연구소, 대학원비교사회문화연구과 규슈문화사자료실을 거치면서 수집해온 역사자료를 이어받아 설립되었다. 규슈를 중심으로 서(西)일본 각지의 다이묘(大名)・쇼야(庄屋)문서, 상가(商家)문서 등을 소장중이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 조직 구성: 겸임교원(2명), 전임교원(1명)

2) 장서 구성

① 약 40만점의 고문서・고기록, 마이크로필름을 소장중이다. 대표적으로 나가누마(長沼)문고 등 27개의 고문서 컬렉션과 히로세가(廣瀨家)문서, 나베시마가(鍋島家)문서 등 마이크로필름이 있다.

② 다양한 중세자료,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번정(藩政)사료, 덴료(天領; 막부 직할지) 관계사료, 나가사키・류큐 관계사료 등 근세자료, 지가장(地価帳) 등 근대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③ 자치체사(自治体史) 컬렉션: 북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전역을 포괄하는 서일본 지역의 대표적인 사료센터이다.

3) 주요 업무

① 사료의 수집, 정리, 보존, 공개가 주요 업무이다.

② 정리: 사료목록 23책을 발간한다.

③ 디지털화: 부속도서관 연구개발실, 총합연구박물관 등과 협력해 추진중이다.

- 주요 소장 사료 목록: http://bunkashi.lit.kyushu-u.ac.jp/siryou.htm
- 목록 DB: http://bunkashi.lit.kyushu-u.ac.jp/search/index.html
- 디지털 전시: http://bunkashi.lit.kyushu-u.ac.jp/digital.html

④ 보존방법개선: 고문서 진공보존 실시, 중성지포장, 보존상자 도입, 열화 필름 세정, 복사 필름 작성 등을 추진한다.

---

* 주 19를 참조.

⑤ 보존, 열람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존시스템을 구축한다.

⑥ 학외 연구자와의 협력: 규슈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연구를 수행한다.

- 『九州天領の研究』, 『佐賀藩の總合研究』, 『九州と南西諸島にかかわる關係史的研究』 등 발행

⑦ 주요 간행물

-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1951년 창간, 현재 52호)
- 『九州史料叢書』(1955~1967년) 41책
- 『九州文化史研究所史料集』(1997~2005년) 8책

⑧ 인근 사료소장 기관과 제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교육, 생애교육에 공헌한다.

(3) 법제자료부문(法制資料部門)

법학연구원 법제사자료실에서 법학부 소장 도서 중 법제사 관련 고문서와 고도서 자료를 별치하기 위한 자료실을 1973년 설치했고, 현재 약 5,000점의 법제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 경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분명치 않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1930~1949년 사이 일본법제사 강좌를 담당해온 고(故) 카네다 헤이이치로(金田平一郎) 교수가 중심이 되어 수집한 자료이다. 법제사 자료는 1973년 이후에는 추가된 자료가 없어, 현재 재정비가 완료된 목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1) 조직 구성: 겸임교원(2인)이 담당한다.

2) 장서 구성

① 막부법령과 재판례, 다이묘(大名)법령과 재판례,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 기록 등 에도(江戶)시대 법제사 관련 고문서나 기록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후쿠오카번의 법제에 관한 자료가 많다. 이외에도 에도시대 북(北)규슈 지역의 쇼야문서, 메이지(明治)헌법성립사 관계 자료가 있다.

② 주요 컬렉션

- 화철(和綴) 고문서・도서자료 약 1,900점 (약 8,000책)
- 쇼야문서 등 가장(家藏) 고문서류 약 30건 (문서류 약 2,700점)
- 현・군사지(縣郡史誌) 등 활자도서자료 약 200점 (약 300책)
- 고찰(高札), 짓테(十手) 등 표본자료 약 30점

(4) 고문서・고기록부문(古文書・古記錄部門)

1) 조직 구성: 인문과학연구원 일본사학강좌 소속 겸임교원(2인)이 담당한다.

2) 주요 업무

① 부속도서관연구개발실 조사・연구・개발활동 중 '귀중자료의 이미지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고서・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이관, 고문서・고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수집・조사・연구・정비・보존활동을 담당한다.

② 주로 교내 학내 고문서・고기록의 확인 작업을 담당한다.

③ 대상 자료

- 부속도서관 소장 '다케타(竹田)문고', '쿠와키(桑木)문고', 공학부 도서실 소장 '광산관계자료', 롯폰마쓰 분관 소장 '히가키(檜垣)문고', 문학부도서실 소장 자료 등
- 위에 언급한 기록자료관 세 부문에 소장중인 고문서・고기록 이외의 자료

4. 맺음말

규슈대학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부속도서관 또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에서는 대체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내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2010년에는 특별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여전히 일본의 지방 국립대학 1년 자료구입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해외 교수 초빙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도서관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 운영은 우리 도서관도 벤치마킹할만한 지점일 것 같다. 도서관 내・외의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설기록자료관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측과의 연락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서로의 도서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고문헌자료실 근무자가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규슈대학 측에서 규슈대학의 고문헌 담당기관인 기록자료관을 방문 코스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고문헌은 고서를 의미하기는 하나 고문서와 고기록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록자료관은 우리 도서관의 고문헌자료실과는 별개의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규슈대학은 별도의 고서 담당 부서를 운용하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

다만 출장을 통해 그들이 수집해 놓은 엄청난 자료의 양에는 충분히 압도되었다. 서울대학

*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고문헌자료실은 대부분 고서만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고문헌자료실'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 특히 'rare books and archival collections'라는 영문 명칭은 굳이 번역한다면 '귀중서 및 기록물 보관소'에 해당하며, 'rare books collections'는 현재의 귀중서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archival collections'는 현재의 고문헌자료실과는 무관하다.

교중앙도서관은 예산상의 이유로 최신 자료의 구입 (혹은 임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고서나 고문헌 자료의 수집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재 소장중인 고전적도 기존에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 이관받은 장서나 일사, 가람 등 대학 초창기 국학 연구자의 개인문고를 제외하면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컬렉션이 변변치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규슈대학의 경우 다양한 양의 기록사료를 확보하였는데, 실제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경쟁력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는 기록사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록은 유일본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수집처를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충분히 대학도서관의 랜드마크로 삼을만하다. 우리의 수집정책 또한 정리가 용이한 출판자료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록으로는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어떤 모습을 인상 깊게 보고 갔는지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발행한 『研究開發室年報』에 실린 「韓國にみる圖書館の新しい動き」라는 보고서의 서울대학교 부분만을 따로 정리해 보았다. 대체로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열거한 모든 요소를 그들이 벤치마킹해야할 요소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 기간 동안 호의를 베풀어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임직원 일동에게 감사를 표한다.

[부록]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1. 쾌적한 공간 지향

○ Learning Commons / Information Commons: 만화 같은 가벼운 자료들을 배열한 북카페 등을 설치했다.

○ 멀티미디어룸에서 최신 영화 DVD 감상이 가능하다.

2. 카운터

○ 도서관 입구가 4층에 있고, 입구를 들어서면 3개의 카운터가 있다. 이 외에도 각 자료실별로 카운터가 존재한다.

- 이용자 전면에 세세하게 직원을 배치한 것을 도서관이 그만큼 이용자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열람실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서가나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열람실을 중시한다.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열람실은 2천석(학생수 1만 8천명) 정도인 반면,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은 6천석(학생수 2만 3천명)이다.

○ 24시간 개방열람실, 좌석예약단말기, 사물함 월 단위 대여 등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이다.

○ 향후 일본도 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휴대전화 서비스

○ 모바일 ID 서비스

○ 세 가지 방법으로 입관이 가능한 게이트 리더기

○ 검색결과 전송 서비스

---

* 沙由香 外, 「韓國にみる圖書館の新しい動き」,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年報 2008/2009』, pp. 46~48를 참조.

** 인포데스크 폐지 이전의 풍경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이용자를 상대하는 창구가 너무 많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대출 창구 외에도, 고문헌자료실, 비도서자료실, 참고자료실보존서고, 연속간행물자료실보존서고, 단행본자료실보존서고 등 각기 다른 신청 창구를 갖는 현재의 다양한 폐가제 서고의 구분은 자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에는 자료실은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카운터와 열람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5. 기타

○ 다언어 지원이 가능한 자동대출기

○ 서가에 없는 도서 요청 서비스

○ 기업 광고가 부착된 PC 단말기. 현관의 기증자 명판

- 기증・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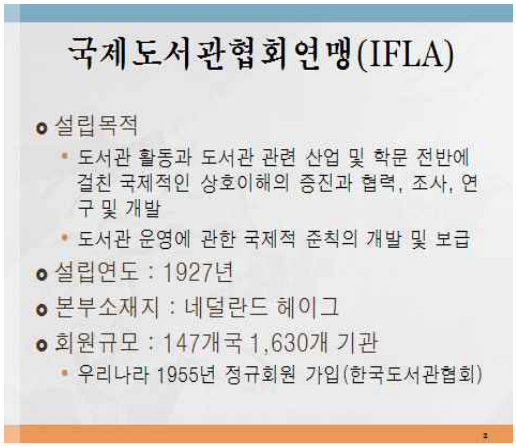
※ 한편, 효도 켄시(兵藤健志) 씨는 자체 해외연수보고회에서 개인적으로 연수기간동안 김영애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은 통상 2~3년 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대는 국제교류업무를 15년 이상 한 분이 담당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해외 도서관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국제교류업무 담당 창구의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 兵藤健志, 「海外研修報告－ソウル大學校図書館」,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年報 2008/2009』, p. 45.

IFLA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출장보고

김 기 태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1



2

3

4

한국어참가자모임

- 8월 10일 (화) 18:00
- IFLA 공식프로그램의 일부, 2009년 밀라노 대회 이후 2번째 개최
-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참석, 이은철 한도협회장, 모철민 국중관장, 한상완 전위원장, 프로그램 발표자, 포스터세션 발표자, 한국전시관계자 등 소개
- Ellen Tise IFLA 회장 참석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텔렌소대학 도서관장
  - **"한국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대단함. 이를 모델로 세계변화 주도해야"**
  - **"IFLA가 한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는 다른나라 보다 형편이 좋은 한국이 IFLA를 도와야 하는 시대가 왔다"**
- 21:00 한국인의 밤 행사
  - 한국인 참가자 간 담소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

5

Open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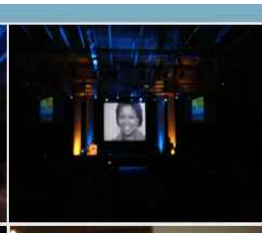
- 8월 11일(수) 11:00~12:00
- Ellen Tise 회장 **"자유로운 지식이용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지식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도서관이 주도해야 한다"**, **"핵심 정보 전달자로서 도서관은 새로운 지식사회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 스웨덴 외무장관과 유엔총회의장 역임한 Yan Eliasson 기조연설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이 세계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인류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2010년 WLIC 조직위원장 Agneta Olsson **"동 대회가 전 세계 도서관의 가교역할은 물론 교류의 장이** 되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스웨덴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바람."
- 혼성 4인조로 구성된 제2의 ABBA그룹이 개막축하 공연

6

IFLA 차기회장 인터뷰

- Ingrid Paren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장
- 이번 대회 주제는 '지식은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도서관의 디지털화'임.
- **도서관은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 지식정보 접근이 차단된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중요한 돌파구 해소 매개체
- 전자책 단말기 킨들에 이어 아이패드의 등장, 구글이나 애플이 세계 지식정보 시장을 장악. **'지식정보는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 도서관은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 디지털화에 따라 이용자들은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저작권의 문제는 충돌우려. 전자책이 확대된다고 종이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지 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 미래의 도서관은 종이 기록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음성,영상 기록물을 보존하는 **종합 기록물 보존소로 발전**
- 디지털화에 따라 도서관끼리 기능이 유사해짐.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이 전공서적을 찾고, 정보전달과 토론의 장으로 기능 제본화, 공공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곳. 이를 **도서관이 기능이 중복되더라도 확대되어야**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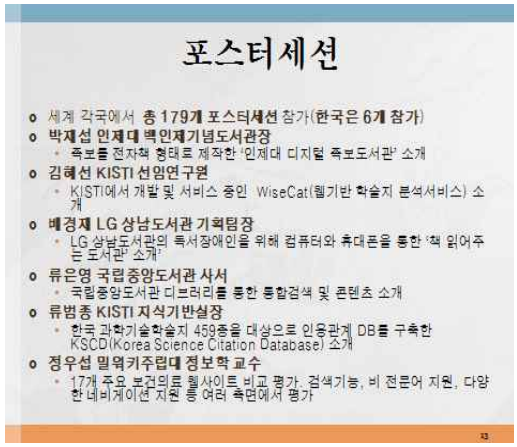
전시회

- 8월 11일(수) ~14일(토) 〈4일간〉
- 도서관 관련 업체, 미국도서관협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등 100여개 기관에서 홍보 관련 부스 설치
- 부대시설로 카페테리아와 인터넷 카페 운영
- 전시개막행사 및 전시파티가 함께 열림.
- 우리나라는 도서 소독 관련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IVS(아이브이에스)의 2개 업체 참여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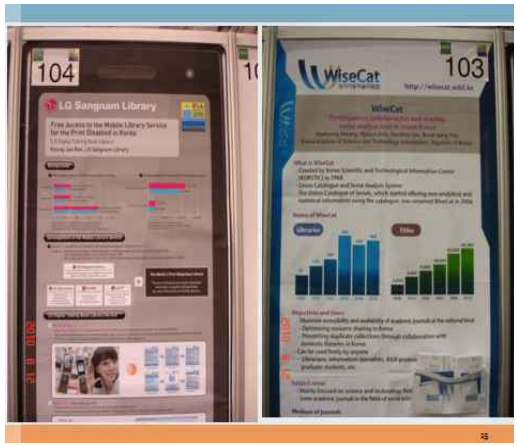
10

11



12

13



14

15

16

프로그램 참가(2)

〈Session 106〉
-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with Management & Marketing
  - Calgary대학 도서관과 문화자원의 주요 조직 그리고 자원의 재편성 진행
  - Mekere 대학의 학문적 성공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과 물추적 연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의 자원으로 도서관 서비스 경험 제시

〈Session 140〉
- FAIFE(Free Access to Information & Freedom of Express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 구글과 사서의 상호작용 : 멕시코의 사례
  -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사이버네비게이션과 정보과학 모멘트 : 저소득 층에서의 예산, 정보대중화
  - 새로운 정보확경의 논점 :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별의 키스

17

프로그램 참가(3)

〈Session 69〉
- Newcomers Session
  - 첫 참가자를 환영하는 모임
  - IFLA 목적과 구성, 2010년 대회개최지에 대한 소개 등

〈Session 101〉
- BM Gates ATLA – award programme
  - 빌게이츠도서관재단2010 배움이 기회제공상 시상식
  -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발한 접근을 통하여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도서관의 혁신적 노력을 인정하여 주는 상으로 금년은 11번째 시상식
  - 그리스 베이라중앙도서관(Veria Central Public Library)이 수상

〈Session 132〉
- National Libraries with CLM
  - 세계주요국가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노력과 최근 국가 동향을 주제로 발표
  - 한국은 지식기반시대의 정보의 공개 접근을 촉진하는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사례 발표

18

스웨덴 도서관(1)

- **국립도서관** : 1개관, 장서 300만권, 연구도서관 업무조정, 1979년부터 일간 신문 마이크로 필름화, 최근 디지털화로 교체 준비 중, 2009년 국립영상기록원 통합
- **대학도서관** : 39개관, 웁살라대학(1477년), 룬드대학(1666), 예테보리대학(1861)
- **공공도서관** : 290개관(2,000개 분관), 554개는 공공과 학교도서관 통합,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 **인구 900만, 연간 주민 1인당 7.6번의 대출(7권)**
- **주립도서관** : 20개관, 납본 도서의 대출과 상호대차 업무 등 소규모 공공도서관 지원, 정부 교부금 지원 지방 75% 정부 25%
- **대출센터 3개관**(스톡홀롬, 말뫼, 우메아의 대규모 시립도서관), **외국어문헌 대출센터 : 1개관(스톡홀롬), 보존도서관 1개관(우메아)**, 주립도서관 시스템 보완
- **전문도서관** : 40개관(200개 분관), 정부 재정 부담, 국립도서관이 관할
- **의학도서관** : 115개관
- **학교도서관** : 4,000개관, 지방 정부가 재정 지원

19

스웨덴 도서관(2)

- **스웨덴은 책을 읽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진 독서 국가**, 겨울이 길고 어두워서 독서에 관심이 많음.(11월부터 3월까지 겨울)
-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읽고 쓰기 능력 수준, 원격교육 매우 발달, 인구 중 60%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 대학생 40만명, 원격교육(9만명)
- 연간 학생1인당 30회 이상 대출, **전자자료 이용으로 대출수는 감소 추세**
- 다양한 책 생산과 효율적인 배포 능력, **1975년부터 도서 출판을 위한 보조금 지원**, 15,000권 출판물 중 800여권이 보조금 지원, 무료로 290개 공공도서관에 연간 25만권 지원
- **공공대출권**
  - **국가는 1954년부터 대출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스웨덴 작가 기금)
  - **스웨덴어로 쓰이거나 번역된 책을 공공 또는 학교도서관 대출 통계에 따라작가, 번역가, 삽화가에게 보상금 지급**(두가지는 제외)
  - 3,100명의 작가와 1,100명의 번역가에게 연 25만원~3,500만원
  - 대출순위는 어린이 도서, 추리소설, 노벨상 수장작 등

20

Libraries Tour

- 볼레뷔그즈 공공도서관 (Bollebygd pubric Library)
- 예테보리 시립도서관(Gothenburg City Library)
- 예테보리 대학도서관(Gothenburg University Library)
- 덴마크 국립도서관(Copenhagen Royal Library)

21

Bollebygd Pubric Library

- 방문일시 : 8월 9일(월) 10:00~12:00
- 장소 : **예테보리 근교 볼레뷔그즈 지역(인구 8,800명)**
- 직원 : 4명(1명은 학교도서관 전담)
- 특징
  - 치과의사가 사용하던 별장을 기부 받아 도서관으로 사용
  - **초중등학교, 대학교, 전문도서관 등 대출카드 공유**
  - 사서직원 4명은 모두 시에서 고용
  -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전 지역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반납시 별도 수수료
  - 연평균 대출책수는 13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 장서 외에 영화 DVD, 음악 CD, 어린이 완구 등 비치
- 홈페이지 : www.bollebygd.se

22

Gothenborg City Library

- 방문일시 : 8월 9일(월) 16:00~18:00
- 장소 : **예테보리 시(인구 50만명)**
- 직원 : 32명(25개 분관 및 2개 이동도서관 미포함)
- 특징
  - **관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카드 공유(무료)**
  - 분실시에는 연락하여 중지하여야 하며, 분실 책임.
  - **1일 이용자 3,000여명**
  - 60여개 언어로 된 단행본 35만권, 저널 외에 음악, 영화 DVD, 컴퓨터 게임자료도 대출 가능
  - 대출기간 3주
- 홈페이지 : www.goteborg.se

23

24

Gothenborg University Library(1)

- 방문일시 : 8월 10일(화)
- 대학 : 학부생 4만명, 교직원 5,100명, 대학원생 2,600명
- **1개 중앙관, 9개 분관(분관 6관, 학습센터 3관)**
- **소장자료 : 270만권**
- **직원 : 179명**
- 개관일
  - **월요일~목요일 : 08:30~20:00**
  - 금요일 : 08:30~19:00
  - 토요일 : 10:00~17:00, 일요일은 휴관
- 1일 평균 방문자 수 : 7,594명
- **연 평균 이용자수 160만명**
- 연 평균 도서 대출 수 : 55만권
- 홈페이지 : www.ub.gu.se

25

Gothenborg University Library(2)

- Central Library(중앙도서관)
  - 예술, 인문과학, 사회과학 관련 문헌 제공, 대부분의 귀중본 보관
- Biomedical Library(생물의학도서관)
  - 의술, 치의학, 생명과학 및 간호학 등의 분야 도서 보유
- Botanical & Environmental Library(식물/환경학도서관)
  - 식물학, 해양 생태학, 환경관련 과학 서적 중심 보유
- Economics Library(경제학도서관)
  - 경제학, 경영 일론, 경영 역사, 정보과학, 법학, 인문 및 경제지리학, 통계학 분야 도서 보유
- Earth Sciences Library(지구과학도서관)
  - 지질학, 해양 지질학, 물리 지질학, 해양학, 환경보호에 관한 도서 보유
- Education Library(교육도서관)
  - 교육학 주제, 교사 교육 및 가정학, 학교 교과서 보유
- Undergraduate & Newspaper Library(대학생신문도서관)
  - 사회대, 경영대, 상대 및 법대 재학생을 위한 도서관, 각 분야 교과서 및 스웨덴 국내외 일간지 제공
- Learning Centre Campus Haga, Learning Centre Campus Linne, Learning Centre Halsovetarbacken(학습센터 3관)
  - 학생, 교사 및 연구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열람만 가능

26

Gothenborg University Library(3)

- Central Library -

- 1861년에 설립된 예테보리 박물관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195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김.
- Manuscripts(기록물)
  - 대략 1,000서가 단위 소장,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파피루스 필사본과 그리스어 라틴어 중세 필사본 소장
  - 중요한 아카이브 컬렉션으로는 18세기 무역에 관한 스웨덴 동인도회사 아카이브 컬렉션이며 일부는 디지털로 이용 가능
- KvinnSam : 성(gender) 연구 국가자원도서관
  - 1958년 '여성 역사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민간주도 설립
  - 1997년에 여성, 남성, 그리고 성 연구를 위한 스웨덴 국립 자원도서관
  - 주요 목표는 성 문제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여성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화
  - **스칸디나비아에서 성에 관련한 최대의 컬렉션 보유**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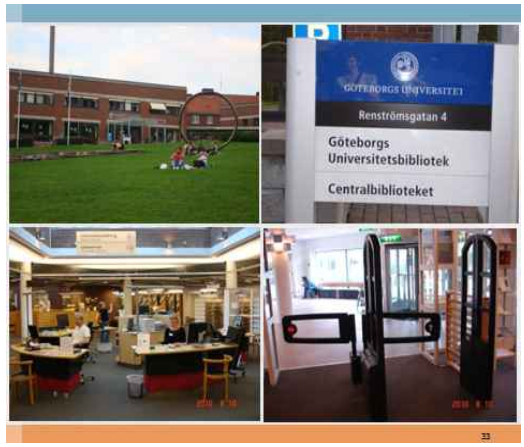
Gothenborg University Library(4)

- Central Library -

- Women's Struggle for Knowledge(KvinnSam 아카이브)
  - 스웨덴 여학교와 여성의 대학 출입을 확립하는 여성해방, 시민권 및 교육의 권리를 다루고 있음.
  - 학교 설립자, 교사, 교육 선구자들의 초상화
  - 1904년 설립된 스웨덴 여자대학 협회 활동 스캔 자료
  - 관련 법안 Full-Text, 정부안 그리고 의회 데이터베이스 등
- Swedish Women's Struggle for Suffrage(KvinnSam 아카이브)
  - 선거권에 대한 투쟁은 1900년 전반에 걸쳐 수십년간 스웨덴 여성운동에 있어 중요한 문제
  - 스웨덴 의회는 1919년까지 총선거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여성 선거권 보장
  - New text, Old documents, 사진 등 스웨덴 여성들의 선거권 투쟁 역사에 관련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28

29



30

Copenhagen Royal Library

- 방문일시 : 8월 16일(월)
- 장소 : **덴마크 북부 코펜하겐 시(인구 51만명)**
- 직원 : **600명(대학도서관 400명, 국가도서관 200명)**
- 특징
  - 1673년에 완공된 건물에, 1968년에 중간 오피스 건물 확장, 1999년에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건물 증축
  - 구관은 도서관 기능에 충실한 반면, 7층짜리 신관은 카페, 식당, 서점, 400석의 연주회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 1781년부터 국가도서관으로 2권 납본 받으며, 500만권의 장서 보유. 20만개의 지도와 800만장의 사진자료, 필사자료 등 소장
  - 덴마크 관련 다국어 자료를 6만 페이지 디지털화
  - 연간 이용자 35만명
  - **1728년 대화재로 유실된 코펜하겐 대학의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27년부터 대학도서관 역할 수행**
- 홈페이지 : www.kb.dk/en

31

32

평 가

- **특성화된 주제의 디지털화 및 출판계 육성**
  - 도서관별 특성화된 주제별 자료 확충 및 디지털화 필요, 저작권 제한과 홍들문제 발생
  - 개인의 특성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있는 출판물이 많아야
  - 공공대출권, 도서출판을 위한 보조금 지원
-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만남**
  - 오래된 건물, 기능이 미흡한 물건 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것과 조화를 이룸.
  - 코펜하겐 왕립도서관의 구관(337년)과 신관(11년)의 조화, 열람실, 목록함 등
-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실용주의**
  - 화려한건물에 투자하기보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콘텐츠에 투자
  - 법정을 개조한 볼레비그즈 공공도서관
- **관종간 경계를 넘어선 도서관 서비스**
  - 이용자들은 재정이나 행정적인 경계를 떠나서 가장 편리하거나 가장 가까운 도서관 이용
  - 한번의 회원권 발급으로 모든 관종의 도서관 자료 대출
  - 허르뇌산드 및 비스퇴(중소도시)에서 같은 건물에 대학, 공공, 주립도서관이 공존
- **언어의 제한으로 국제행사에 적극적 참여 한계**
  - 우리나라는 참여 인원에 비해 공식세션 발표에는 1명분.
  - 현장에서도 관종별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 나가야
  - 스웨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2~3개 외국어 구사, 모든 국민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

33

제 언

- **특화된 주제자료의 디지털화 및 출판계 관심**
  -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특화된 주제자료의 수집 및 디지털화 (예테보리 대학도서관의 KivnnSam 성연구 국자자원도서관 등)
  - 전자책 단말기 등 신기술과 도서관 서비스의 과감한 접목
  - 출판계육성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인프라, 미국에서 매년 1억이면 한국학 모든책(번역서 제외)을 사고 남음.
  - 도서관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변화에 관심
- **도서관 역사자료의 수집 및 보존**
  - 도서관사와 관련된 문서류(국공립대학도서관사 , 첫 회의날짜 '가을'로 표기)
  - 목록함, 목록카드, 타자기, 286컴퓨터 등의 박물관 자료 등
- **대학도서관 개방 확대**
  - 평생교육, 시민강좌 확대로 지역사회 학대 개방
  - 지역 공공도서관과 원론복사 서비스 등 협력, 시 또는 정부의 투자 유도
- **국제적인 도서관 행사에 적극적 참여**
  - 사전 철저한 준비로 적극적 참여, 발표 준비자 인센티브, 영어 쓰는 분위기
  - 세션 주제 발표, 포스터 세션 참여, 도서관 홍보 등
  - 개발도상국 고정출연자, 국제업무 담당자와 다양한 직원들이 함께 경험해야 다양한 아이디어 가능

34

현 황

■ 시설 현황

○ 총괄

(2010.12.31.현재)

구 분		건축년도	연 건 평 (㎡)	좌 석 수 (석)		
				자 료 실	열 람 실	계
중 앙 도 서 관		1974	30,506	598	3,327	3,925
분관	사회과학	1995	2,704	98	486	584
	경 영 학	1993	1,273	46	350	396
	농 학	2004	2,427	129	210	339
	법 학	1983	4,149	38	298	336
	의 학	1974	4,294	110	456	566
	치 의 학	2003	768	36	92	128
	국 제 학	1999	814	127		127
	소 계		46,121	584	1,892	2,476
합 계			76,627	1,173	5,203	6,376

○ 본관 주요시설

구분	위치	면적(㎡)	좌석수	구분	위치	면적(㎡)	좌석수
열람실 1	1층	1335.61	832	단행본자료실	5층	4,950.78	200
열람실 2	2층	907.38	508	학위논문실	〃	375.82	
열람실 3A	3층	852	505	특수자료실	〃	50.5	
열람실 3B	〃	767.65	474	열람실 5	〃	801.45	500
제본실	〃	204.12		고문헌자료실	6층	1,028.75	
전기, 기계실	〃	984.73		귀중본실	〃	112.5	
매점	〃	191.63		단행본자료실	〃	881.43	
가방 보관실	〃	83.68		교수열람실	〃	76.9	
참고자료실	4층	788.51	106	비도서자료실	〃	585.88	
공동학습실	〃	68.75	20	마이크로자료	〃	50	
연속간행물실	〃	414	39	열람실 6	〃	760.16	508
연속간행물서고	〃	1311.75	30	세미나실	〃	88.14	
학과전담실	〃	457.77	30	수서정리과	〃	935.86	
정보검색장비실	〃	18.75		수서정리과장실		37.51	
정보검색실	〃	362.89	83	정보화지원실	〃	296.18	
영상자료실	〃	102.5	38	정보관리과장실		100.06	
중앙홀	4층	520.2		시스템실		112.50	
도서관장실	〃	75		항온항습실		45	
행정지원실	〃	237.16		학위논문실	〃	375.82	
대회의실	〃	112.5	40	참고자료서고		505.61	
합 계							3,925

■ 직원 현황

(2011.2.1.현재)

구 분		중 앙				분 관								총계
		수서정리	정보관리	행정지원	계	사회과학	경영학	농학	법학	의학	치의학	국제학	계	
교원	겸보직교수			1	1	1	1	1	1	1	1	1	7	8
	조 교		1		1				1				1	2
	소 계		1	1	2	1	1	1	2	1	1	1	8	10
일반직	서 기 관	1	1	1	3									3
	사서사무관	1	1		2			1	1	1			3	5
	행 정 주 사			1	1									1
	사 서 주 사	6	9	2	17	1	1	2	1	1	1	1	8	25
	사서주사보	12	9	1	22	1			1	2			4	26
	전산주사보		3		3									3
	사 서 서 기	4	10	1	15					3			3	18
	사서서기보		1		1		1						1	2
	소 계	24	34	6	64	2	2	3	3	7	1	1	19	83
기능직	8급	3	2		5			1	1	1			3	8
	10급		3		3								0	3
	소 계	3	5		8			1	1	1			3	11
기 성 회 직			1	2	3			1			1		2	5
계약직(자체)		2	3	2	7	4	1		2	1	1	2	11	18
총 계		29	44	11	84	7	4	6	8	10	4	4	43	127

* 공로연수(6명), 휴직자(5명), 파견자(1명) 제외

■ 자료 현황

1. 자료정리 도구

(2010. 12. 31. 현재)

국내서			서양서			고서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 DDC 22 · NLMC · 서울대학교 수정판	· KCR 4 · AACR2 (표목)	· Cutter's three figure table	· DDC 22 · NLMC · 서울대학교 수정판	· AACR2	· Cutter's three figure table	· DDC 22 · 서울대학교 수정판 · 경성제국대학 분류표	· AACR2 · KCR 4 (국내서)	· Cutter's three figure table

○ 서울대학교 장서 현황

1. 총괄표

(2010. 12. 31. 현재)

구 분		도서 (책)				비도서 (점)	연속간행물 (종)		
		국내서	국외서	e-Book	계		인쇄	전자	계
중앙도서관		1,350,727	1,119,996	452,270	2,922,993	164,359	3,507	36,461	39,968
분관	사회과학	26,402	56,300	0	82,702	500	250	78	328
	경영학	20,528	25,997	0	46,525	1,600	201	51	252
	농 학	59,258	96,765	0	156,023	1,286	343	65	408
	법 학	41,214	89,991	0	131,205	115	553	1,417	1,970
	의 학	46,521	160,280	833	207,634	773	684	2,809	3,493
	치의학	9,196	16,975	12	26,183	581	182	211	393
	국제학	8,885	39,885	0	48,770	6,018	382	5	387
	소 계	212,004	486,193	845	699,042	10,873	2,595	4,636	7,231
합 계		1,562,731	1,606,189	453,115	3,622,035	175,232	6,102	41,097	47,199
규 장 각		183,580	29	0	183,609	40,008	739	0	739
학과및연구소		296,828	326,537	0	623,365	0	0	0	0
총 계		2,043,139	1,932,755	453,115	4,429,009	215,240	6,841	41,097	47,938

2. 도서

가. 일반도서

(2010.12.31.현재 / 단위:책수)

구 분		중 앙	분 관							소 계	규장각	학과 및 연구소	합 계
			사회과학	경영학	농 학	법 학	의 학	치의학	국제학				
총류	국내서	81,194	1,656	1,391	2,411	554	846	155	161	88,368	2,122		90,490
	동양서	1,646	320	85	378	201	91	0	576	3,297	1		3,298
	서양서	78,556	1,116	1,154	1,176	412	973	43	511	83,941	0		83,941
	계	161,396	3,092	2,630	3,965	1,167	1,910	198	1,248	175,606	2,123	0	177,729
철학	국내서	43,176	816	400	1,151	192	634	61	69	46,499	1,125		47,624
	동양서	849	704	25	225	162	31	0	140	2,136	0		2,136
	서양서	48,466	3,920	626	776	327	527	6	409	55,057	0		55,057
	계	92,491	5,440	1,051	2,152	681	1,192	67	618	103,692	1,125	0	104,817
종교	국내서	29,968	325	86	551	81	375	21	106	31,513	673		32,186
	동양서	550	50	1	117	12	26	0	230	986	0		986
	서양서	20,115	341	7	96	277	154	0	635	21,625	0		21,625
	계	50,633	716	94	764	370	555	21	971	54,124	673	0	54,797
사회과학	국내서	342,779	16,161	8,468	13,848	38,567	2,421	694	6,682	429,620	4,512		434,132
	동양서	4,683	3,129	907	2,790	21,823	216	0	4,864	38,412	0		38,412
	서양서	210,387	33,020	7,395	8,263	62,744	2,287	26	22,938	347,060	0		347,060
	계	557,849	52,310	16,770	24,901	123,134	4,924	720	34,484	815,092	4,512	0	819,604
언어	국내서	32,015	444	105	486	94	201	9	116	33,470	1,102		34,572
	동양서	739	23	4	217	30	16	0	21	1,050	0		1,050
	서양서	31,522	566	24	210	117	274	4	92	32,809	0		32,809
	계	64,276	1,033	133	913	241	491	13	229	67,329	1,102	0	68,431
순수과학	국내서	52,537	383	241	5,524	37	2,633	90	9	61,454	225		61,679
	동양서	794	21	62	3,654	4	234	0	19	4,788	0		4,788
	서양서	211,723	2,092	699	27,160	50	12,240	61	64	254,089	0		254,089
	계	265,054	2,496	1,002	36,338	91	15,107	151	92	320,331	225	0	320,556
응용과학	국내서	201,440	1,852	8,371	26,518	132	28,906	7,804	258	275,281	289		275,570
	동양서	1,082	488	1,066	12,259	26	11,706	1,484	535	28,646	0		28,646
	서양서	150,853	2,151	13,069	33,529	206	128,017	14,975	941	343,741	0		343,741
	계	353,375	4,491	22,506	72,306	364	168,629	24,263	1,734	647,668	289	0	647,957
예술	국내서	68,812	411	165	2,433	82	414	61	119	72,497	1,524		74,021
	동양서	2,652	28	6	541	17	21	0	292	3,557	0		3,557
	서양서	48,796	731	92	1,265	22	174	0	464	51,544	0		51,544
	계	120,260	1,170	263	4,239	121	609	61	875	127,598	1,524	0	129,122

문학	국내서	140,512	1,698	839	4,286	231	4,762	255	182	152,765	7,039		159,804
	동양서	2,561	334	5	589	43	162	0	76	3,770	0		3,770
	서양서	83,470	488	64	669	142	312	1	1,185	86,331	0		86,331
	계	226,543	2,520	908	5,544	416	5,236	256	1,443	242,866	7,039	0	249,905
역사	국내서	88,988	2,656	462	2,050	755	806	46	1,183	96,946	13,676		110,622
	동양서	5,125	991	37	675	247	137	7	1,055	8,274	0		8,274
	서양서	70,344	4,332	129	725	738	240	1	4,360	80,869	0		80,869
	계	164,457	7,979	628	3,450	1,740	1,183	54	6,598	186,089	13,676	0	199,765
소계	국내서	1,081,421	26,402	20,528	59,258	40,725	41,998	9,196	8,885	1,288,413	32,287	0	1,320,700
	동양서	20,681	6,088	2,198	21,445	22,565	12,640	1,491	7,808	94,916	1	0	94,917
	서양서	954,232	48,757	23,259	73,869	65,035	145,198	15,117	31,599	1,357,066	0	0	1,357,066
	계	2,056,334	81,247	45,985	154,572	128,325	199,836	25,804	48,292	2,740,395	32,288	0	2,772,683
고문헌	국내서	268,428					4,523			272,951	151,293		424,244
	동양서	0					0			0	28		28
	서양서	133,571					1,685			135,256	0		135,256
	계	401,999					6,208			408,207	151,321	0	559,528
정리중	국내서	878				489	0		0	1,367	0		1,367
	동양서	1,284			7	573	0		145	2,009	0		2,009
	서양서	10,228	1,455	540	1,444	1,818	757	367	333	16,942	0		16,942
	계	12,390	1,455	540	1,451	2,880	757	367	478	20,318	0	0	20,318
합계	국내서	1,350,727	26,402	20,528	59,258	41,214	46,521	9,196	8,885	1,562,731	183,580	296,828	2,043,139
	동양서	21,965	6,088	2,198	21,452	23,138	12,640	1,491	7,953	96,925	29	62,161	159,115
	서양서	1,098,031	50,212	23,799	75,313	66,853	147,640	15,484	31,932	1,509,264	0	264,376	1,773,640
	계	2,470,723	82,702	46,525	156,023	131,205	206,801	26,171	48,770	3,168,920	183,609	623,365	3,975,894

나. e-Book

(2010. 12. 31. 현재 / 단위: 책수)

구 분	중 앙	분 관							소 계	규장각	학과 및 연구소	합 계
		사회과학	경영학	농 학	법 학	의 학	치의학	국제학				
국 내	10,930	0	0	0	0	0	0	0	10,930	0	0	10,930
국 외	441,340	0	0	0	0	833	12	0	442,185	0	0	442,185
계	452,270	0	0	0	0	833	12	0	453,115	0	0	453,115

3. 비도서

(2010. 12. 31 .현재)

구 분		마이크로필름 (롤)	마이크로피시 (매)	CD / CR자료 (매)	슬라이드필름 (SET)	비디오테이프 (점)	녹음테이프 (개)	CD / AVC (매)	DVD /LD (매)	CD ROM (매)	지도 (매)	악보 (매)	고문서 (매)	족판 (장)	컴퓨터디스켓 (점)	정리중 (점)	합 계
중앙도서관		11,232	68,341	3,497	5	2,957	114	3,602	11,610	0	1,958	4,278	50,690	0	0	6,075	164,359
분관	사회과학	0	0	0	0	354	2	2	44	98	0	0	0	0	0	0	500
	경영학	0	0	0	0	25	5	24	202	1,343	0	0	0	0	1	0	1,600
	농 학	0	6	119	0	98	4	50	999	0	0	0	0	0	10	0	1,286
	법 학	0	6	4	0	4	0	10	3	77	0	0	0	0	11	0	115
	의 학	138	22	97	57	292	0	61	106	0	0	0	0	0	0	0	773
	치의학	0	0	45	1	534	0	0	1	0	0	0	0	0	0	0	581
	국제학	0	2,594	0	0	2,316	164	443	356	145	0	0	0	0	0	0	6,018
	소 계	138	2,628	265	58	3,623	175	590	1,711	1,663	0	0	0	0	22	0	10,873
합 계		11,370	70,969	3,762	63	6,580	289	4,192	13,321	1,663	1,958	4,278	50,690	0	22	6,075	175,232
규 장 각		21,655	0	0	0	9	0	18	38	3	0	0	464	17,821	0	0	40,008
총 계		33,025	70,969	3,762	63	6,589	289	4,210	13,359	1,666	1,958	4,278	51,154	17,821	22	6,075	215,240

* CD 또는 DVD는 Database로 취급되지 않는 단품 자료

4. 연속간행물

가. 인쇄자료

(2010.12.31.현재 / 단위:종수)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신 문		
					동 양			서 양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중앙도서관		242	771	1,013	256	332	588	1,740	166	1,906	2,238	1,269	3,507	29	0	29
분관	사회과학	40	38	78	5	1	6	155	11	166	200	50	250	5	0	5
	경영학	47	51	98	0	0	0	97	6	103	144	57	201	5	0	5
	농 학	98	56	154	80	30	110	79	0	79	257	86	343	0	1	1
	법 학	35	121	156	27	47	74	283	40	323	345	208	553	9	3	12
	의 학	10	158	168	0	14	14	430	72	502	440	244	684	0	0	0
	치의학	0	45	45	4	9	13	109	15	124	113	69	182	4	0	4
	국제학	25	101	126	35	60	95	102	59	161	162	220	382	13	7	20
	소 계	255	570	825	151	161	312	1,255	203	1,458	1,661	934	2,595	36	11	47
합 계		497	1,341	1,838	407	493	900	2,995	369	3,364	3,899	2,203	6,102	65	11	76
규 장 각		0	739	739	0	0	0	0	0	0	0	739	739	0	0	0
총 계		497	2,080	2,577	407	493	900	2,995	369	3,364	3,899	2,942	6,841	65	11	76

나. 전자자료

(2010.12.31.현재 / 단위: 종수)

구 분		e-Journal			Web-DB			합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중앙도서관		3,429	32,925	36,354	13	94	107	3,442	33,019	36,461
분관	사회과학	0	77	77	0	1	1	0	78	78
	경영학	0	37	37	9	5	14	9	42	51
	농 학	0	64	64	0	1	1	0	65	65
	법 학	0	1,412	1,412	1	4	5	1	1,416	1,417
	의 학	0	2,782	2,782	0	27	27	0	2,809	2,809
	치의학	0	210	210	0	1	1	0	211	211
	국제학	0	3	3	0	2	2	0	5	5
	소 계	0	4,585	4,585	10	41	51	10	4,626	4,636
합 계		3,429	37,510	40,939	23	135	158	3,452	37,645	41,097

5. 자료 등록 및 제적 현황

가. 총괄

(2010.12.31.현재 / 단위: 책수)

구 분		등 록 자 료																제 적 자 료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중앙도서관		23,388	15,686	3,571	42,645	3,974	1,268	1,492	6,734	28,781	2,122	7,306	38,209	56,143	19,076	12,369	87,588	186	2	25	213
분관	사회과학	271	793	187	1,251	8	37	30	75	1,857	68	647	2,572	2,136	898	864	3,898	117	0	1	118
	경영학	542	266	704	1,512	4	1,112	0	1,116	1,471	40	592	2,103	2,017	1,418	1,296	4,731	0	0	0	0
	농 학	470	1,005	267	1,742	7	0	330	337	1,450	125	457	2,032	1,927	1,130	1,054	4,111	0	0	0	0
	법 학	2,749	1,632	669	5,050	706	492	419	1,617	5,549	286	1,226	7,061	9,004	2,410	2,314	13,728	5	0	1	6
	의 학	761	2,066	1	2,828	24	91	0	115	2,695	204	9	2,908	3,480	2,361	10	5,851	0	0	0	0
	치의학	363	250	0	613	15	0	12	27	477	3	304	784	855	253	316	1,424	0	0	0	0
	국제학	57	397	617	1,071	157	45	88	290	568	294	448	1,310	782	736	1,153	2,671	0	0	0	0
	소 계	5,213	6,409	2,445	14,067	921	1,777	879	3,577	14,067	1,020	3,683	18,770	20,201	9,206	7,017	36,414	122	0	2	124
합 계		28,601	22,095	6,016	56,712	4,895	3,045	2,371	10,311	42,848	3,142	10,989	56,979	76,344	28,282	19,376	124,012	308	2	27	337
규 장 각		2,363	1,523	0	3,886	0	0	0	0	0	0	0	0	2,363	1,523	0	3,886	0	0	0	0
학과및연구소		0	7,169	0	7,169	0	2,858	0	2,858	0	4,117	0	4,117	0	14,144	0	14,144	0	0	0	0
총 계		30,964	30,787	6,016	67,767	4,895	5,903	2,371	13,169	42,848	7,259	10,989	61,096	78,707	43,949	19,376	142,032	308	2	27	337

나. 단행본

(2010.12.31.현재 / 단위: 책수)

구 분		국 내 서			국 외 서						합 계		
					동 양 서			서 양 서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중앙도서관		23,388	15,686	39,074	3,974	1,268	5,242	28,781	2,122	30,903	56,143	19,076	75,219
분관	사회과학	271	793	1,064	8	37	45	1,857	68	1,925	2,136	898	3,034
	경영학	542	266	808	4	1,112	1,116	1,471	40	1,511	2,017	1,418	3,435
	농 학	470	1,005	1,475	7	0	7	1,450	125	1,575	1,927	1,130	3,057
	법 학	2,749	1,632	4,381	706	492	1,198	5,549	286	5,835	9,004	2,410	11,414
	의 학	761	2,066	2,827	24	91	115	2,695	204	2,899	3,480	2,361	5,841
	치의학	363	250	613	15	0	15	477	3	480	855	253	1,108
	국제학	57	397	454	157	45	202	568	294	862	782	736	1,518
	소 계	5,213	6,409	11,622	921	1,777	2,698	14,067	1,020	15,087	20,201	9,206	29,407
합 계		28,601	22,095	50,696	4,895	3,045	7,940	42,848	3,142	45,990	76,344	28,282	104,626
규 장 각		2,363	1,523	3,886	0	0	0	0	0	0	2,363	1,523	3,886
학과및연구소		0	7,169	7,169	0	2,858	2,858	0	4,117	4,117	0	14,144	14,144
총 계		30,964	30,787	61,751	4,895	5,903	10,798	42,848	7,259	50,107	78,707	43,949	122,656

6. 자료 정리 현황

(2010.12.31.현재 / 단위: 책수)

구 분		정 리 자 료																정리중 자료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중앙도서관		23,220	19,774	3,571	46,565	2,799	1,914	1,492	6,205	19,167	3,619	7,306	30,092	45,186	25,307	12,369	82,862	878	1,284	10,228	12,390
분관	사회과학	271	793	187	1,251	8	59	30	97	402	92	647	1,141	681	944	864	2,489	0	0	1,455	1,455
	경영학	542	266	704	1,512	4	1,112	0	1,116	931	40	592	1,563	1477	1418	643	4191	0	0	540	540
	농 학	387	926	267	1,580	83	79	330	492	6	125	457	588	476	1,130	1,054	2,660	0	7	1,444	1,451
	법 학	2,260	1,632	669	4,561	133	492	419	1,044	3,731	286	1,226	5,243	6,124	2,410	2,314	10,848	489	573	1,818	2,880
	의 학	761	2,066	1	2,828	24	91	0	115	1,988	204	9	2,151	2,723	2,361	10	5,094	0	0	757	757
	치의학	363	250	0	613	16	0	12	28	109	3	304	416	488	253	316	1,057	0	0	367	367
	국제학	57	397	617	1,071	12	45	88	145	235	294	448	977	304	736	1,153	2,193	0	145	333	478
	소 계	4,641	6,330	2,445	13,416	280	1,878	879	3,037	7,352	1,044	3,683	12,079	12,273	9,252	6,354	28,532	489	725	6,714	7,928
합 계		27,861	26,104	6,016	59,981	3,079	3,792	2,371	9,242	26,519	4,663	10,989	42,171	57,459	34,539	19,376	111,394	1,367	2,009	16,942	20,318
규 장 각		2,363	1,523	0	3,886	0	0	0	0	0	0	0	0	2,363	1,523	0	3,886	0	0	0	0
학과및연구소		0	7,169	0	7,169	0	2,858	0	2,858	0	4,117	0	4,117	0	14,144	0	14,144	0	0	0	0
총 계		30,224	34,796	6,016	71,036	3,079	6,650	2,371	12,100	26,519	8,780	10,989	46,288	59,822	50,226	19,376	129,424	1,367	2,009	16,942	20,318

7. 2010년도 제본 현황

(2010.12.31.현재 / 단위: 책수)

구 분		자체 제본				외주 제본				합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중앙도서관		5,500	1,177	1,177	7,854	3,571	1,492	7,306	12,369	9,071	2,669	8,483	20,223
분관	사회과학	68	15	15	98	187	30	647	864	255	45	662	962
	경영학					704	0	592	1,296	704	0	592	1,296
	농 학					267	330	457	1,054	267	330	457	1,054
	법 학	38	9	8	55	669	419	1,226	2,314	707	428	1,234	2,369
	의 학					1	0	9	10	1	0	9	10
	치의학					0	12	304	316	0	12	304	316
	국제학	31	7	7	45	617	88	448	1,153	648	95	455	1,198
	소 계	137	31	30	198	2,445	879	3,683	7,007	2,582	910	3,713	7,205
합 계		5,637	1,208	1,207	8,052	6,016	2,371	10,989	19,376	11,653	3,579	12,196	27,428

■ 예산 현황

○ 2010년 도서관 예산

(2010.12.31.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일반회계	기 성 회 회 계	발전기금	간 접 비	연 구 비	합 계
자료구입비	14,650,000	0	1,737,737	1,700,000	315,000	18,402,737
사고이월액						
합 계	14,650,000		1,737,737	1,700,000	315,000	18,402,737

※ 자료구입비(일반회계)에 교육기반조성 장서확충비 139억 포함

○ 2010년 자료구입 예산

(2010.12.31.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	간접비	연구비	합 계
중앙도서관		12,544,500	0	1,737,737	1,700,000	315,000	16,297,237
분관	사회과학	290,988	0	0	0	0	290,988
	경영학	163,228	0	0	0	0	163,228
	농 학	419,172	0	0	0	0	419,172
	법 학	421,412	0	0	0	0	421,412
	의 학	639,700	0	0	0	0	639,700
	치의학	121,000	0	0	0	0	121,000
	국제학	50,000	0	0	0	0	50,000
	소 계	2,105,500	0	0	0	0	2,105,500
합 계		14,650,000	0	1,737,737	1,700,000	315,000	18,402,737

○ 2010년 자료구입예산 집행 현황

(2010.12.31.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단 행 본			연속간행물			합 계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일반회계	5,150,000	5,150,000	0	9,500,000	9,500,000	0	14,650,000	14,650,000	0
기성회회계	0	0	0	0	0	0	0	0	0
발전기금	900,000	888,934	11,066	837,737	770,820	66,917	1,737,737	1,659,754	77,983
간 접 비	0	0	0	1,700,000	1,670,826	29,174	1,700,000	1,670,826	29,174
연 구 비	0	0	0	315,000	315,000	0	315,000	315,000	0
합 계	6,050,000	6,038,934	11,066	12,352,737	12,256,646	96,091	18,402,737	18,295,580	107,157

■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11.1.31.현재)

분		장서수 (책)	서지DB						전거DB (레코드)	전문DB (페이지)
			구 축 계		2010년 구축량		정 리 중			
			책 수	레코드	책 수	레코드	책 수	레코드		
중앙도서관		2,472,291	2,471,409	1,128,806	82,882	50,990	11,483	8,903	416,623	12,955,734
분관	사회과학	83,462	83,004	48,587	4,661	3,163	166	156		
	경영학	46,848	52,932	33,194	3,784	2,649	0	0		
	농 학	155,469	146,780	76,895	3,519	2,376	340	325		
	법 학	131,228	128,886	54,085	11,092	6,146	4	4		
	의 학	207,121	196,544	45,241	5,199	2,268	0	0		
	치의학	26,171	26,745	10,143	815	645	49	21		
	국제학	48,848	50,691	33,146	2,763	1,864	1	1		
	소 계	699,147	685,582	301,291	31,833	19,111	560	507	0	0
합 계		3,168,920	3,156,991	1,430,097	114,715	70,101	12,043	9,410	416,623	12,955,734
규 장 각		183,892	223,671	44,904	4,167	2,670	105	25		
학과및연구소		623,868	616,566	308,700	14,611	10,424	22,552	14,403		
총 계		3,982,198	3,997,228	1,783,701	133,493	83,195	34,700	23,838	416,623	12,955,734

■ 이용 현황

○ 시설 이용 현황

(2010.12.31.현재)

구 분		2009						2010					
		개관일수	입관자수			관외대출	질의응답	개관일수	입관자수			관외대출	질의응답
			자료실	열람실	계				자료실	열람실	계		
중앙도서관		354	970,404	3,495,212	4,465,616	609,748	47,906	365	951,753	3,324,756	4,276,509	620,454	27,864
분관	사회과학	355	65,945	167,550	233,495	23,832	5,855	360	75,836	192,683	268,512	23102	5,273
	경영학	362	271,622	292,470	564,092	12,253	4,732	360	55,151	293,120	348,271	12,283	3,264
	농 학	360	35,400	88,500	123,900	15,917	3,968	360	39,225	90,102	129,327	19,117	4,112
	법 학	270	267,070	162,000	429,070	12,373	3,577	362	81,150	188,240	269,390	15,160	6,750
	의 학	357	130,411	320,959	451,370	22,107	17,127	260	138,262	350,964	489,226	27,221	22,556
	치의학	297	41,332		41,332	4,529	5,901	296	40,997		40,997	4,316	4,881
	국제학	250	34,565		34,565	3,236	5,802	256	33,991		33,991	3,664	5,920
	소 계		846,345	1,031,479	1,877,824	94,247	46,962		464,612	1,115,109	1,579,714	104,863	52756
합 계			1,816,749	4,526,691	6,343,440	703,995	94,868		1,416,365	4,439,865	5,856,223	725,317	80,620

○ 상호 이용 실적

1. 문헌복사 이용(상호대차)

(2010.12.31.현재 / 단위:건)

구 분		2008		2009		2010	
		의 뢰	제 공	의 뢰	제 공	의 뢰	제 공
중앙도서관		4,667	6,721	6,076	8,538	5,435	9,055
분관	사회과학		31		43	13	13
	경영학		8		9		3
	농 학	68	469	63	429	72	45
	법 학	125	113		79		75
	의 학	869	5,754	714	4,661	484	2,981
	치의학	67	1,876	36	1,321	38	936
	국제학	8	12	32	47	9	15
	소 계	1,137	8,263	845	6,589	616	4,068
합 계		5,804	14,984	6,921	15,127	5,966	13,166

2. 타관 방문 및 이용자수

(2010.12.31.현재 / 단위:명)

구 분		2008		2009		2010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중앙도서관		1,172	77,655	1,211	97,404	1,157	99,181
분관	사회과학		155		232		250
	경영학		86		96		52
	농 학		1,359		742		860
	법 학		113		151		205
	의 학		405		361		453
	치의학		192		188		263
	국제학				231		252
	소 계		2,310		2,001		2,480
합 계		1,172	79,965	1,211	99,405	1,157	103,996

3. 온라인 서비스

(2010.12.31.현재 / 단위:건)

내 용	연 도			비 고
	2009	2009	2010	
SOLARS (도서관소장자료검색)	792,742	6,395,271	6,302,524	
SOLARSnet (도서관 홈페이지)	21,465,288	20,161,346	19,259,754	
학위논문 PDF서비스	621,207	612,411	614,413	DRM적용 (학외이용 제한)
해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20,193종 Database 165종 e-Book 249,026책	전자저널 28,312종 Database 202종 e-Book 248,251책	전자저널 40,939종 Database 158종 e-Book 453,115책	

주 요 소 식

1. 중앙도서관

가. 수서정리과

○ 2010년 교육기반조성(특별예산) 장서확충 사업

- 예산 : 13,900백만원
- 목적 : 법인화 대비 세계 상위권 대학 수준의 학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
- 주요 추진 경과
  - · 2010. 5. 30 : 장서확충 특별예산 배정 대비 학과(부)별 추천도서 접수 완료(수서정리과)
  - · 2010. 7. 23 : 기획도서 선정 작업 완료(정보관리과)
  - · 2010. 7. 23 : 분관별 추천도서 가격조사 완료(각 분관)
  - · 2010. 8. 5 : 구입 예정 도서목록 DB화 작업 완료(수서정리과)
  - · 2010. 10. 25 : 장서확충 특별사업비 13,900백만원 배정
  - · 2010. 12. 30 : 장서확충 특별예산 집행 완료

- 내용 :
  - · 교내 전 학과(부)로부터의 추천에 의한 연구 및 강의용 핵심 장서 확보
  - · 학과 및 자료실의 지속적인 구입 요청 자료인 비도서자료의 대폭 확충
  - · 디지털 정보이용 환경에 부응한 e-Book의 대거 확충
  - ·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Archive구입 및 원문DB 구독

- 단행본(비도서 포함) 장서확충 실적

구분	자료 유형	책(점)수	장서 증가율
단행본	국내서	25,727책	전년 대비 25% 증가
	외국서	41,523책	" 335% 증가
	e-Book	204,663책	" 204,663책 증가
	소 계	271,913책	
비도서	CD/DVD/MF	5,696점	전년 대비 285% 증가 '09(1,991점) → '10(7,670점)
	악보	1,657점	
	지도	317점	
	소 계	7,670점	
합 계		279,583책(점)	

- 연속간행물 확충 실적
  · Archive 자료 : Wiley-Blackwell 등 22종
  · 신규 데이터베이스 : Academic OneFile 등 25종

○ '김양곤 도서기금' 학술정보 확충 사업
- 예산 : 1억원
- 기금 출연자 : 김양곤((주)시우피앤디 대표이사)
- 내용
  · 서양 근대 최초의 백과사전인 18세기 프랑스 디드로와 달랑베르 <백과전서> 및 루이 모레리 <백과대사전> 구입 : 총 2종(46책)
  · 기념 전시회 개최 : 2010. 6. 15. ~ 7. 15.
- 기대 효과 : 국내 최초로 디드로와 달랑베르 <백과전서>를 구입, 소장함으로써 대학의 학술연구 기반 확충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백과전서 원본

백과전서 전시회

○ '김동훈 도서기금' 학술정보 확충 사업
- 예산 규모 : 1.5억원
- 기금 출연자 : 김동훈 동문(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 내용 : Food Science 분야 학술정보 확충
  · 단행본 : 총 971책(국내서 : 187책, 외국서 : 784책) 구입
  · 연속간행물 : Food Science Source 등 전자자료 3종 구입
- 기대 효과 : Food Science 분야의 특성화된 학술정보 확충으로 관련 분야 국내 최대 학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학과(부)의 연구 경쟁력 강화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개소식 및 전시회 개최

・일자 : 2010. 11. 09. ~ 12. 10.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전시장 및 개소식 행사

나. 정보관리과

○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도서원부 관리부서 변경

- 목　　적 :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도서원부는 1900년대 초반의 업무용 귀중자료로 산화 방지를 위한 항온항습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의 보관 및 특별관리가 필요
- 변경장소 : 수서정리과 도서원부실 → 정보관리과 고문헌자료실
- 수　　량 : 도서원부 128책
- 변 경 일 : 2010. 11. 11

○ 박영자 동문 자료 기증

- 기증자 : 박영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기증책수 : 1,862책
- 기증자료 중 국내 유일 소장 자료 80여책(시집 등)

○ 서울대학교 스누라이프 동아리 자료 기증

- 기증자 : 스누라이프(http://www.snulife.com)
- 기증책수 : 112책(2010년)
- 매년 신간도서 100책을 10년간 중앙도서관에 기증해 주기로 함.

○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http://donate.snu.ac.kr) 운영

- 기증자 관리

(2010. 12. 31 현재)

개인문고	사이버 개인문고	기증자 라이브러리
14명	17명	115명

- 개인문고 : 귀중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기증자의 호를 문고명으로 하고 있으며 기증자료는 별치 보관 관리
- 사이버 개인문고 : 기증자료 중 등록책수 1,000책 이상이며 사이버기념문고 홈페이지에서 관리
- 기증자 라이브러리 : 기증자료 중 등록책수 100책 이상이며 사이버기념문고 홈페이지에서 관리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 목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분야 특성화에 따른 학술정보 확충, 홍보 및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를 기함으로써 학술정보 확충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국가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이용자서비스 강화

·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센터 서비스 홍보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개막전시회 개최를 통한 교내외 홍보

* 시설 및 환경개선

· 노후화된 서가교체: 47대

· 책 운반기 구입: 37대

· 스캔 복합기 및 칼라프린터 설치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상징물 제작설치: 센터위치 표식과 자연과학 센터내용을 보여주는 상징물 제작 및 설치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실적

· 원문복사서비스: 1,753건(1,032건/센터평균)

· 7개 센터 평가를 통하여 전년 대비 지원금 증액(350백만원 → 365백만원)

○ 2010학년도 새내기대학 <도서관이 재미있다> 강의 및 중앙도서관 견학

- 교육 내용 :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의 도서관 100% 활용을 위한 교육
- 일시 및 장소 : 1/19, 26(화) 1/21, 28(목) 13:00~16:3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대회의실
- 교육횟수 : 1, 2차 총 4회(총 160명 수강) 및 중앙도서관 견학(총 240명 참여)

○ 장서점검 실시(2차) 및 후속처리
- 점검일시 : 2010년 2월 4일 - 6일(3일간)
- 점검대상 : 1-3자료실(56만여 책)
- 작업방법 : 외주용역업체 의뢰
- 후속처리내용
  ・오류도서 : 17,604책 발생(서지DB 및 장비 오류 등)
  ・처리내용 : 10,952책 처리 완료(서지DB수정대상 2,235책 수서정리과 처리의뢰, 도서상태 및 장비 오류도서 8,717 책은 단행본자료실에서 자체 처리완료)
  ・잔여 처리대상 : 6,652책 현재 진행 중

○ 고문헌 디지털화 용역 사업(원문구축)
- 대상자료 : 고문헌자료실 소장 딱지본 및 국내 발행 잡지 자료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1년 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인건비 용역직원 1명 채용)

○ 중국 CALIS 원문복사 서비스 시행
- 내용 : KERIS와 중국 CALIS간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600여 중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 발송방법 : E-Mail 전송(신청자에게는 출력물 전달)
- 이용대상 : 본교 소속 이용자
- 시행일 : 2010년 3월 15일부터

○ 201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용교육
- 교육 내용 : 도서관 서비스・정보검색 교육 및 도서관 투어
- 일시 및 장소 : 3/22(월) - 3/26(금) 10:30-11:20, 16:00-16:50, 도서관 세미나실
- 교육횟수 : 총 9회(총 188명)

○ 국내 실물상호대차 신청자료 구입 의뢰
- 내용 : 2005년 11월 ~ 2010년 4월까지 국내 실물상호대차를 통하여 타 대학으로 신청한 학술자료를 조사하여 수서정리과로 자료 구입협조 의뢰(2,134종)
- 기대효과 : 상호대차 신청자료의 장서개발

○ 영상자료실 개관시간 확대

- 2010년 5월 31일(월) 실시
- 목적 :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이용 증가와 수시로 발생하는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을 위하여 영상자료실 개실 시간을 일반자료실 운영시간과 같이 확대하여 운영
- 내용

개실시간 확대		자료열람방법 변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09:00 - 18:00	09:00 - 21:00	개가제	주간 개가제, 야간 폐가제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예전과 같이 휴실함

- 운영방법
  - 영상자료의 대출시간은 현행(09:00-18:00)과 동일하며, 대출한 자료는 21:00까지 영상자료실에서 이용 가능
  - 영상자료 서고를 18:00 이후 폐가제로 전환

○ 도서관 Database 및 학술정보 이용교육 활성화

- 목적 : 학술연구 Database 이용교육 확대로 이용자들의 도서관 자원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단순 연구지원 요청 최소화
- 방법 : 이용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2010년 6월부터 이용교육 확대 개발 및 교육 내실화
- 이용교육 강화 내역

월별	이용교육(정기교육) 개발 내용
기존 교육	EndNote 초/중급, 인문사회/과학기술 DB, 도서관정보검색, Web of Science, RefWorks, Reaxys
2010년 6월	교육학 DB, 특허 DB, 인문학 DB, 도서관101% 활용법
7월	인용색인 DB, 사회과학 DB, 공학 DB, PubMed DB, 화학 DB 특강(Reaxys vs. Scifinder)
8월	통계 DB, 자연과학 DB
9월	강의지원교육 확대 및 홍보 공문 발송
10월	SCIE 특강
11월	EndNote 이용법 동영상 제작 및 서비스
12월	한중일(韓中日) DB
2011년 1월	참고문헌작성법, EndNote 고급

※ 주제별 DB 이용교육, EndNote 이용교육, 강의지원 교육 등 교육 세분화 및 확대로 전년 동기(5월~10월) 對比 이용교육 11회 증가, 이용교육 참석 인원 727명 (24%)증가

○ 도서관 홍보동영상 자체 제작

- 제작기간 : 2010년 6월 - 8월
- 제작방법 : 도서관 자체 제작(10분 17초)
  · 시나리오 작성 및 영상 편집, 제작 : 전산지원실
  · 나레이터 : 국문(연구지원실 이민경), 영문(경영학과 이이네스)
- 제작언어 : 국문판, 영문판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원문복사서비스 시행

- 내용 : 우리 도서관이 자연과학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 자연과학분야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및 타 지원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무료 원문복사서비스
- 서비스 대상 학술지 : 자연과학분야 구독 외국학술지 729종
- 시행일 : 2010년 6월 25일부터

○ 업무용 CCTV 설치

- 목적 : 도서 대출/ 반납 시 발생되는 민원해결 및 안전사고 예방

설치장소	중앙대출실	영상자료실	3층 반납실
수 량	2	1	2

- 설치 일시 : 2010년 7월 1일

○ '100년 전 한국의 통속문학(일명 딱지본)'사이버 전시회 개회

- 1920년대를 전후해 발행된 딱지본을 수집해 원문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해 홈페이지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함
- 대상자료 : 딱지본 212책
- 서비스 가동일 : 2010년 7월 14일부터
- 서비스 제한 사항 : 학내-보기/출력 가능, 학외-보기만 가능

○ 열람실 실시간 좌석 현황 조회 서비스

- 목 적 : 이용자들의 열람실 이용 편의를 위해 열람실 좌석 현황 (전체/사용/잔여 좌석수)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가동일 : 2010년 8월 30일

○ 자료보존실습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0년 9월 1일(중앙도서관 6층 교육실)
- 강사 : 이귀복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 외
- 참석자 : 중앙도서관 및 분관 직원 30명
- 교육내용 : 자료보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센터에 서고 환경 측정 의뢰
- 측정결과 주요내용
  · 서고내 온습도가 일정치 않음
  · 공조기 성능 점검 필요
  · 먼지 제거 및 자료의 소독처리 필요
  · 자료 보존 · 복원을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
- 측정일 : 2010년 9월 17일

○ 통합 KORMARC을 적용, 소급 서지데이터 변환 및 표준화
- 작업기간 : 2010년 9월 ~ 12월
- 대상자료 : 2010년 이전에 생성한 KORMARC 데이터 45만건(규장각 데이터 제외)
- 변환근거 : 2010년 1월 1일부터 정리부서에서 국내서 자료에 대한 MARC 형식을 통합 KORMARC 형식으로 적용하여 시행함에 따라 소급분 데이터 처리

○ eTL시스템 DB서버 이중화 구축 지원
- 목적 : DB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축
- 추진 내용
  · DB서버 2대 신규 도입 및 이중화 구현
  · 기존 DB 서버 기능/콘텐츠의 분리·이관 작업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스토리지 및 백업 용량 증설, 백업 S/W 추가 설치
- 기간 : 2010년 10월 ~ 12월

○ 고문헌 자료보존 특강
- 일시 : 2010년 10월 1일
-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대회의실
- 강사 : Sonja Jordan-Morway(Johns Hopkins University Sheidon Library)
- 참석자 : 중앙도서관 및 분관 직원 등 45명

○ 학과전담연구지원 업무 체계화 및 역량 강화
- 업무 체계화를 위한 매뉴얼 『연구지원업무 들여다보기』 제작(2010년 5월 25일)
- 7개 분관도서관의 연구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연구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2010년 10월 6일)

○ e-Book 단말기 시범서비스
- 일시 : 2010년 11월
- 목적 : 서울대 구성원에게 e-Book 단말기 체험 기회 제공
- 내용
  · 단말기 : 60대 , KT 제공
  · 체험서비스기간 : 2010년 11월 11일부터
  · 대출자격 : 중앙도서관 자료대출 가능자
  · 대출기간 : 7일(연장 불가)

○ 디지털 콘텐츠 저장용 노후 스토리지(14TB) 교체
- 목적 : 기존 스토리지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 만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콘텐츠 저장 및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교체
- 추진 내용 : 스토리지(14TB) 도입 및 콘텐츠 이관 작업
- 기간 : 2010년 12월

○ 정보검색실 이용자 환경 개선
- 목 적 : 노후화된 PC 교체 및 한글 최신 버전 설치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개선
- 추진 내용 : 노후 PC 45대 및 스캐너 2대 교체, 한컴오피스2010 설치
- 기 간 : 2010년 12월

○ S-Space 기능 고도화 사업
- 가동일 : 2010년 12월 20일
-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및 속도개선 등 기능 강화
- 저자 페이지 생성 및 Browse 기능 추가
- 외부데이터 연계작업(SCOPUS 인용정보), Open API 관리 강화 등

○ 좌석배정시스템 영수증 발급 선택 기능 도입
- 목 적 : 불필요한 영수증 출력으로 열람실 환경 저해 및 종이 낭비 문제 해결
- 가동일 : 2010년 12월 23일

○ 법인화를 대비한 도서관 정책연구 과제 완료

- 기 간 : 2010. 6. ~ 2010. 12.
- 제 목 : 법인화를 대비한 중앙도서관 인력, 예산, 장서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과제책임자 : 종교학과 김종서 교수

다. 행정지원팀

○ 중앙도서관 시행 세칙 일부 개정

- 내 용 : 신분별 도서 대출 책수 변경
- 시행일 : 2010. 4. 1.

개정 전			개정 후		
이용자 구분	도서 대출		이용자 구분	도서 대출	
	책수 (책)	대출기간 (일)		책수 (책)	대출기간 (일)
학사과정 재학생, 교환학생, 계절학기 수강생, 각 기관의 공개강좌생 또는 단기 교육생, 각 기관장이 임용한 자체직원	10	14	학사과정 재학생, 교환학생, 계절학기 수강생, 각 기관장이 임용한 자체직원	10	14
			각 기관의 공개강좌생 또는 단기 교육생	5	14

○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ABKI) 공개강좌 개설

- 사회 각 분야의 최고지도자들에게 고전과 최첨단 문헌지식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내에 최고위과정 개설
- 개설일 : 2010. 4.
- 수강기간 : 2010. 9. ~ 2011. 5
- 수강생 : 정원 60명

○ 수원 보존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 장서 증가로 포화상태인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캠퍼스 (구)농학분관 자리에 보존서고 리모델링 완료
- 규모 : 3개층 3,072㎡를 서고화하여 60만책 소장 가능
- 중앙도서관 보존서고 소장 도서를 단계별로 이관 예정

○ 직원 워크숍 개최
- 도서관 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원 의식 개선과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통한 비전 공유를 위하여 직원 워크숍 개최함
- 일시 : 2011. 11. 5. ~ 11. 6. (1박2일간)
- 장소 : 강원도 횡성
- 내용 : 도서관 업무 시스템 혁신 경진대회

2. 분관

가. 사회과학도서관

○ 4층 열람실 환기개선 및 창문설치 공사
- 수량 : 8개
- 밀폐 창문을 개선하여 내부공기 순환 및 환기 개선

○ 사물함 교체 구입 설치
- 수량 : 200개(신형 다이얼링 사물함)
- 지원 및 재원 : 사회과학대학 일반회계

○ 단행본서고내 천연향균제(곰팡이제거제) 설치
- 목적 : 서고내 공기정화 및 책속 곰팡이 퇴치 기능으로 쾌적한 서고 조성

○ 일반열람실내 개인용사물함 비치 및 정리
- 대상 : 도서관사물함을 배정받지 못한 사회과학대학 학부생
- 방법 : 도서관행정실에 사용신청후, 개인용사물함 구역지정 비치
- 이용기간 : 2010. 3.15 ~ 2011. 2. 28까지(학기단위)

○ 사회과학도서관 CCTV 설치
- 목적 : 이용자 소지품 도난 및 범죄예방
- 수량 : 11대(1층 출입구 및 각 열람실)
- 지원 및 재원 : 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

○ 사회대교수 저술도서 및 신간도서 안내 전시

- 전시장소 : 도서관1층 북카페, 행정실앞
- 2010. 3. 2 이후 계속 전시

나. 경영학도서관

○ 단행본실 도서 장서점검

- 작업기간 : 2010. 2. 1 ~2. 28
- 내용 :
  단행본 32,000책을 서지데이터와 실물 점검을 통해 영문판과 한글판.
  International판의 청구기호 일치로 자료이용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 서고이동 및 서가이동작업

- 작업기간 : 2010. 7. 1~ 7. 20
- 내용 :
  · 지하서고에 보존되어 있던 합철제본도서 13,000책을 2층 연속간행물실로 이동하여 자료이용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 신간연속간행물 200종을 제1서고로 이동함으로써 자료이용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모바일 리더기 설치

- 기존에 사용하였던 학생증 및 S-Card로는 부족한 부분을 모바일 리더기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서비스에 최선을 다함

○ 열람실 내 무선 랜 설치

- 도서관 열람실 내 무선 랜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서비스에 중점

○ 2010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시 : 2010. 2. 10 ~ 2. 23
- 대상 : 경영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 신입생
- 내용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및 경영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방법
  소장자료 검색 등 신입생으로서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홍보 실시

○ 도서관 환경개선

-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 바닥 대청소 및 왁스작업 실시

다. 농학도서관

○ 고문헌자료실 설치 및 지하서고 환기개선 시설
- 고문헌자료실 설치(지하서고 내 30평 규모)
  · 비치자료 : 12,405책(1945이전발간9,966책, 동장본465책, 향산문고(현신규교수) 1,974책
  · 고문헌실 자료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한적 이용 시행
  · 수원캠퍼스 내 농학박물관사료 500여 점 인수 비치
  (박물관장 최진용교수 제안, 2010. 4. 22)
- 자동 환기시설 설치 : 반 지하 상태로 습기가 차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급배기 모터 4기
- 2010. 2. 20 설치 완료

○ 영상자료 구입
- 농업생명과학 관련 영상 DVD 238종 262개 구입
- 교수 강의 보조자료 및 학생 학습 자료로 활용
  · 농업, 환경, 자연 생태, 자원보존 등 관련
- 2010. 2. 15

○ 싸인 보드 등 교체
- 외부 입간판 추가 설치, 내부 방향안내 스탠드 표지판 신규설치
- 노후 서가가이드 재 부착
- 소요예산 5백만 원, 2010. 2. 20

○ 정보검색실 컴퓨터 교체
- 노후 컴퓨터 본체 10대 교체
- 소요예산 : 농생대 기성회계 700만원
- 2010. 2. 20

○ 자료대출실 직원 휴게실 설치
- 여직원 휴게공간 부재로 열악한 근무상태를 개선
- 소요예산 1백만 원, 2010. 4. 24

○ 농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교수 8명, 직원 2명 참석(농학도서관 사무실, 2010. 4. 26)
- 2010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 농학박물관 보유 기록물 인수 등 의견 수렴

○ 지하서고 도서 전면 재배치

- 동, 서양서 분리배열 상태로 인한 학생 검색불편을 야기
- 동, 서양서 약 62,000책의 통합배열을 통한 업무효율 및 이용자 편의 대폭 개선
- 통합배열 및 미정리 복본도서 폐기로 공간 여력 확대 부수적 효과 소득
- 소요예산 : 농대 기성회계 약 400만원
- 2010. 5. 15

라. 법학도서관

○ 국산법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완료

- 공사기간 : 2009. 10. 13. ~ 2010. 2. 6.(113일)
- 시행기관 : 기술과

○ 법학도서관 자료실 이전 [공간 재배치] 및 자료 재배가

- 이전 및 자료이동 재배가 : 2010. 2. 16. ~ 2. 22.(5일간)
- 자료 재배가 책수 : 118,000여책
- 공간 재배치 내용

건 물 명	층 별	배 치 내 용	비 고
국산도서관	2	신착연속간행물실	
	2	참고자료실	
	3	연속간행물자료실	
서암도서관	2	정보검색실,	
	3	단행본자료실, 문고도서, 학위논문, 지정도서, 대출실.	

○ 법학도서관 열람실 증설

건 물 명	층 별	열 람 실 명	좌 석 수
서암도서관	2	3열람실	136석
국산도서관	3	4열람실	86석

○ 이용자 안내 사인보드 제작 설치 완료

- 목적 : 법학도서관 자료실 안내 및 자료 이용 편의 제공
- 수량 : 48개(부착형 33개, 천정걸이형 15개)
- 설치일 : 2010. 4. 22.

○ 법학도서관장 인사발령

- 성명 : 이원우 교수 법과대학(행정법 전공)
- 임기 : 2010. 7. 1. ~ 2010. 7. 25.
- 성명 : 김도균 교수 법과대학(법철학 전공)
- 임기 : 2010. 7. 26. ~ 2012. 7. 25.

○ 법학 연구지원 서비스

- 법학 연구지원 자료 제공 : 139건
- 제공내용 : 저작물의 보상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보도자료 조사 (정상조 교수님)외 138건

○ 법률 DB 이용자 교육

- 법률 DB 이용자 교육 : 총 6회
- 교육참가자 : 195명
- 교육내용
  · Westlaw 검색방법 : 2회
  · 로앤비 검색방법 : 2회
  · 법 정보조사론 교육 : 2회

○ 2010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참여

- 목적 : 법학 환경의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 법률의 구조. 체계 및 접근방법에 관한 교육
- 과정 : 법률정보조사과정
- 기간 : 2010. 12. 13. ~ 12. 17.(5일간 30시간)
- 장소 : 국회 의정관 강의실(101호)
- 참가자 : 윤세희(행정조교)
- 기관 : 국회도서관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 3. 22(월) 14:0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서암관) 5층 512호
  · 참가교 : 운영위원회 소속 대학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 내 용 : 제2회 정기총회 개최(안) 및 2010년도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사업

- 제2회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10. 4. 23. ~ 24.(2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03호 서암홀
  · 참가교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회원 30개교
  · 내 용 : 2009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추인, 법학관련 신지식 소개

- 제2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0. 8. 19. ~ 8. 20.(2일간)
  · 장 소 : 리솜 스파캐슬(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 참가교 : 회원교 및 유관기관(총 24개 기관 41명 참석)
  · 주 제 : 대한민국의 법학도서관 : 차이에서 배우다.

-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 10. 25(월) 15:00 ~ 18: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참가교 : 운영위원회 소속 대학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 내 용 : 2011년도 추진사업 발굴 및 법학도서관 간 자료 상호협력 증진방안

마. 의학도서관

○ 연구지원서비스 및 이용자 교육

- 목 적 : 수시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의학 연구자들에게 EndNote등의 서지관리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정보원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접근법을 교육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학술 연구 향상에 기여함

- 내 용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연구자료 제공(18건) 및 의학 데이터베이스 정기 교육 및 출장 교육(25회 466명 수강) 실시

○ ISBN / ISSN 부여 사업

- 목 적 : 연건캠퍼스에서 발행되는 자료에 대한 ISBN 부여 및 납본 제도를 통하여 산재된 연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학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보존
- 내 용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도서 중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지 않거나 개인이 스스로 등록하던 ISBN 등록 업무 및 도서 납본 업무 대행
- 부여건수 : ISBN 6건, ISSN 1건

○ 학위논문서고 설치

- 목 적 : 매년 지속적으로 입수되는 본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보존 공간을 확보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자료 보존 공간을 확보
- 내 용 : 의학도서관 지하에 단식 6단 6연 및 복식 6단 60연을 설치하여 석·박사 학위논문 16,346책을 이동 재배치

○ 단행본자료실 서가 이전 및 재배열

- 목 적 : 신규 입수도서의 배열을 위한 서가 공간 확보를 위해 참고도서 및 DDC 분류도서의 이동 재배열
- 내 용 : 기존 학위논문 서가를 활용하여 참고도서(1,093책)및 DDC 분류도서(30,261책)를 이동 재배치

○ 의과대학 동창회 도서 기증

- 목 적 : 의대동창회에서 재학생 및 연구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 도서를 기증하여 연구 및 학습에 기여하고자 함.
- 일 시 : 2010. 10. 5.(화)
- 책 수 : 194책(2,000만원 상당)
- 장 소 : 도서관 3층 함춘재
- 참석자 : 의과대학동창회장, 의과대학 학장, 의학도서관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 한국메들라스센터 User Group 세미나

- 목 적 : 한국메들라스센터 회원기관에 효과적인 NLM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소속 기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DB 이용 교육을 제공하게 하고, 센터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의학도서관 발전 방향 모색
- 일 시 : 2010. 04. 23.(금) 09:30 ~ 17:00
-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
- 참석인원 : 102명
- 주 제 : PubMed와 EndNote 활용법 및 의학 분야 Open Access 동향

○ 보안카메라(CCTV) 설치
- 목 적 : 개인 소지품 분실 및 자료 도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과 화재 예방
- 공사기간 : 2010. 05. 31.~06. 16.
- 내 용 : 의학도서관 전층 CCTV 설치(24대)
- 소요예산 : 3,000만원(의과대학 지원)

○ 내부 벽면 도색 공사
- 내 용 : 의학도서관 계단 벽면 도색 작업
- 공사기간 : 2010. 05. 08.~05. 09.

○ 사물함 교체 및 증설
- 목 적 : 노후 사물함 교체 및 맞춤형 사물함을 제작하여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
- 내 용 : 의과대학 3~4학년 학생 개인별 지정 사물함 설치(280개)

바. 국제학도서관

○ 단행본실 도서 정배열점검
- 작업기간 : 2010. 2.1~2.26, 8.11~8.30
- 내　　용 : 방학기간 정배열점검을 통해 자료이용과 장서관리의 효율성 향상

○ 학술자료 확충
- 국내도서 1,071책, 국외도서 1,600책
- 수업자료 연계를 위한 강의지정도서 확충
- 학술지 127종
- Web D/B 1종 추가구독 (EIU City Data)

○ 이용자교육 2회 실시

- 일 시 : 2010. 3. 26 (신입생대상 도서관이용 오리엔테이션)
  2010. 11. 19 (EndNote 교육)

○ 연구지원서비스 전담실시

-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던 연구지원서비스를 2010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 소속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학도서관에서 전담하여 실시.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국립고궁박물관 공동주최 특별전시회

- 주제 :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특별전 (100 Years Past: Memories of The Korean Empire)
- 전시 기간 : 2010. 6. 29 ~ 10. 30
- 전시 장소 : 규장각 전시실 및 국립고궁박물관(6.29-8.29)
- 전시 자료 및 학술대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전시자료 : 국권침탈 과정과 영토 정책 관련 조약문 등 문서자료
    > 학술대회 : '강제병합 100년 전을 뒤돌아본다" 국제학술대회(8.27-28)
  - 국립고궁박물관
    > 전시자료 : 관련 유물자료
    > 특별강연 :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향한 꿈과 노력 재조명(7.15, 8.12)
  - 전시도록 규장각-고궁박물관 공동 제작, 컬러 408면

○ 규장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DB구축 2차년도 사업 완료

- 주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업기간 : 2009. 09. 01 ~ 2010. 07. 31
-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의궤의 전자문서, 이미지, 텍스트 구축(전자문서 7,000매, 이미지 32,464면, 텍스트 458,660자 구축)
- 개발내용 : 규장각 자체 중앙허브와 연계를 위한 레포지토리 구성, 추가자료에 대한 데이터 검증 및 변환 DB적재(44,469면)

○ 고문헌서고 조명 교체공사 실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고문헌 자료의 퇴색 방지 및 전기관계자의 잦은 서고 출입에 따른 보존환경 훼손 방지
- 대상 : 제1, 2, 4서고
- 기간 : 2010.9.6 ~ 9.10, 11.17 ~ 11.18
- 추진사항
  · 기존의 퇴색방지용 형광등을 자외선 방출이 전혀 없는 LED조명으로 교체

○ 해충피해 방제를 위한 모니터링 및 방충소독 실시

- 추진목적
  · 서고 및 연구실의 해충 서식 확인 및 방충소독 실시여부 결정
  · 소장 자료의 보존환경 유지와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
- 설치장소 : 서고, 전시실, 연구실 등 53개소
- 트랩설치 및 분석 기간 : 2010. 6. 14 ~ 7. 2
- 소독기간 : 2010. 8. 2 ~ 8. 8

○ 고문헌 복제본 제작

- 추진배경
  · 이용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하여 원본과 동일한 모사본 및 복제본 제작
  · 연구 및 전시, 보존용으로 활용
- 제작방법 : 원형모사 및 현상복제
- 작업기간 : 2010.11.1~12.30
- 제작과정 및 대상자료
  · 모사본 제작 : 안료분석 및 종이물성분석을 통하여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모사 전문 화가에 의해 원형 모사본 제작(회강반차도 1점)
  · 복제본 제작 : 종이물성분석 및 책판형 이미지 제작, 기타 부속재료의 분석을 통하여 원본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현재 상태와 동일하게 인쇄하여 복제본 제작(삼국유사, 외교문서 등 21책)

직 원 동 정

■ 국외출장

출 장 기 간	출 장 자	출 장 목 적
02. 1. ~03. 14.	김현준, 박정주, 송지형	Kyushu Univ. Library 협력방안 논의
03. 28. ~ 04. 02.	임영희	Wiley-Blackwell 학술저널 출판 모델 수립 워크숍 참가
04. 22. ~ 04. 28.	김소미, 나혜란	8th Annual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워크숍 참가 (HongKong)
06. 24. ~ 07. 04.	김종서	ALA(미 도서관협회) 연례총회 참가
08. 10. ~ 08. 15.	김기태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IFLA) 참가
10. 06. ~ 10. 15.	김창근	유럽 선진 대학도서관 연수 참가
10. 19. ~ 10. 23.	황영숙, 유재아, 조진영	PRDLA(환태평양 전자도서관협의체) 연례총회 참가
10. 24. ~ 10. 31.	이재원	동아시아도서관 문헌협력 및 중국신문 디지타이징 심포지엄 참가
11. 30. ~12. 03.	김은식, 박애신	고문헌 보존에 관한 일본대학시스템 벤치마킹

■ 인사발령 · 포상

□ 보직

2010. 03. 01. 윤석민 (사회과학대학 교수) 사회과학도서관장
2010. 07. 01.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도서관장
2010. 07. 26. 김도균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도서관장
2010. 09. 01. 박수진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사회과학도서관장

□ 신규 임용

2010. 01. 12. 이영기 기능8급 (정보관리과)
2010. 02. 01. 김현미 행정서기 (수서정리과)
2010. 02. 01. 박애신 행정서기 (수서정리과)
2010. 07. 20. 최명훈 기성회직 (수서정리과)
2010. 12. 01. 김주희 사서서기 (정보관리과)
2010. 12. 01. 윤성호 사서서기 (정보관리과)

□ 전보

2010. 01. 06. 장차희 의학도서관
2010. 01. 06. 김기태 수서정리과
2010. 01. 06. 이재원 정보관리과
2010. 04. 19. 마미경 수서정리과
2010. 04. 19. 김옥수 정보관리과
2010. 04. 19. 이수옥 법학도서관
2010. 04. 19. 이민경 정보관리과
2010. 04. 19. 안유경 정보관리과
2010. 04. 19. 최영숙 행정지원팀
2010. 04. 19. 이재순 사무국(총무과)
2010. 07. 07. 박장표 의학도서관
2010. 07. 07. 이정수 정보관리과
2010. 08. 03. 김근옥 경영학도서관
2010. 09. 01. 최익진 학생처
2010. 09. 13. 김원찬 수서정리과
2010. 09. 13. 김화택 행정지원팀
2010. 10. 06. 류양숙 의학도서관
2010. 10. 06. 최윤범 정보관리과

2010. 10. 06. 빙재섭 수서정리과
2010. 10. 12. 이윤경 수서정리과

□ 전입

2010. 04. 19. 박 진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강원도교육청)
2010. 04. 19. 박상근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경기도 의왕시)
2010. 09. 01. 이정주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문화체육관광부)

□ 공로연수

2010. 12. 31. 김창근 (수서정리과, 서기관, 2011.1.1.~2011.12.31)

□ 정년퇴직

2010. 06. 30. 류갑번 (경영도서관, 사서주사)
2010. 06. 30. 김영애 (행정지원팀, 사서주사보)
2010. 06. 30. 김영식 (행정지원팀, 기능8급)
2010. 12. 31. 김옥도 (정보관리과, 기능7급)
2010. 12. 31. 김헌제 (정보관리과, 기능8급)

□ 명예퇴직

2010. 02. 28. 신승남 (의학도서관, 사서주사보)

□ 퇴직

2010. 07. 23. 남궁문선 (행정지원팀, 자체직원)

□ 휴직

김근옥 사서주사보 질병휴직 (경영학도서관, 2010. 12. 01.)
구본경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0. 12. 01.~2011. 11. 30.)
권영미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0. 08. 23. ~ 2011. 08. 22.)
김승우 사서서기 질병휴직 (정보관리과, 2010. 03. 05.)
윤효진 사서서기 유학휴직 (정보관리과, 2010. 06. 21. ~ 2011. 06. 20.)
장혜영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0. 03. 21. ~ 2011. 03. 20.)
주 영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0. 08. 10. ~ 2011. 08. 09.)
최영순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0. 01. 01. ~ 2011. 12. 31.)
최은정 사서서기 동반휴직 (수서정리과, 2010. 03. 26. ~ 2012. 03. 25.)

□ 파견근무

2010. 10. 11. 김원찬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과 (2010. 10. 11. ~2011. 10. 10.)

□ 포상

◎ 근속공로표창

30년 근속공로 표창 : 김선희, 김순옥

20년 근속공로 표창 : 김미향, 이숙희

◎ 모범공무원 표창 (2010. 01. 04.)

홍순영

◎ 국민교육유공자 포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0. 01. 04.)

김순옥

◎ 대학도서관 유공 표창 (2010. 08. 26.)

김미향

□ 애경사

2010. 01. 16. 민승관 아들 결혼

2010. 02. 24. 홍구표 빙부상

2010. 03. 28. 강연아 본인 결혼

2010. 05. 20. 윤문자 시모상

2010. 06. 21. 민승관 빙모상

2010. 07. 14. 장석일 부친상

2010. 07. 24. 김화택 빙부상

2010. 08. 24. 윤문자 시부상

2010. 08. 25. 이재룡 빙부상

2010. 10. 23. 윤문자 아들 결혼

2010. 10. 30. 이재룡 딸 결혼

2010. 11. 19. 정혜란 시부상

■ 직원일람표

(2010. 02. 01.현재)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중앙도서관	관 장	김종서	관 장
수서정리과	과장	장석일	과 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김기태	과 업무 총괄보좌
	사서주사	김동희	단행본 정리 전반
	"	김선희	수의대 지원
	"	정계명	연속간행물 정리/관리 전반
	"	윤문자	기증/교환 전반
		홍순영	단행본 수서 전반
	"	황말례	연속간행물 수서 전반
	사서주사보	김현자	국내서 정리
	"	마미경	유럽서/e-book 수서
	"	박선희	영미서 수서
	"	박정순	국내서 수서
	"	박정주	비도서 정리
	"	박현우	동양서 정리
	"	이성렬	교환/학위논문
	"	이주석	연속간행물 정리
	"	이태순	국내서 정리
	"	임영희	전자자료 수서
	"	장신문	외국서 정리
	사서서기	김소미	서양학술지 수서
	"	남궁선희	과 행정업무
	"	박상근	국내서 정리
	"	이윤경	동양서/비도서 수서
	행정서기	김현미	외국서 정리
	"	박애신	연속간행물정리
	기능 8급	김은식	동양/기증 학술지 수서
	"	빙재섭	연속간행물 관리
	기성회직	최명훈	기증/교환
	자체직원	이정례	기증/교환
	"	홍원희	국내학술지 수서
	"	박종욱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	이다나	"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정보관리과	과장	김성자	과 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이재원	과 업무 총괄보좌
	사서주사	김미향	연구지원실 운영
	"	류운주	비도서자료실 운영
	"	박봉금	기초교육정보/참고자료실 운영
	"	박영배	자료복원실 운영
	"	박정희	단행본자료실 운영
	"	송준용	정보기획실 운영
	"	정노옥	상호대차실 운영
	"	정희주	중앙대출실 운영
	사서주사보	강연아	연구지원실
	"	김기숙	전산지원실
	"	김옥수	영상자료실
	"	민세영	전산지원실
	"	유재아	연구지원실
	"	이정수	단행본자료실
	"	최미순	연구지원실
	"	최윤범	단행본자료실
	"	황영숙	고문헌자료실 운영
	전산주사보	김다영	전산지원실
	"	박진만	전산지원실
	"	배종학	전산지원실
	사서서기	김승우	단행본자료실
	"	김주희	연구지원실
	"	나혜란	전산지원실
	"	박 진	비도서자료실
	"	안유경	연구지원실
	"	안지원	중앙대출실
	"	윤성호	중앙대출실
	"	이민경	연구지원실
	"	이영미	상호대차실
	"	이은주	연구지원실
	"	이지선	연구지원실
	"	홍주연	연구지원실
	기능8급	류능렬	자료복원실
	"	장희철	비도서자료실
	기능 10급	정창원	과 행정업무
	"	이영기	전산지원실
	조 교	송지형	고문헌자료실
	기성회직원	송미경	정보기획실
	자체직원	김영란	단행본자료실
	"	김영민	단행본자료실
	"	신연경	중앙대출실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행정지원팀	팀 장	홍성수	과 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현준	행정실 운영, 시설 관리
	사서주사보	김순옥	간접비, 기성회계
	"	김화택	기획, 성과평가
	행정주사보	이정주	서무, 인사, 복무
	사서서기	조진영	대외협력, 도서관홍보, 직원교육
	행정서기	최영숙	일반회계
	기성회직	정유진	급여, 물품관리
	자체직원	오수진	부속실, 서무업무 보조
	"	이무기	시설, 열람실관리 보조
사회과학분관	관 장	박수진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혁태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보	이숙희	정리, 상호대차
	재단직원	김동호	정보검색실
	"	여정순	정보지원실
	"	신명희	서무행정
	"	전경희	정리, 대출 반납
경영학분관	관 장	박진수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삼례	분관업무 총괄 보좌 행정업무
	재단직원	김연규	대출, 정보지원
농학분관	관 장	김경욱	분관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민승관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김장원	행정업무, 수서
	"	송화숙	정리, 연구지원
	행정서기	정혜란	연속간행물, 자료실 관리
	기성회직	이영미	대출 반납, 상호대차
법학분관	관 장	김도균	분관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임상원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장준수	수서, 서무, 시설관리
	사서주사보	이수옥	정리업무, 기증도서
	기능 8급	유순영	단행본자료실 운영 및 대출업무
	조교	윤세희	참고자료실 운영 및 법률문헌색인
	자체직원	안주연	연속간행물실 운영
	"	이슬아	정리/수서업무 보조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업무
의학분관	관 장	서정욱	분관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장차희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권광희	연속간행물실 운영
	"	류양숙	대출실 및 단행본자료실 운영
	"	박장표	대출실 및 단행본자료실 운영
	"	안장희	예산/시설 관리, 단행본 구입
	사서주사보	박천정	과 행정, 물품, 시설
	사서서기	최선희	연속간행물실
	자체직원	박진영	한국MEDLARS센터(해외문헌원문)
치의학분관	관 장	류인철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채종병	분관업무 총괄 보좌
	기성회직	최동숙	연속간행물실
	재단직원	김은지	단행본, 대출
국제학분관	관 장	은기수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류양님	분관업무 총괄 보좌
	계약직	윤정욱	연속간행물
	"	양상미	수서, 정리업무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부장	이상찬	정보자료관리부 업무 총괄
	서기관	이영우	정보자료관리부 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박숙희	자료운영팀 업무 총괄
	"	조선태	수서정리팀 업무 총괄
	학예연구사	이혜윤	고전적 보존처리
	사서주사보	권재철	고전적 보존관리, 서무
	"	김창섭	자료수서, 교환
	사서서기	박소담	한국학자료 서지DB 구축관리
	자체직원	권이태	촬영·편집 및 수수료 업무
	"	이광희	촬영 및 출납업무 보조

도 서 관 방 문

■ 2010년 도서관 방문 외부인사

월 일	국 명	방 문 자 (기관)	내 용
01. 11.	일본	후쿠오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Dr. YAMAZAKI Yoshihiro 외 2인	자료조사
02. 23.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도서관 이설희 관장	특별강연회
03. 10.	태국	치앙마이 대학 인문대학 교수진 25명	도서관견학
03. 11.	일본	일본 교토대학교 교직원 4명	도서관견학
03. 22.	태국	Chulalongkorn Univ. 교육학과 학과장 외 14명	도서관견학
04. 19.	러시아	보리스옐친도서관 부관장 외 11명	도서관견학
05. 07.	태국	Thammasat Uni. Library 관장 외 24명	도서관견학
06. 09.	베트남	Vietnam Nat'l Univ., Hanoi 도서관장 외 23명	도서관견학
06.16.~07.22.	몽고 외	문화동반자사업 연수자 4명	도서관연수
08. 02.	미국	Mr. Daniel W. Benedetti, Mugar Memorial Lib., Boston Univ.	도서관견학
10. 04.	일본	Dr. Hideyuki ITABASHI, Gunma Univ.	도서관견학
10. 13.	말레이시아	Univ. of Malaya Library 직원 25명	도서관견학
10. 20.	태국	Dr. Panjit Chunhabundit 외 3명, Mahidol Univ.	도서관견학
10. 29.	태국	Prince of Sonkla Univ. Learning Resources Center 관장외 24명	도서관견학
12. 02.	미국	Ms. Schunuer Susan외 2명, Mortenson Center, Illinois Univ. Library	자료조사

편집위원

위원장 : 홍성수

위 원 : 장석일, 김기태, 이재원, 임상원, 김현준, 박장표, 김순옥,
김화택, 권재철, 남궁선희, 정창원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제133호 <비매품>

발 행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51-749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 (02)880-5285
팩스 : (02)885-8977

발행인 : 도서관장 김 종 서

발행일 : 2011. 02. 28.

인 쇄 : 민창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406-17
전화 : (02)875-6808

ISSN : 2005-4947